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보고서
- 번역집 -**

2020. 12.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보고서 - 번역집

제 출 문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사업 결과보고서-번역집을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목차

I. 무성서원 현판 목록	1
II. 무성서원 현판 번역	7
1. 무성서원(武城書院)	7
2. 태산사(泰山祠)	7
3. 강수재(講修齋)	8
4. 현가루(絃歌樓)	8
5.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9
6.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11
7.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13
8.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5
9.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8
10.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20
11.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23
12.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26
13.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30
14.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32
15.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35
16.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37
17.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39
18.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41
19.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44

20. 무성서원모현기(武城書院慕賢記)	48
21.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51
22. 무성서원원지복구기(武城書院院址復舊記)	54
23. 무성서원의반중수기(武城書院椅盤重修記)	57
24. 무성서원장원중수기(武城書院牆垣重修記)	59
25. 무성서원제기개수기(武城書院祭器改修記)	61
26. 무성서원현우중수기(武城書院賢宇重修記)	64
27. 현우중수급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及典祀所廾建記)	67
28. 강당중창기(講堂重卼記)	70
29. 무성서원강수재중수기(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72
30. 현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74
31. 무성서원현가루기(武城書院絃歌樓記)	77
32. 무성서원현가루중수기(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81
33. 무성서원현가루창건기(武城書院絃歌樓卼建記)	86
34. 무성서원원지개간기(武城書院院誌開刊記)	90
35.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93
36. 기문(記文)	96
37. 김영득찬양문(金榮得讚揚文)	98
38~43 무성서원 강당 주련(38~43)	100
44~45 태산사 주련	102
46~49 강수재 주련1(46~49)	103
50~53 강수재 주련2	104

Ⅲ. 무성서원 금석문 번역	105
54.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105
55. 무성서원묘정비창건의연방명록(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113
56. 무성서원사적지정기념비기(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120
57. 무성서원중수기념비(武城書院重修紀念碑)	127
58.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	133
59. 사인 김인기 불망비(士人金麟基不忘碑)	137
60. 영상 이공최응 불망비(領相李公最應不忘碑)	139
61. 전 감역 정문술 중수 의조비(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140
62. 전 의관 이경희 불망비(前議官李慶熙不忘碑)	142
63. 전 참봉 주찬형 기공비(前參奉朱燦馨紀功碑)	144
64. 진사 최영대 영세 불망비(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147
65. 통정대부 전 비서감승 신용희 불망비(通政大夫前秘書監丞申瑑熙不忘碑)	149
66. 현감 서후호순 불망비(縣監徐侯灝淳不忘碑)	151
67. 현감 이후정식 불망비(縣監李侯定植不忘碑)	152
 Ⅳ. 무성서원 현판 원문	 153
1. 무성서원(武城書院) _ 편액	153
2. 태산사(泰山祠) _ 편액	153
3. 강수재(講修齋) _ 편액	153
4. 현가루(絃歌樓) _ 편액	154
5.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155
6.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157
7.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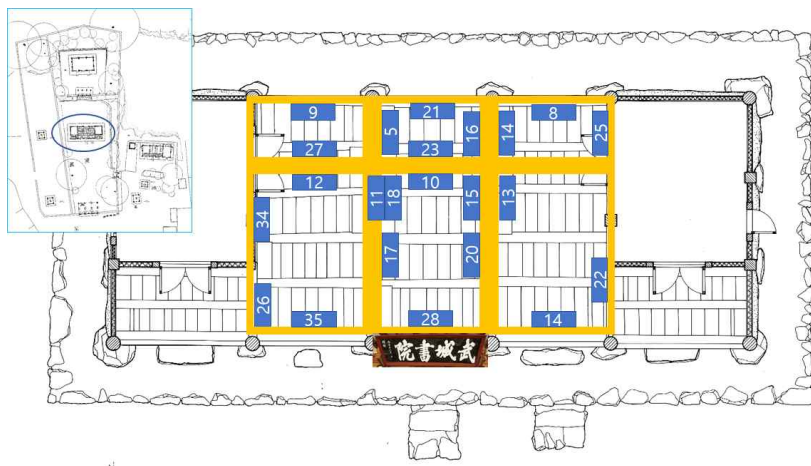
8.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60
9.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62
10.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64
11.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66
12.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67
13.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70
14.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71
15.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72
16.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73
17.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75
18.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77
19.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179
20. 무성서원모현기(武城書院慕賢記)	181
21.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183
22. 무성서원원지복구기(武城書院院址復舊記)	185
23. 무성서원의반중수기(武城書院椅盤重修記)	188
24. 무성서원장원중수기(武城書院牆垣重修記)	190
25. 무성서원제기개수기(武城書院祭器改修記)	192
26. 무성서원현우중수기(武城書院賢宇重修記)	194
27. 현우중수급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及典祀所創建記)	196
28. 강당중창기(講堂重創記)	199
29. 무성서원강수재중수기(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200
30. 현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201
31. 무성서원현가루기(武城書院絃歌樓記)	204
32. 무성서원현가루중수기(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206

33. 무성서원현가루창건기(武城書院絃歌樓勸建記)	209
34. 무성서원원지개간기(武城書院院誌開刊記)	211
35.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213
36. 기문(記文)	215
37. 김영득찬양문(金榮得讚揚文)	216
38~43 무성서원 강당 주련	218
44~45 태산사 삼문 주련	218
46~49 강수재 주련1	218
50~53 강수재 주련2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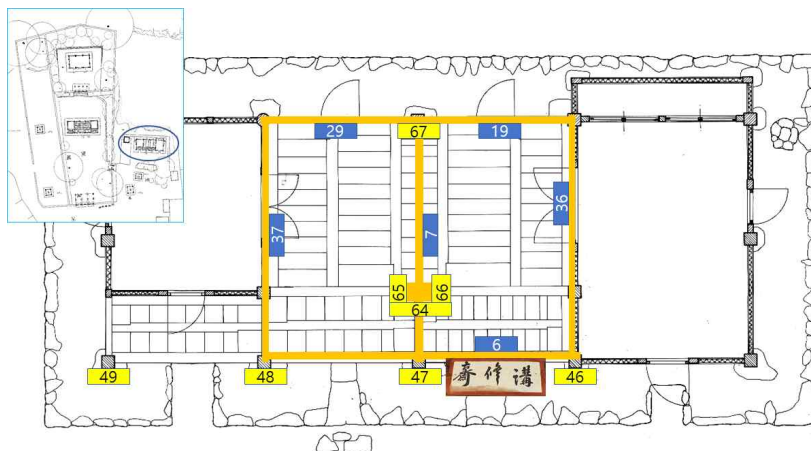
V. 무성서원 금석문 원문

54.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220
55. 무성서원묘정비창건의연방명록(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223
56. 무성서원사적지정기념비기(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229
57. 무성서원중수기념비(武城書院重修紀念碑)	235
58.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	241
59. 사인 김인기 불망비(士人金麟基不忘碑)	244
60. 영상 이공최응 불망비(領相李公最應不忘碑)	245
61. 전 감역 정문술 중수 의조비(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245
62. 전 의관 이경희 불망비(前議官李慶熙不忘碑)	247
63. 전 참봉 주찬형 기공비(前參奉朱燦馨紀功碑)	248
64. 진사 최영대 영세 불망비(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249
65. 통정대부 전 비서감승 신용희 불망비(通政大夫前秘書監丞申瑬熙不忘碑)	250
67. 현감 이후정식 불망비(縣監李侯定植不忘碑)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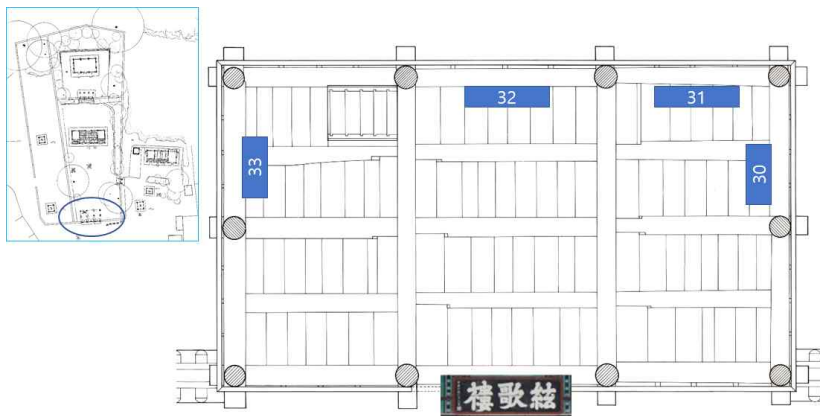
□ 무성서원 현판·금석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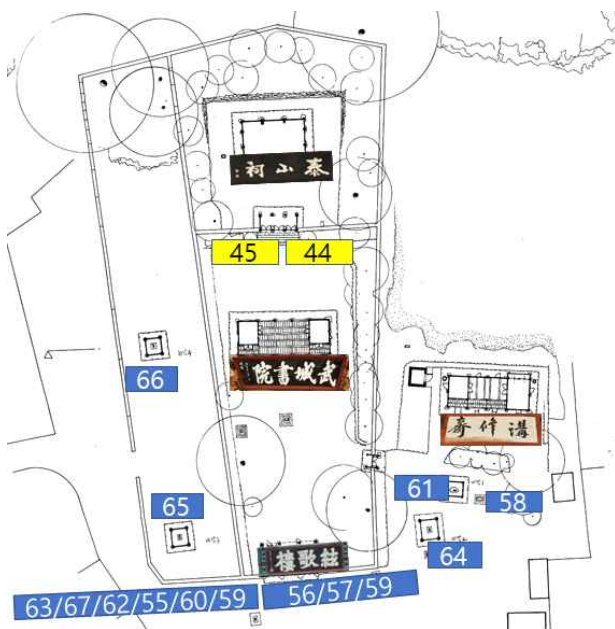
무성서원 강당



무성서원 강수재



무성서원 헌가루



무성서원 금석문

I. 무성서원 현판 목록

	분류	제 목	저자	연도	서기력
1	편액	武城書院		병자	1696
2	편액	泰山祠	黃煜		
3	편액	講修齋			
4	편액	絃歌樓	孫秉浩	갑진	1904
5	현판	武城書院記	金麟基	병오	1906
6	현판	武城書院記	金思謙	병진	1916
7	현판	武城書院記	金直述	임인	1902
8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秉述	병오	1906
9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尹秉	을미	1895
10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李在宇	정사	1917
11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宋持灝	갑인	1854
12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煥一	임신	1932
13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宋程淳	기묘	1879
14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光欽	무자	1888
15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丙欽	정미	1847
16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尹濟翼	임진	1892
17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金永朝	병술	1886
18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宋鍾壽	을해	1875
19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權直相	갑진	1904
20	현판	武城書院慕賢記	柳源模	계사	1953
21	현판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金稷欽	임오	1882
22	현판	武城書院院址復舊記	金煥豐	정축	1937
23	현판	武城書院椅盤重修記	金澤	정묘	1927
24	현판	武城書院墻垣重修記	金煥豐	무진	1928

	분류	제 목	저자	연도	서기력
25	현판	武城書院祭器改修記	金麟基	단기4300	1967
26	현판	武城書院賢宇重修記	閔申鎬	신축	1901
27	현판	賢宇重修及典祀所勅建記	金煥豐	경오	1930
28	현판	講堂重勅記	金玟		1828
29	현판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金麟基	을사	1965
30	현판	絃歌樓重修記	高元勳	병자	1936
31	현판	武城書院絃歌樓記	金奎弘	신묘	1891
32	현판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鄭寬永	계묘	1903
33	현판	武城書院絃歌樓勅建記	閔正植	신묘	1891
34	현판	武城書院院誌開刊記	奇亮衍	갑신	1884
35	현판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朴海彦		1834
36	현판	記文	宋興燮	정사	1977
37	현판	金榮得讚揚文		단기4327	1994
38	주련	揖讓進退杏壇遺教			
39	주련	月朔參拜享禮兩丁			
40	주련	春秋講磨經義四子			
41	주련	文藝時習詩書禮樂			
42	주련	德業日新孝悌忠和			
43	주련	勸規交恤藍田故約			
44	주련	士林首善			
45	주련	聖朝額恩			
46	주련	淵源追溯洙泗濂閩			
47	주련	依仁游藝德業日新			
48	주련	規模已宏心身家國			
49	주련	愼思篤行倫理自明			
50	주련	萬國罔知定			
51	주련	家家久泰平			
52	주련	承帝忘形處			
53	주련	彝華永弗明			
54	금석	武城書院廟庭碑	金東柱		

	분류	제 목	저자	연도	서기력
55	금석	武城書院廟庭碑創建 義捐芳名錄			
56	금석	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 記	金麟基	기유	1969
57	금석	武城書院重修紀念碑	金麟基	단기4301	1968
58	금석	丙午倡義紀蹟碑	金成淵	임신	1992
59	금석	士人金麟基不忘碑	金煥珏	기사	
60	금석	領相李公最應不忘碑			
61	금석	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金煥豐	정사	1917
62	금석	前議官李慶熙不忘碑	金煥豐	을축	1925
63	금석	前參奉朱燦馨紀功碑	李炳觀	경오	
64	금석	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金宗漢	정묘	
65	금석	通政大夫前秘書監丞 申瑢熙不忘碑	金煥豐		
66	금석	縣監徐侯灝淳不忘碑			
67	금석	縣監李侯定植不忘碑			

■ 현판 · 금석 규격

	분류	제 목	규격(가로×세로/높이×두께cm)	
			전체규격	바탕판/비신
1	편액	武城書院	102×60.5	91×46
2	편액	泰山祠	181×50	174×45
3	편액	講修齋	63.3×25.5	57.3×20.3
4	편액	絃歌樓	147×50	141×44
5	현판	武城書院記	79.5×30.5	71.5×22.5
6	현판	武城書院記	82×24	76×19
7	현판	武城書院記	89×25	
8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93×26.2	
9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120×30.5	
10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144×45	130×37
11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88×37	
12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103×38	93×28
13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83.8×31	
14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88.3×34.3	
15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91×34	
16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106.5×32.5	
17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89.8×32.6	
18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92.8×35	
19	현판	武城書院重修記	102×34	96×28
20	현판	武城書院慕賢記	84×33	75×27
21	현판	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96.5×33.5	
22	현판	武城書院院址復舊記	115×42	101×35
23	현판	武城書院椅盤重修記	104.9×34.5	98.9×31.5
24	현판	武城書院牆垣重修記	95×41	86×37.5
25	현판	武城書院祭器改修記	100×38.5	92×34.5
26	현판	武城書院賢宇重修記	99.5×33.5	
27	현판	賢宇重修及典祀所勅建記	104×39	94×34
28	현판	講堂重勅記	89.8×34.5	85.8×32.5

	분류	제 목	규격(가로×세로/높이×두께cm)	
			전체규격	바탕판/비신
29	현판	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85×36	78×30
30	현판	絃歌樓重修記	142×41	137×32.2
31	현판	武城書院絃歌樓記	122×31	
32	현판	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120×50.5	110×42
33	현판	武城書院絃歌樓勸建記	99×39.5	
34	현판	武城書院院誌開刊記	77.5×30.5	
35	현판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序	94.3×38.3	
36	현판	記文	89×38	
37	현판	金榮得讚揚文	86×41	78×33.5
38	주련	揖讓進退杏壇遺教	17×140.5	
39	주련	月朔參拜享禮南丁	17×140.5	
40	주련	春秋講磨經義四子	17×140.5	
41	주련	文藝時習詩書禮樂	17×140.5	
42	주련	德業日新孝悌忠和	17×140.5	
43	주련	勸規交恤藍田故約	17×140.5	
44	주련	士林首善	18×115	
45	주련	聖朝額恩	18×115	
46	주련	淵源追溯洙泗濂閩	17×141	
47	주련	依仁游藝德業日新	17×141	
48	주련	規模已宏心身家國	17×141	
49	주련	愼思篤行倫理自明	17×141	
50	주련	萬國罔知定	16×88	
51	주련	家家久泰平	16×88	
52	주련	承帝忘形處	16×88	
53	주련	彝華永弗明	16×88	
54	금석	武城書院廟庭碑	78×183×56	45×128×20
55	금석	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75×159×44	37×103×12.5
56	금석	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77×213×52	46×140×22

	분류	제 목	규격(가로×세로/높이×두께cm)	
			전체규격	바탕판/비신
57	금석	武城書院重修紀念碑	88×207×48	47.3×124×17.8
58	금석	丙午倡義紀蹟碑	146×331×75	98×182×36
59	금석	士人金麟基不忘碑	64×180×43.5	44×116.5×17
60	금석	領相李公最應不忘碑	69×155×39	39×120×20.5
61	금석	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80×147×45	46×120×11
62	금석	前議官李慶熙不忘碑	67×160×44	36×100×12.5
63	금석	前參奉朱燦馨紀功碑	64×181×44	40×121×18.5
64	금석	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81×190×52	46×124×18
65	금석	通政大夫前秘書監丞申瑬熙 不忘碑	60×142×50.3	45×116×18
66	금석	縣監徐侯灝淳不忘碑	58×158×53	30×130×16
67	금석	縣監李侯定植不忘碑	68×161×48	39×124×20

II. 무성서원 현판 번역

1. 무성서원(武城書院) _ 102×60.5(91×46)cm



2. 태산사(泰山祠) _ 石田 黃旭, 181×50(174×45)cm



3. 강수재(講修齋) _ 63.3×25.5(57.3×2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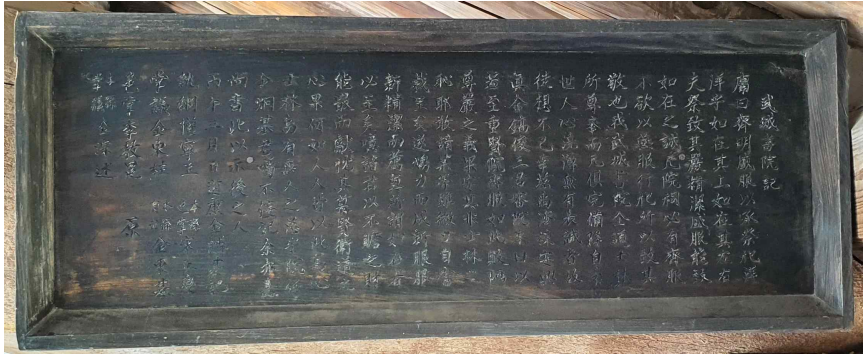


4. 현가루(絃歌樓) _ 147×50(141×44)cm



5.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_ 김인기(金麟基) 지음, 79.5×30.5(71.5×22.5)cm



《중용(中庸)》에 “재계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는, 양양하게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제사를 지낼 적에 그 엄숙함을 지극히 하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갖추어 입으면 신령이 앞에 계신 듯이 하는 정성을 지극히 할 수 있다. 모든 원사(院祠)에는 반드시 재복(齊服)이 있으니, 연복(燕服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 공경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무성서원은 온 도의 사림이 우러러 받드는 곳 이건만 갖추어 완비하는 것이 세상이 말세가 되고부터 인심(人心)이 각박하여 정성을 드러내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한갓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행히 우제동(禹濟棟), 안흥진(安興眞), 김호준(金鎬俊) 세 사람이 서원을 찾아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지극히 귀중한 서원의 재복이 이와 같이 해지고 누추하니 존엄의 의리상 어찌 사림(士林)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감히 청하건대 저희들이 비록 미력하나마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만들어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마침내 힘을 모아 새로운 재복을 만들었다. 새 재복을 입고 정결히 하여 제수를 올리니

이른바 좌우에 있어 반드시 이르는 듯하였다. 아, 세 사람이 넉넉하지 않은 재력으로도 공경스레 정성을 바칠 수 있었으니, 그 현인을 사모하고 도를 보위하는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사람들이 모두 이것으로 마음을 삼는다면 사람이 어찌 사람이 없을 걱정을 하겠는가. 원임(院任) 김형기(金炯基)군이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고, 나 또한 가상하게 여기기에 내가 이렇게 써서 후인들에게 보이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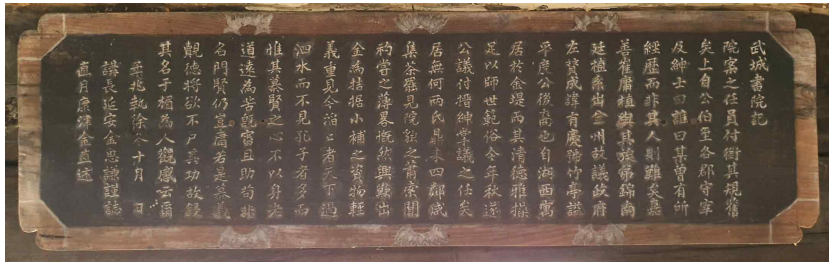
병오년 3월 일 도강(道康) 김인기(金麟基) 짓다.

집강(執綱)	권녕옥(權寧玉)
장의(掌議)	김동주(金東柱)
색장(色掌)	이교면(李敎冕)
본손(本孫) 장의	김종술(金淙述)
본손 색장	송정섭(宋正燮)
본손 유사	김동기(金東基)

끝[原]

6.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_ 김사겸(金思謙) 지음, 82×24(76×19)cm



원안(院案)¹에 기록된 임원들이 서원의 옛 규약을 적어주기를 부탁하였다.² 위로는 공백(公伯)에서부터 아래로 각 군(郡)의 수령 및 사대부들에 이르기까지 누가 좋겠다 또 누가 좋겠다 라고 하며 일찍이 거쳐 간 이들을 찾았으나 적당한 이가 없어서 어려웠다. 가선(嘉善) 최용식(崔庸植)과 그의 족제(族弟) 금남(錦南) 정식(廷植)은 계출(系出)로서 전주(全州)의 고(故) 의정부 좌찬성(左贊成) 휘(諱) 유경(有慶), 호(號) 죽정(竹亭), 시호(諡號) 평도공(平度公)의 후예이다. 호남(湖南)의 김제(金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산 뒤로부터 그 맑은 덕과 전아한 지조는 속세의 스승이자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올해 가을 공론을 좇아 진신장(摺紳掌議)의 소임을 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이 도착하자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차를 물리고 나서 서원의 쓸쓸한 모습을 보고 규약의 부실함을 듣고서는 개연히 탄식하였다. 돈을 내어 조금 보탬이 될 만한 자금을 그러 모았으니, 이는 물건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무겁게 여긴 것이다. 오늘날

1 서원에 참여하는 이들을 기록한 명단.

2 원문의 付衛이 《무성서원지》에는 付卿으로 기록. 卿과 衛은 같은 글자로 통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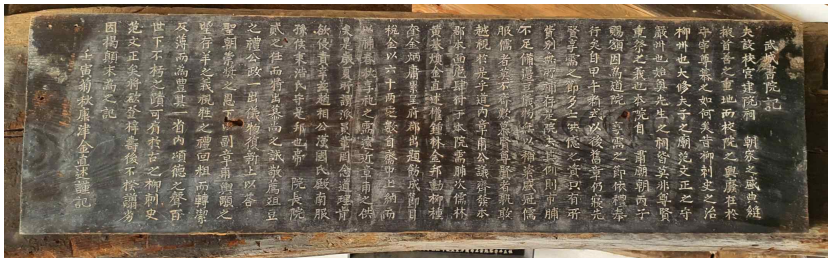
사수(泗水)를 지나더라도 공자(孔子)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오직 성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은 늙어가고 갈 길은 멀다는 사실을 괴로움으로 삼지 않았다. 이미 자세히 살피고 또한 도움을 주었으니, 만약 각 가문의 현인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처럼 의를 사모하고 덕을 바라보아 장차 그 공(功)을 주관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 이름들을 처마에 새겨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끔 하고자 한다.

유조집서(柔兆執徐, 1916년 병진년) 겨울 10월
강장(講長) 연안(延安) 김사겸(金思謙) 삼가 짓다.
직월(直月) 강진(康津) 김직술(金直述)³

3 원문은 直月康津金直述로 기록. 《무성서원지》에는 直月前校官康津金直述로 기록

7.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_ 김직술(金直述) 지음, 89×25cm



무릇 향교를 설치하고 원사(院祠)를 세우는 일은 조정의 성대한 의식이니 모범을 세울 만한 땅을 찾아야 하며, 향교와 서원의 흥폐(興廢)는 수령이 어떻게 존모(尊慕)하는가에 달려 있다.

옛날에 자사(刺史) 유종원(柳宗元)이 유주(柳州)를 다스릴 때 공자(孔子)의 사당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고, 문정공(文正公) 범종엄(范仲淹)이 엄주(嚴州)를 다스릴 때 비로소 엄광(嚴光) 선생의 사당에 제사를 드렸다. 이 일은 모두 현인을 존모하고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의리가 아님이 없었다.

본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숙종조 병자년(1696)에 사액받은 이후로 도를 갖춘 서원이 되어 제향(祭享)하는 절차를 예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 갑오년(1894)에 새로운 제도가 세워진⁴ 이후 선현들을 제향하는 옛 제도들도 폐지되었다. 많은 선비들이 물품들을 대었으나 단지 필요한 비용으로 소비되었을 뿐 보태거나 남길 수는 없었다.

이 서원에서 그 법식을 없앤다면 시장에서 사온 포육으로는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이나 제물을 놓기에도 부족하였으며, 제사에 올리는 곡식[粢盛]도 댈 수 없었으니 유자(儒者)라면 모두가 함께 안타까워하였다. 현인을 존모하는 일을 누가 감히 남의 일 보듯 하겠는가? 이에 도내의

4 갑오개혁을 일컫음.

유생들이 공론을 함께 내었으며, 본 군 본 면의 푸죽간에서도 본 서원에 필요한 제사용 고기를 내어 놓았다. 다음으로 유림 황기환(黃基煥), 김직술(金直述), 권종림(權鍾林), 김방훈(金邦勳), 유종규(柳種奎), 김병용(金炳庸)이 여러 차례 부군(府郡)에 글을 올려 제식(題飭)을 내고 절목(節目)을 만들도록 하였다. 세금 60냥을 정수(定數)로 삼아 재중(齋中)에서부터 상납하였고, 봄가을로 제사지낼 때의 제수는 원근 유생들이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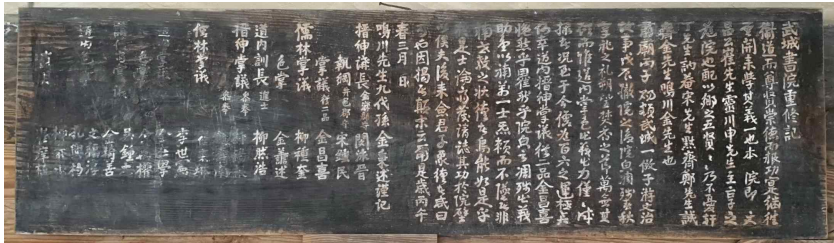
이 해 여름에 이른바 파견 관리(派員)들이 도리를 잊고 책임을 추궁하려 하였다. 다행히 이때 상공(相公) 조한국(趙漢國)이 남쪽 지방(전라도)을 다스렸고, 손병호(孫秉浩)가 이 고을의 수령을 맡고 있었다. 원장(院長)과 원이(院貳)의 임무를 겸임하며 특별히 존모하고 숭상하는 성심을 드러내었고 제사지내는 조두(俎豆)의 예를 공경하게 바쳤다. 공정한 정사가 한 가지로 나오고 의식에 소요되는 물품(儀物)이 다시 새로워졌다. 위로는 어진 조정에서 숭상하고 장려하는 은혜에 답하였고, 아래로는 유림들과 고을(興顛)의 바람에 부합하였다.

전대의 예법을 보존하고자 하는 존양지(存羊之義)가 희생을 바치는 제례에 비해서는 성글기는 하지만 외려 깨끗하고, 담박하지만 외려 풍성한 것이니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마음을 살피고 공덕을 기리는 소리가 백세 이후라도 켜어 없어지지 않는 사적이 될 터이니 가히 그 옛날 유종원과 범중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판각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변변찮은 내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고 일의 전말을 기록한다.

임인년(1902) 9월 강진(康津) 김직술(金直述)이 짓다.

8.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김병술(金秉述) 지음, 93×26.2cm



도(道)를 보호하고 어진 이를 높이는 것과 덕(德)을 높이고 공로에 보답하는 것은 진실로 옛 성현(聖賢)의 학문을 잇고 훗날의 후학들에게 길을 여는 것이니, 그 의리는 똑같다. 무성서원(武城書院)은 바로 문창공(文昌公) 최 선생(崔先生 최치원(崔致遠))과 영천(靈川) 신 선생(申先生 신잠(申潛))의 위패를 주벽(主壁)으로 모셔 제향하는 도(道)를 대표하는 서원이다. 고을의 어진 다섯 분을 배향하였으니, 다섯 분은 바로 불우헌(不憂軒) 정 선생(丁先生 정극인(丁克仁)), 놀암(訥菴) 송 선생(宋先生 송세림(宋世琳)), 묵재(默齋) 정 선생(鄭先生 정언중(鄭彦忠)),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 김약묵(金若默)), 명천(鳴川) 김 선생(金先生 김관(金灌))이다.

숙종조(肅宗朝) 병자년(1696, 숙종 22)에 ‘무성’이라고 사액하였으니, 자유(子游)가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교화시킨 고사(故事)⁵를 따른 것이다.

무진년(1868, 고종 5)에 서원 철폐령이 내려진 후에는 서원의 모습이 쇠락하여 봄가을에 올리는 제사의 예법과 초하루, 보름에 분향(焚香)하

5 자유(子游)가……고사(故事) : 자유(子游)가 무성(武城) 고을의 읍재(邑宰)로 있으면서 현가(絃歌)로 백성을 교화하는 데 힘썼다. 현가는 거문고를 타며 시가(詩歌)를 읊는 것으로,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교화함을 뜻한다. 《論語 陽貨》

는 절차가 전혀 행해지지 않고 오직 도내의 색장(色掌)이 의연금과 공력을 내어 겨우겨우 모양새만 갖추고 있었다. 더구나 오늘날에 이르러 유도(儒道)의 액운(厄運)⁶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 있어서라.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도내의 진신 장의(摺紳掌議) 종2품(從二品) 김창희(金昌熙)가 쇠락한 서원의 모습에 슬퍼하고 두려워하여 의연금을 내어 만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려고 했다. 이에 선비들의 기상이 이를 힘입어 실추되지 않았으니, 참으로 덕(德)을 드러내 세교(世敎)에 보탬이 되는 분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이에 선비들의 의론이 일제히 일어나 그 공로를 서원 벽에 기록하여 후세의 여러 군자를 기다리기를 청하니, 덕을 본받는 자들이 모두 “옳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인하여 전말을 계시(揭示)하노라.

병오년(1906, 고종 43) 봄 3월 모일(某日) 명천선생(鳴川先生) 9대손 김병술(金秉述)은 삼가 짓다.

진신 강장(摺紳講長)	금구군수(金溝郡守)	민영진(閔泳晉)
집강(執綱)	정읍군수(井邑郡守)	송종민(宋鍾民)
장의(掌議)	종이품(從二品)	김창희(金昌熙)
유림 장의(儒林掌議)		유종규(柳種奎)
색장(色掌)		김선술(金善述)
도내 훈장(道內訓長)	진사(進士)	유연호(柳然浩)
진신 장의(摺紳掌議)	참봉(參奉)	유석근(柳錫根)
	참봉	□□남(□□南)
유림 장의(儒林掌議)		최병□(崔秉□)
		이세헌(李世憲)

6 액운(厄運) : 원문의 ‘백육지운(百六之運)’을 해석한 말로, ‘백육’은 1백 6세(歲)마다 도래한다고 하는 기막힌 불운(不運)의 시대를 말한다. 4천 5백 년인 1원(元) 중에 다섯 번의 양액(陽厄)과 네 번의 음액(陰厄)이 찾아오는데, 양액이 1백 6년마다 있게 되므로 백육회(百六會)라 한다. 《漢書 律歷志上》

도내 장의(道內掌議)

색장

강수재 장의(講修齋掌議)

도내 색장(道內色掌)

직월(直月)

□□학(□□學)

김□권(金□權)

오종대(吳鍾大)

김기선(金琦善)

문복순(文福淳)

공흥표(孔興杓)

유□□(柳□□)

최상식(崔庠植)

9.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윤병(尹秉) 지음, 120×30.5cm



대현(大賢)이 작은 고을을 맡았다고 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내 배운 바를 다하여 일을 한 것은 바로 자유(子游)가 현가(弦歌)로써 부자(夫子)께서 빙그레 미소 짓게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문창(文昌) 최치원(崔致遠)과 영천(靈川) 신잠(申潛) 두 선생이 계신다. 선생은 모두 태산현(泰山縣)의 수령을 맡았고, 현을 무성(武城)이라 이름 지었으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그 후에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놀암(訥庵) 송세림(宋世淋), 묵재(默齋) 정언충(鄭彦忠), 성재(誠齋) 김약묵(金若默), 명천(鳴川) 김관(金灌)과 같은 분들을 사류(士類)가 향현(鄉縣)으로 추대하여 이 서원에 배향하였으니, 백세가 지난 뒤에도 흥기하여 보고 감동하는 효험을 볼 수 있다. 서원이 오래되어 훼손되자 여러 유생들이 재물을 모아 중수하여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내가 고부 수령으로 부임한 다음 해에 원임(院任)에 침묵되었는데, 김영로(金永璐)와 김방훈(金邦勳) 두 선비가 와서 그 사실을 기록해 줄 것을 청하였다. 사실에 대한 내용은 전인(前人)들의 기록에 있으니 나는 문장을 잘하지 못하기에 감히 덧붙이지 않겠다. 그렇지만 내가 최문창 선생에게는 더욱 감회가 있다. 대개 선비가 도를 행하는 것은 명(命)에 달려 있다.

선생은 기질이 호탕하고 출중함을 타고나 문학이 일찍 성취되었으며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당나라의 진사가 되어 장차 큰일을 이룰 듯하였건만, 의종(懿宗)과 희종(僖宗)의 쇠란한 시대를 만나 고변(高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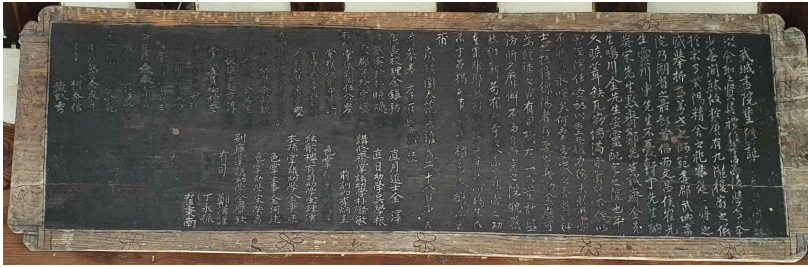
이 어둡고 어리석자 그 뜻을 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개연히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신라 또한 말세였다. 회포를 품은 채 방황하다가 마침내 가야(伽倻) 사이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선생이 성대한 시대를 만나 온 축된 포부를 펼쳐 치군택민(致君澤民)의 공을 이룰 수 있었다면 헤아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계원필경(桂苑筆耕)》이 어찌 다만 문장에 그쳤겠으며, 무성(武城)의 소 잡는 칼로 어찌 한 현(縣)만 다스렸겠는가. 원하던대 훗날의 군자가 공의 행적을 슬퍼하고 공의 도를 사모하여 계속해서 수리하여 제사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다행이리라.

을미년(1895 고종 32) 계추(季秋) 상한(上澣)에 고부 군수(古阜郡守) 윤병(尹秉)이 삼가 짓다.

원장(院長)	순찰사(巡察使)	이도재(李道宰)
원이(院貳)	현감(縣監)	이희성(朴義成)
강장(講長)	목사(牧使)	민종렬(閔種烈)
진신장의(摺紳掌議)	군수(郡守)	윤병(尹秉)
본읍장의(本邑掌議)	유학	김영로(金永瑬)
색장(色掌)	유학	김방훈(金邦勳)
		이희림(李喜林)
도내장의(道內掌議)	유학	정해봉(鄭海鵬)
색장	진사	김용희(金龍熙)
강수재(講修齋) 장의	유학	변길용(邊吉容)
색장	유학	이근석(李根碩)
도내 장의	유학	박봉래(朴鳳來)
색장		
유림 유사	유학	황기환(黃基煥)
		권종림(權鍾林)
본손(本孫) 유사	유학	김광흠(金光欽)
		김경술(金慶述)

10.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이재우(李在宇) 지음, 144×45(130×37)cm



성현(聖賢)에게 제사 지내는 예법이 오래되어 후학들이 높이고 떠받들
에 조금도 흠이 없었다. 그러므로 당(唐)나라에 구룡현(九隴縣)에 복묘
(複廟)하는 의식이 있었고,⁷ 송(宋)나라에 자양정사(紫陽精舍)에서 지내
는 제사가 있었으니, 다만 한때의 성대한 일이 아니라 만세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 순창군의 무성서원(武城書院)은 바로 호성(湖省 호남)에 제
일 먼저 세워진 곳으로, 문창후(文昌侯) 최 선생(崔先生 최치원(崔致
遠))과 영천(靈川) 신 선생(申先生 신잠(申潛)), 불우헌(不憂軒) 정 선생
(丁先生 정극인(丁克仁)), 눌암(訥庵) 송 선생(宋先生 송세림(宋世琳)),
묵재(默齋) 정 선생(鄭先生 정언충(鄭彦忠)),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
생 김약묵(金若默)), 명천(鳴川) 김 선생(金先生 김관(金灌))의 위패를
배향한 서원이다.

오랜 세월에도 수리하지 못해 기와가 부서지고 담장이 무너져서 바라
보는 눈길 가득히 쓸쓸해 하였다. 변변치 못한 내가 일찍이 서원의 직
임을 맡았기에 중수(重修)하려고 도모했지만, 힘이 실날같아 이루지 못

7 복묘(複廟)는 지붕을 이중으로 설계한 사당을 말하는데, 정현(鄭玄)은 ‘중옥(重屋)’이
라고 하였다. 《禮記 明堂位》 여기에서는 당나라 때 팽주(彭州) 구룡현(九隴縣) 공자묘
(孔子廟)를 가리킨다. 당나라 왕발(王勃)이 〈팽주구룡현공자묘당비(彭州九隴縣孔子廟
堂碑)〉를 지었다.

하여 자나 깨나 길이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올해 봄에 도내의 선비 중 한 가닥의 양기(陽氣, 儒道)을 부지한 자가 있어 의연금을 내어 거의 수리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고, 유사(有司) 권재일(權在一) 씨가 공역을 헤아리고 감독하여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힘쓴 결과 오랜 시일을 들이지 않고 완성되어 서원의 모습이 환히 새로워졌으니, 진실로 비상한 사람이 있다면 또한 비상한 공로가 있으니, 과연 잘못된 일이겠는가? 그렇다면 장차 그 공로를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니, 그 성명(姓名)을 빗돌에 새기고 그 사실을 문楣(門楣)에 게시하여 사람들에게 보고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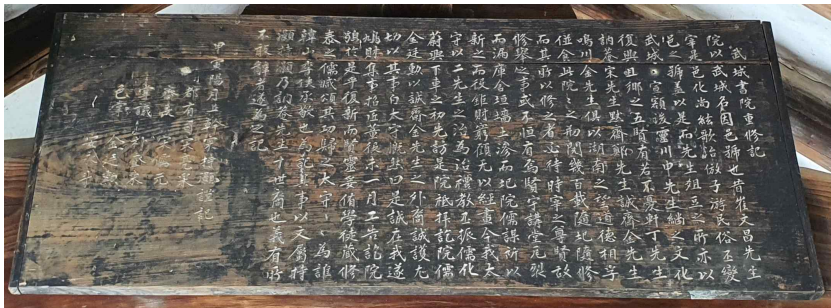
정사년(1917년) 여름 28일 경인일(庚寅日)에 전 참봉(前參奉) 청안(淸安) 이재우(李在宇)는 삼가 짓다.

원장(院長) 교리(校理)		김진호(金鎭祐)
원이(院貳) 찰방(察訪)		박만환(朴晩煥)
강장(講長) 군수(郡守)		서택환(徐宅煥)
진신 장의(摺紳掌議)	부경(副卿)	임공기(任公慶)
장의 좌랑(佐郎)		신□□(申□□)
장의 참봉(參奉)		서상□(徐相□)
유사(有司)	유학(幼學)	노□섭(盧□燮)
□□□□□□□□		김□□(金□□)
□장(□長)	유학	김창흠(金彰欽)
훈장(訓長)		김기술(金箕述)
훈장	진사(進士)	조방순(趙方淳)
장의	직원(直員)	유종규(柳種奎)
장의	□□(□□)	□방□(□方□)
색장(色掌)	□□(□□)	□□□(□□□)
색장	□□(□□)	□평삼(□平三)
도내 직월(道內直月)	참봉	김두희(金斗熙)
직월		최병제(崔炳齊)
□□장의(□□掌議)		권□룡(權□龍)

장의 교관(掌議敎官)		김영환(金永丸)
색장		권태신(權泰信)
		황치수(黃致秀)
직월	진사	김택(金澤)
직일(直日)	유학	오학근(吳學根)
강수재 장의(講修齋掌議)	유학	박찬민(朴燦敏)
	전훈랑(前訓郎)	이병규(李炳圭)
색장	유학(幼學)	□□□(□□□)
현가루 유사(絃歌樓有司)	유학	송종한(宋鍾漢)
본손 장의(本孫掌議)	유학	김병술(金秉述)
색장	주사(主事)	김하술(金河述)
색장	유학	송영창(宋榮昌)
별고 장의(別庫掌議)	유학	김응흠(金膺欽)
유사		정한근(鄭漢謹)
		정영진(丁永振)
		최병남(崔秉南)

11.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송지호(宋持灝) 지음, 88×37cm



서원을 무성(武城)으로 이름 지은 것은 고을의 이름 때문이다. 옛날 최 문창(치원) 선생이 이 고을에 계실 때에 교화에 현가(絃歌)의 다스림을 숭상하고, 자유(子游)를 본받으니 풍속이 바뀌었다. 고을의 이름도 그 래서 무성이라 하였고, 또한 선생의 제사 모시는 곳도 ‘무성(武城)’으로 사액(賜額)을 받았다. 뒤에 영천(靈川) 신(申) 선생⁸이 이를 계승하니 문화가 부흥하였다. 또 고을의 오현(五賢)인 불우현(不憂軒) 정(丁) 선생⁹과 놀암(訥庵) 송(宋) 선생¹⁰과 묵재(默齋) 정(鄭) 선생¹¹과 성재(誠

8 영천(靈川) 신(申) 선생 : 신잠(申潛, 1491~1554).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원량(元亮), 호는 영천자(靈川子; 靈泉子) · 아차산인(峨嵋山人),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시 · 서 · 화에 능하였고, 태인협감을 지냈다. 《韓國人名大事典》

9 불우현 정 선생 : 정극인(丁克仁, 1401-1481). 자는 가택(可宅). 호는 불우현(不憂軒). 다현(荅軒). 다각(荅角) 본관은 영광(靈光). 단종이 양위를 당하자 정언(正言)에서 사직하고 태인(泰仁; 武城)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한국 문학사상 최초의 가사작품인 상춘곡(賞春曲)을 지음. 예조판서에 주증.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제향. 《韓國人名大事典》

10 놀암 송 선생 : 송세림(宋世琳, 1479-?). 자는 헌중(獻仲). 호는 놀암(訥庵) · 취은(醉隱) · 고송(孤松). 본관은 여산(礪山). 24세에 알성문과에 장원. 능성현령으로 재직

齋) 김(金) 선생¹²과 명천(鳴川) 김(金) 선생¹³ 같은 분들은 모두 호남에서 명망이 있는 분들로 도덕이 모두 뛰어나 서원에서 제사를 모시었다. 서원이 세워진 후 몇백 년이 지나면서 무너지면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하게 된 까닭은 반드시 어진 이를 존경하는 수령의 마음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리하는 일은 언제나 항상 바로 하지 못했다. 서원의 강당은 기와가 부서져 비가 새고, 고사(庫舍)와 담장의 흙이 흘러내리면서 무너져, 서원의 선비들이 새롭게 할 방법을 도모했으나, 수리하는 일은 크고 재물이 곤궁하여 생각컨대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태수께서 두 선생의 다스림을 따라 다스리니, 예교(禮敎)가 크게 일어나고 유학의 교화가 무성하게 일어났다. 고을에 부임한 초에 먼저 이 서원을 방문하고 공경히 배알을 마치자, 서원의 선비 김정훈(金廷勳)이 성재 김 선생의 외손인 까닭에 성심으로 서원 보호하길 더욱 간절 원하여 그 일을 태수께 아뢰니, 태수께서 개연하게 말씀하길, “이 일은 참으로 나의 일이다.” 하였다. 마침내 재물을 모으

중 이도쇄신(吏道刷新)과 지방 행정의 개혁을 상소하여 시행케 했다. 교리(校理)로 사직하였고 문명(文名)을 떨쳤다.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제향. 《韓國人名大事典》

11 목재 정 선생 : 정언충(鄭彦忠, 1479-1557). 자는 양구(良久). 본관은 경주. 진사 합격후에는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 지극한 효성으로 들어났고, 후진을 양성하여 선량(善良)을 배출했다.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제향. 《武城書院院誌. 七賢事蹟》

12 성재 김 선생 : 김약묵(金若默, 1500-1558). 자는 태용(太容). 호는 성재(誠齋). 본관은 강진. 한산(韓山)군수가 되어 청렴과 삼감 그리고 선정으로 표창을 받았다. 집의 목사 내자시정 등을 지냈다.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제향. 《韓國人名大事典》

13 명천 김 선생 : 김관(金灌, 1575-1635). 자는 옥이(沃而). 호는 명천(鳴川). 본관은 도강(道康). 만력을묘(乙卯:1615)에 진사에 합격하였고, 정묘호란에 사계 김장생의 창의(倡義)를 따라 성의를 다하여 군량미를 모았다. 후에 송호암 치중 김세마 감 등 제현들과 송정십현회(松亭十賢會)를 만들었다. 태인(泰仁)의 무성서원(武城書院)에 제향. 《武城書院院誌. 七賢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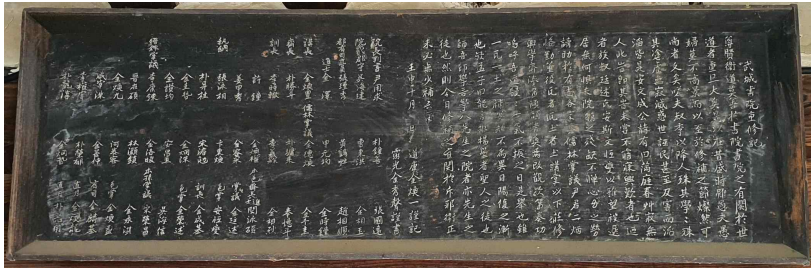
고 일을 모아서, 장인을 불러 일을 맡도록 하니,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공사를 끝냈다. 이에 서원의 면모가 다시 새로워져 성현의 훈령을 편안하게 하고, 학도들은 학문에 정진하니, 태인의 선비들이 모두 기리면서 공을 태수에게 돌렸다. 태수는 누구인가? 한산 이승경(李承敬)이다. 그 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지호(持灝)에게 글을 부탁하거늘, 지호는 곧 놀암 송 선생의 10세 후예이다. 의리에 감히 사양할 수가 없어 마침내 기록하였다.

갑인(1854) 10월 상순에 송지호(宋持灝)는 삼가 짓다.

도유사(都有司)	송양채(宋亮采)
재장(齋長)	송유원(宋儒元)
장의(掌議)	박규동(朴奎東)
색장(色掌)	김정훈(金廷勳)
	안영두(安永斗)

12.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김환일(金煥一) 지음, 103×38(93×28)cm



어진 이를 공경하고 도덕을 지키는 데 서원(書院)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서원이 세상의 올바른 도리에 관련되어 있음은 소중하고 또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옛날 태평 시대엔 비록 어리석은 부부(夫婦)라도 인덕(仁德)이 있는 자를 존경하지 않음¹⁴이 없어서, 수리하고 보완할 때에 이르기까지 빛나게 숭상할 만한 것이 있었다.

아! 말세(末世)가 되자, 사람은 학문을 닦지 아니하고, 학문은 그 길을 달리했다. 허무적멸(虛無寂滅)하고 흑세무민하고, 심지어는 해악을 끼치는 일이 건잡을 수 없으니 모두 이 같았다. 문성공 안향(安珦)의 시(詩)에 말하길, "뜰에 봄풀만 가득하고 사람이 없다."¹⁵라고 했으니, 이때가 곧 그때와 같아 일찍이 자나 깨나 탄식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집안 아저씨 되는 정술(廷述)과 사문(斯文) 안향섭(安恒燮)이 청아한 명망으로 피선(被選)되었는데, 얼마 뒤에 서원의 면모가 온전하지

14 인덕(仁德)~존경하지 않음 : '고경(高景)'을 말한다. 고경은 《詩經, 小雅, 車牽》의 「高山仰止 景行行止」에서 나온 말이다.

15 고려의 명신인 안향(安珦, 1243-1306)의 시(詩) 유감(有感)의 마지막 구절이다. "香燈處處皆祈佛 향등이 켜진 곳곳마다 부처에 기도하고 簾簾家家盡祀神 통소와 피리 부는 집집마다 모두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獨有數間未子廟 오직 두어 칸 부자(공자)의 사당엔 滿庭春草寂無人 뜰에 봄풀만 가득하고 사람이 없다."

못하고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심신의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지역 유지와 각 가문, 유림에 도움을 청하였다. 장의(掌議) 윤이병(尹二炳)이 부지런히 공사를 감독하여, 기와를 갈 것은 기와를 갈고, 흙 일 할 것은 흙 일을 하여 강당(講堂) 이하 학문을 닦고 열심히 배우는 건물¹⁶의 비 새고 기울고 넘어진 것이 환하게 고쳐 차례로 완공하였다. 오호라! 우리의 유도(儒道)가 점점 더 사기(士氣)가 진작(振作)되지 못하는 날에, 이 일을 한 것이 비록 한 개 기와와 한 줌 흙으로 보수(補修)한 것이지만, 후일 도학이 다시 회복되어[陽復] 점차 나아갈 계기가 될지 어찌 알겠는가!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능히 말로 양자(楊子)와 묵자(墨子)의 주장을 막는 것은 성인(聖人)의 무리가 하는 일이다."¹⁷라고 하셨으니, 우리 스승을 배우고, 우리의 학문을 닦아서 선생의 서원에 들어오는 자는 또한 선생의 무리이다. 그런 즉 금일 수리하고 보수한 일이 사특함을 물리치고 정도(正道)를 지킴에 관련되는 것이니 반드시 적다고 말하지는 못하리라.

임신(1932) 10월 일

도강(道康) 김환일(金煥一)은 삼가 짓고,

영광(靈光) 심수성(金秀聲)은 삼고 쓰다.

원장(院長)	판서(判書)	윤용구(尹用求)
원이(院貳)	군수(郡守)	오해건(吳海建)
도유사(都宥司)	직원(直員)	장근수(張瑾秀)
	진사(進士)	김택(金澤)
강장(講長)		김환풍(金煥豐)
재장(齋長)		박승두(朴勝斗)
훈장(訓長)		이시철(李時轍)

16 강수재(講修齋)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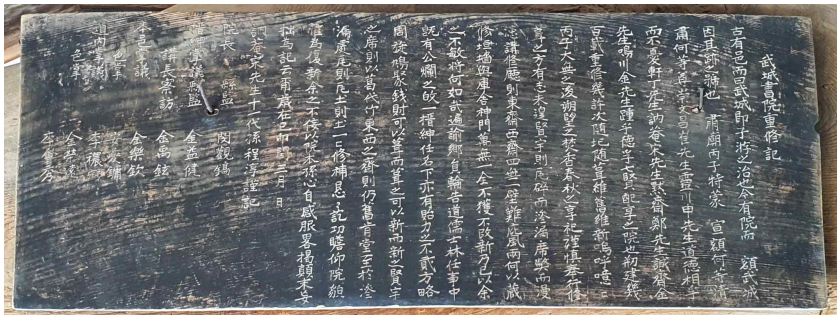
17 “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也”는 《맹자(詩經) 〈등문공 하〉에 나오는 말로 양자와 묵자의 도(道)가 그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음을 말한다.

	허 종(許 鐘)
	강갑수(姜甲秀)
집강(執綱)	장영상(張泳相)
	박승주(朴昇柱)
	김규철(金圭哲)
	김찬균(金讚均)
진신장의(縉紳掌議)	이강연(李康鍊)
	진재석(晉在碩)
	김환구(金煥九)
	함재수(咸宰洙)
	이권재(李權宰)
	박용순(朴龍淳)
	박종선(朴鍾善)
	조병흥(曹秉洪)
	황학성(黃鶴性)
	신원균(申元均)
유림장의(儒林掌議)	김덕환(金德煥)
	박용래(朴壩來)
	이희▣(李羲▣)
	김환권(金煥權)
	김용▣(金容▣)
	변동환(卞東煥)
	송준면(宋濬勉)
	김형수(金炯洙)
	안창정(安昌正)
	김낙준(金洛峻)
	임호진(林灝鎭)
	하태용(河泰容)
	김선중(金善仲)
	박영욱(朴榮郁)
	김형철(金炯哲)

	장국원(張國遠)
	김상옥(金相玉)
	조상순(趙相順)
	김시종(金時鍾)
	김천규(金千圭)
	봉억두(奉憶斗)
	김상렬(金相烈)
본읍재장(本邑齋長) 진사	민영석(閔泳碩)
장의(掌議)	김정술(金廷述)
색장(色掌)	안항섭(安恒燮)
훈장(訓長)	김성기(金成基)
색장(色掌)	김영술(金榮述)
	오해신(吳海信)
본손장의(本孫掌議)	송영창(宋榮昌)
	김영기(金永淇)
색장(色掌)	김환익(金煥益)
유사(有司)	김인기(金麟基)
직월(直月)	김환용(金煥龍)
직일(直日)	박광용(朴光用)

13.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송정순(宋程淳) 지음, 83.8×31cm



옛날에 한 고을을 ‘무성(武城)’이라 불렀으니, 곧 공자 제자 자유(子游)가 다스리던 곳이었다. 지금 한 서원의 편액을 ‘무성’이라 하니 그 자취의 명칭을 딴 것이다. 숙종조의 병자년(1696)에 특별히 사액(賜額)을 받았으니 얼마나 맑고 엄숙하며, 얼마나 존송한가! 문창후 최선생, 영천 신선생은 도덕이 모두 뛰어났고, 불우현 정선생, 놀암 송선생, 목재 정선생, 성재 김선생, 명천 김선생께서 뒤를 이어 도덕이 남달랐으니, 7현을 배향한 서원이다.

창건한 지 몇백 년이 흐르면서 중수(重修)하기를 몇 차례 하여, 무너지면 수리하여 오래되어도 새롭게 고쳤다. 아! 병자년 큰 흉년 이후로 초하루와 보름의 분향과 춘추 제사를 삼가 봉행하였으나, 수리할 방도(方道)에 뜻은 있으나 겨를이 없었다. 서원은 즉 기와가 부서져 비가 새며 자리가 썩어 어지럽게 널려있고, 강수청(講修廳)은 동재 서재의 사방에 벽이 하나도 없어 바람과 비를 막기 어려웠으니,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담장과 창고(庫舍)와 신문은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었다. 새롭게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내가 불민(不敏)하니 장차 어찌해야 할 것인가? 고을 사람들에게 두루 밝히고, 도내 유림에 두루 알렸다. 일을 맡은 가운데 이미 공론이 분분하였으나 진신(縉紳)을 하나로 모으니, 명분 있게 책임을 지고 또한 노력하는 방책은 둘이 아니

었다. 주선하여 돈과 재물을 모아,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새로 지을 것은 새로 만들었다. 서원에 깔 자리는 곧 삼베로 대나무를 대신하고, 동·서 재실은 곧 옛 것을 이어 새롭게[肯堂]¹⁸하여, 비가 새는 곳에는 기와가 필요한 곳에 기와를 이고, 흠을 발라야 할 곳은 흠을 발라, 일일이 보수하여 정성스럽게 일을 마쳤다. 서원의 면모를 우러러보니, 오직 다시 새로웠겠다.

내가 재주가 없지만 서원의 본손(本孫)으로 마음이 저절로 감복되어 대략 전말을 들어 나의 졸렬함을 잊고 기록하였다.

기묘(1879) 윤3월 일 놀암 송 선생 11대손 정순(程淳)은 삼가 짓다.

원장(院長)	현감(縣監)	민관호(閔觀鎬)
진신장의(摺紳掌議)	현감(縣監)	김익건(金益健)
강장(講長)	찰방(察訪)	김우현(金禹鉉)
본읍장의(本邑掌議)		김낙흠(金樂欽)
	색장(色掌)	안기용(安夔鏞)
도내장의(道內掌議)		이농필(李穰弼)
	색장(色掌)	김영원(金榮遠)
		이회수(李會秀)

18 긍당(肯堂) : 《書經》 〈大誥〉 “만약 아버지가 집을 지으려고 이미 땅을 다지는 법을 정해 두었거늘, 그 아들이 당(토대)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고, 하물며 가옥을 지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내게 좋은 후계자가 있어서 나의 계획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의 긍구궁당(肯構肯堂)의 의미이다.

14.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김광흠(金光欽) 지음, 88.3×34.3cm



옛날 공자(孔子)께서 무성(武城)¹⁹에 가시어 현가(絃歌)²⁰의 소리를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길,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칼을 사용하리오!"²¹ 하셨으니, 대개 현가(絃歌)와 예악(禮樂)은 교화(教化)의 기구(器具)이다. 공자가 기뻐한 것은 자유(子游)가 예악(禮樂)의 정치를 행했기 때문에 웃으신 것이다. 그 후 천년이 흘러 우리나라²²에 문창공(文昌公) 최선생(최치원)이 자유(子游)가 무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셨다. 또 그 뒤에 영천(靈川) 신선생(신잠)이 최선생의 다스림으로

19 무성(武城) : 노나라 고을의 이름으로 자유(子游)가 이 고을을 다스렸다.

20 현가(絃歌) : 거문고 비파 등의 현악기(絃樂器)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21 공자께서~사용하리오! : 《論語, 陽貨》 "공자(孔子)께서 무성(武城)에 가셔서 현악기를 타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길,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느냐!'라고 하시니, 제자인 자유(子游)가 대답하길, '옛날에 제가 부자께 들으니, '군자가 도(道)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道)를 배우면 부리기가 쉽다.'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길, '제자들이 언(僂: 자유의 이름)의 말이 옳다. 내가 앞에 한 말은 농담이다.'라 한 내용이다.

22 원문에는 노나라(魯邦)로 되어 있다.

다스렸으니, 이 때문에 서원이 세워졌고 사액(賜額)을 받아, ‘무성’이라 하였다. 고을의 다섯 선생의 문헌이 서로 전하고 도덕이 빛났다. 모두 혼령을 편히 모시니, 예의(禮義)가 발달하고 문물(文物)을 고루 잘 갖추어 베풀아치가 흠모하는 곳이 되고, 선비들이 숭배하여 받드는 곳이 되었다. 서원 면모가 바뀐 것은 무너지면 수리하여 서로 대를 이어 서로 살펴 온지 수 백 년이 되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본 고을의 김완순(金琬淳)이 본읍(本色) 색장²³으로 성실하고 돈독하게 어진 이를 사모하여 스스로 재물 모으기를 원하여 서원의 헌판을 장인(匠人)을 불러 수리하니, 하루도 안 되어 끝냈다. 이 해 무자년은 강당이 불탄 후 다시 창건한 지 회갑이 되는 해이다. 백일장(白日場)에서 선비를 시험하고, 회갑되는 해에 다시 중수하고 또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니, 서원의 면모도 다시 새로워지고, 글을 숭상하는 풍습도 흡족해 진 것이니, 지금 오늘날의 의로움을 도모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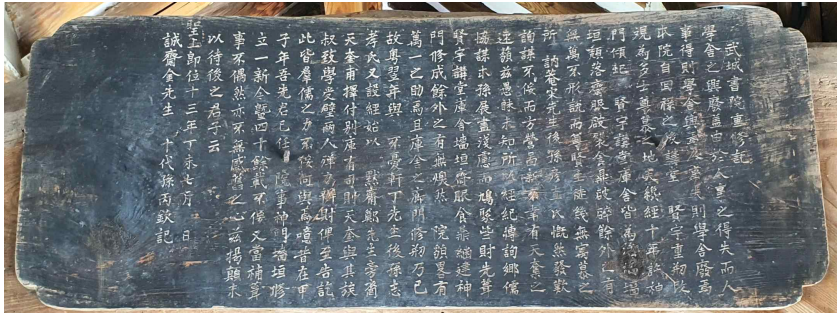
내가 본손(本孫)으로 외람되이 도유사를 맡아서 자연스럽게 감흥이 일어나, 대략 그 전말을 기록하여 잊지 말아야 함을 알리고, 후세의 군자를 기다린다. 무자년 9월 9일 성재 김선생 10대손 광흠(光欽)이 삼가 짓다.

원장 현감(縣監)	신 료(申 柳)
유림강장(儒林講長)	김영조(金永朝)
장의(掌議)	김영하(金永夏)
색장(色掌)	김완순(金琬淳)
도내장의(道內掌議)	김현모(金顯模)
강수재장의(講修齋掌議)	이회수(李會粹)
유사(有司)	권직규(權直圭)
	우재호(禹在鎬)

23 색장(色掌) : 성균관이나 향교 사학(私學) 등에 있던 유생(儒生) 소임(所任)의 하나.

15.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김병흠(金丙欽) 지음, 91×34cm



학교[學舍]가 흥하고 폐해지는 것은 대개 인사의 득실 때문이니, 인사가 잘 되면 학교가 일어나고, 인사가 잘못되면 학교가 무너진다. 본원이 화재를 당한 이후 강당과 현우를 중창하여 고치자 많은 선비들이 존송하고 사모하는 곳이 되었다. 겨우 십여 년이 지났을 때 신문(神門)이 기울어져 무너지고, 현우(賢宇)와 강당과 창고(庫舍)가 모두 비가 새고, 담장은 무너져 퇴락하고, 재복(齋服)은 찢어지고, 밥솥은 부서졌으며, 나머지 것의 유무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게 되어, 어진 이를 존송하는 학생이 거의 사모할 곳이 없게 되었다. 놀암 송선생의 후손 언직(彦直)이 개연하게 탄식하여, 나에게 해야 할 바를 물어서 널리 새롭게 할 방도를 계획하였는데, 불행히도 그 사람이 빨리 사망해 버렸다. 보잘 것 없고 우매한 나는 계획하여 처리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여, 널리 고을 선비들에 묻고 본손과 도모할 바를 협의하여, 모든 작은 생각이라도 다하여 재물을 모았다. 먼저 현우, 강당, 창고, 담장, 재복, 밥솥을 수선하고, 이어 신문(神門)을 세우고, 기타 없는 것들을 갖추고 나니, 서원의 면모를 환하게 하는 데 아주 작은 조력을 한 것 같다. 또 창고의 행랑문을 고쳐 세우기를 마쳤다. 그리하여 다음 해 불우현 정선생 후손 지효(志孝)씨와 또 윤영을 시작하였다. 목재 정선생의 방손 천규(天奎)를 별고유사(別庫有司)에 뽑으니, 즉 천규는 친척 아저씨 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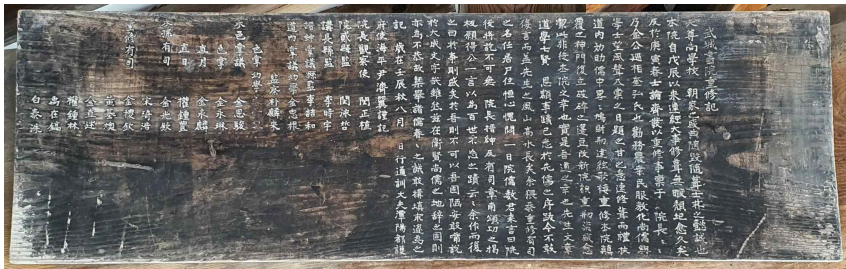
(政學)과 수벽(受壁) 두 사람과 힘을 다해 재물을 갖추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모두 여러 선비들의 힘이요. 재주 없는 내가 어찌 거기에 참여하겠는가!

아! 지난 갑자년에 나의 선군께서 이미 서원의 일을 맡으시면서, 신문과 담장을 수리하여 새롭게 세운지 이제 사십여 년이 되었다. 보잘 것 없는 내가 또 보수하는 일을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니, 또한 옛날을 느끼는 마음이 없지 않다. 이에 일의 전말을 적어 걸어서 후일의 군자를 기다린다.

금상(헌종)의 즉위 13년 정미(1847) 7월 성재 김 선생 10대손 병흠(丙欽)이 짓다.

16.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 윤제익(尹濟翼) 지음, 106.5×32.5cm



학교를 존송하는 것은 조정의 성대한 전례이고, 훼손되는 대로 수리하는 것은 사람의 아름다운 정성이다. 본원은 무진년 이후로 큰일을 연달아 거치면서 수리할 겨를이 없어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 경인년 봄에 이르러 사람의 여론이 일제히 일어나 중수하자는 사안을 원장에게 여쭙었는데, 원장은 바로 순상(巡相) 김규홍(金奎弘)씨로 농상(農桑)에 힘쓰도록 권하여 백성들이 교화에 따르고, 유학을 숭상하고 학교를 흥기시켜 선비들이 풍성(風聲)을 기대하였다. 들어가 여쭙 날에 신속히 수리하도록 감결로 처분하여 도내에 부조하도록 선비들을 권유하여 대략 재물을 모아 현가루(絃歌樓)를 창건하고 본원을 중수하였다. 전복되었던 신문(神門)을 다시 세우고 망가진 제기(祭器)를 새롭게 하여 서원의 면모가 거듭 새로워지고 제수(祭需)가 더욱 정결해졌으니, 이는 한갓 본원만의 다행이 아니라 실로 우리 도의 다행인 것이다. 선생의 문장과 도학(道學), 칠현(七賢)이 사액을 받은 사적은 이미 선유(先儒)들의 서문과 발문에 이미 다 있으니 지금 다시 말하지 않겠다. 선생의 품모는 산고수장(山高水長)한데 내가 외람되이 중수 유사의 직명에 있어 자격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항상 부끄럽고 민망하였다. 어느 날 서원의 유생 여럿이 찾아와 말하기를 “서원의 공사가 거의 끝나가니 원장과 진신 및 유사와 장보(章甫)들의 공을 칭송하는 현판을 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의 한마디 말씀을 얻어서 백세토록 잊지 않을 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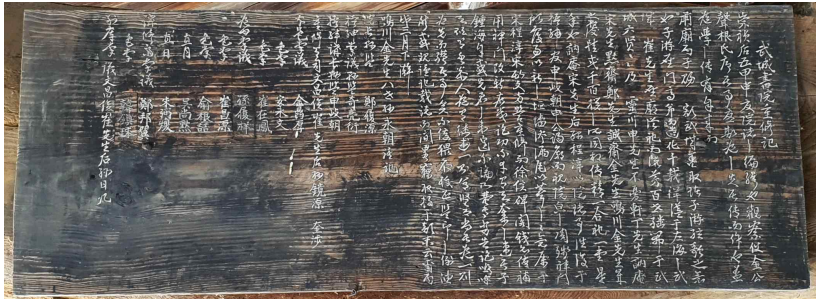
으로 삼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일어나 대답하기를 “일은 성대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고루함으로 어찌 감히 대성(大成)의 문자에 군더더기 말을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선현을 보위하고 유학을 숭상하는 데에 있으니 굳이 사양하는 것은 또한 불공(不恭)이 되기 때문에 대략 여러 유생들의 연모하는 정성을 들어 감히 전말을 엮어서 마침내 기문으로 삼는다.

임진년 가을 8월 일 행 통훈대부 담양도호부사 해평(海平) 윤제익(尹濟翼)이 삼가 짓다.

원장(院長) 관찰사(觀察使)	민정식(閔正植)
원이(院貳) 현감(縣監)	민영철(閔泳哲)
강장(講長) 현감	이시우(李時宇)
진신(摺紳) 장의(掌議) 현감	이철화(李喆和)
도내(道內) 장의 유학(幼學)	김사근(金思根)
감찰(監察)	박인래(朴麟來)
색장(色掌) 유학	□□□
본읍(本邑) 장의	김사준(金思駿)
색장	김영림(金永琳)
직월(直月)	김영린(金永麟)
직일(直日)	권종풍(權鍾豐)
본손 유사(本孫有司)	김광흠(金光欽)
	송기호(宋琦浩)
중수 유사(重修有司)	김직흠(金稷欽)
	황기환(黃基煥)
	김직술(金直述)
	김종림(權鍾林)
	우재호(禹在鎬)
	백태수(白泰洙)

17.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김영조(金永朝) 지음, 89.8×32.6cm



승정(崇禎) 기원후 다섯 번째 갑신년 여름에 원지(院誌)를 편집하면서 관찰사 김성근(金聲根) 씨가 그 사실을 서술하였으니, 사도(斯道)가 그 전수를 잃을까 염려하여 지은 것이다. 도학(道學)의 전수는 유래가 있으니 숙묘(肅廟) 병자년에 ‘무성’이라고 사액한 것은 대개 자유(子游)가 무성 고을에서 현가(弦歌)로 다스렸던 뜻에서 취한 것이다. 자유는 공자 문하의 뛰어난 제자로서 그가 끼친 교화가 천년토록 우리나라의 무성에까지 넘치고, 최선생(崔先生)은 성묘(聖廟)에 종사되어 아름다운 명성이 백세토록 무성의 여섯 현인이 성현의 학문을 잇고 후학의 길을 인도하게 하였으니, 여섯 현인은 바로 영천(靈川) 신 선생(申先生 신잠(申潛)), 불우현(不憂軒) 정 선생(丁先生 정극인(丁克仁)), 놀암(訥庵) 송 선생(宋先生 송세림(宋世琳)), 묵재(默齋) 정 선생(鄭先生 정언충(鄭彦忠)),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 김약묵(金若默)), 명천(鳴川) 김 선생(金先生 김관(金灌))이다. 세월이 비록 천 백년이 흘렀어도 들은 바 전수가 정밀하고 전일함을 헤아려 한 당(堂)에 합사(合祀)한 것이 이 해이다. 놀암 송 선생의 후손인 정순(程淳)이 원지(院誌) 일로 진신(摺紳)인 벗 신기조(申岐朝)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신공이 사당을 알현하면서 서원이 쇠잔해진 모습을 보고 신문(神門)이 기울어 엎어진 것을 바꿔서 새롭게 하고 비가 새는 담장에 기와를 얹어 수리하자는 뜻을

송정순에게 부탁하였다. 송 사문(宋斯文)이 한창 중수를 하다가 서후(徐侯 서호순(徐灝淳))의 비각(碑閣)을 세우는 돈이 여유가 있자 신문을 새로 고치는 데에 보태게 하였는데, 거의 공사가 끝나가 즈음 불행히 하늘이 그를 빨리 앗아갔다. 이에 그의 아들 종해(鍾海)가 선군(先君)이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을 비용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감당하여 일을 마쳤다. 아, 하늘의 이치는 비태(否泰)가 있고 사람의 도리에는 계술(繼述)이 있으니 한편으로는 현인을 존송하여 그 일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선군(先君)을 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한 것이다. 부족한 내가 외람되어 교정(校正)하고 감인(監印)하는 데 참여하여 유연히 감탄하면서 삼가 원지에 기록하고 간략하게 그 전말을 판에 건다.

병술년 3월 하한(下澣)에 명천 김 선생의 8세손 영조(永朝)가 삼가 짓다.

원장(院長)	현감(縣監)	정이원(鄭履源)
진신(摺紳) 장의(掌議)	현감	기양연(奇亮衍)
진신 강장(講長)	현감	신기조
중수유사(重修有司)	문창후(文昌侯)	최선생 후손 종원(鏡源), 규섭(奎涉)
본읍(本邑) 장의		김후정(金鼎厚)
색장(色掌)		안영문(安永文)
색장		최재봉(崔在鳳)
도내(道內) 장의		손이상(孫履祥)
색장		최창원(崔昌源)
색장		유근철(兪根喆)
직월(直月)		오상묵(吳尙默)
직월		송필환(宋弼煥)
강수재(講修齋)	장의	정방익(鄭邦翼)
색장		한진송(韓鎭{玉+宋})
별고(別庫) 장의	문창후	최선생 후손 일구(日九)

18.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 송종수(宋鍾壽) 지음, 92.8×35cm



큰 고을에 서원이 있는 것은 바로 국도(國都)에 학관(學館, 성균관, 사부학당)이 있는 것이기에 예의문장(禮儀文章, 예악문물)이 이곳에서부터 갖추어진다. 조두(俎豆, 祭器)를 선사(先師)에 올리고, 학문을 강론 연마하여 후학(後學)을 올바르게 가르친다.

옛날 문창 최선생, 영천 신선생(申先生) 및 향현(鄉賢) 불우헌(不憂軒) 정선생(丁先生), 눌암(訥菴) 송선생, 묵재(默齋) 정선생(鄭先生), 성재(誠齋) 김선생(金先生) 명천(鳴川) 김선생은 도덕이 서로 부합하고 다스림이 자유(子游, 공자의 제자)와 같았다. 이 때문에 선생의 명령을 편히 모시는 곳이기에, 반드시 무성(武城)이라는 명칭으로 사액을 내려 본읍에서 서원 이름으로 삼았는데 유풍(遺風)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다. 어진 지방관이 이 고을을 맡아 왕왕 많이들 옛 선생의 다스림으로 모범을 삼아 다스려 문교(文教)를 숭상하고 학궁(學宮)을 보전하였는데, 무릇 선비들이 기다렸다가 흥기하여 존모하고 진심으로 보호하였기 때문에 이 서원이 비록 오래되었으나, 시대와 더불어 새로워졌다. 이는 천도(天道)가 사문(斯文: 유학)을 부지(扶持)함이 진실로 맞도다. 《주역》을 보면, 태괘(兌卦)에서 강습(講習)이 많아지면 익괘(益卦)가 되고, 비괘(否卦)에서는 태괘(泰卦)가 이어 받으니, 이것이 바로 사리에 맞는 이치이다.

지난번 서원에 화재가 일어난 후 서 사또[徐侯, 서호순(徐灝淳)]가 중건하여 기와를 바꿨고, 금번 이 사또[李侯, 이민태]가 다시 새롭게 하고, 기울 때마다 곧바로 수리하는 것은 선공(先公)의 뜻을 계승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굳이 다시 거듭 말하여 표절할 필요가 없다.

서 사또의 아들 상정(相鼎)씨가 지난 경오년(고종 7년, 1870년) 간에 전라관찰사로 내려와 동향(桐鄉)²⁴의 옛 자취 중 먼저 이 서원을 방문하였으니, 현가(絃歌, 교화로 잘 다스림)의 여운이 학문을 흥기한다고 조그만한 빗돌에 새길 수 있었다. 마침내 비각(碑閣)을 세우고 봉록을 덮어 한 꾸러미를 기부하여 몹시 힘쓰으로써 보수하는 방도에 보탬이 되었다. 그리고 성재공(誠齋公) 방계 10대손 김정신(金廷信)과 명천공(鳴川公) 7대손 김성흠(金惺欽)에게 부탁하였다. 김정신과 김성흠은 정성껏 힘을 다해 부지런히 주관하였다. 또 성재공 10대손 김필흠(金必欽)이 본재(本齋) 부별청(扶別廳)을 위해 그 공(功)을 모아 쌓아놓았다. 그러던 중 금년에 이르러 비바람이 크게 불어 지붕과 기와는 새고 해지고, 사우(祠宇)의 문은 이미 기울어져 뒤틀리고, 심지어 담장이 퇴락하여 기울고 대문이 무너졌으니, 참으로 온갖 문제로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 이민태 사또께서 진신원장(縉紳院長)으로 있기에 재유(齋儒)들이 이 사안을 사또에게 아뢰자 사또께서 마침내 개연히 선현의 다스림에 뜻을 두고 직접 훈계하고 글로 깨우쳐서 사림(士林)을 흥기하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계획을 세우고 각출하며 서 상공(徐相公, 서상정)은 자금을 지원하여 한 방면을 감당하였고, 불우헌공 14대손 정문현 보(丁文鉉甫)는 선조를 위한 정성이 존현하는 유림의 마음보다 더욱 절실하여 매우 힘을 써서 재물을 모으고 장인을 불러모아 공역(工役)을 감독하였다. 모든 결손된 곳은 일신하여 모습이 새롭게 바뀌었다.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문학(文學, 유학의 교화)의 근

24 동향(桐鄉) : 옛날 수령의 은혜로운 정사를 잊지 못하고 있는 고을이라는 뜻이다. 한(漢) 나라 주읍(朱邑)이 젊었을 때 동향의 관리로 있었는데, 동향에서 그를 못내 사모하자 죽어서 그곳에 장사 지내었던 고사가 있다.

원적인 기(氣)가 하늘에서 나와 선천적으로 사람에게 부여되었기에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는 것이 유학의 도이고 그러기에 곳곳마다 어진 이를 받든다. 그러므로 사또가 현인을 존모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방백(方伯)이 더욱 신척하였고, 장보(章甫, 일반 선비)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운잉(雲仍 후손)의 영원히 존모하는 마음이 이상과 같다. 변변치 못한 나 역시 이 서원의 본손(本孫)으로 이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삼가 선현(先賢)의 훌륭한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후세의 현인이 탄식함이 있을 것이니, 졸렬한 글 솜씨를 잊고 전말을 위와 같이 기록한다.

을해년(고종 12년, 1875년) 양월(陽月, 음력 10월) 모일에 놀암 12대손 송종수(宋鍾壽)는 삼가 기문을 짓다.

원장(院長) 현감(縣監)

이민태(李敏泰)

도유사(都有司) 불우헌 14대손

정문현(丁文鉉)

장의(掌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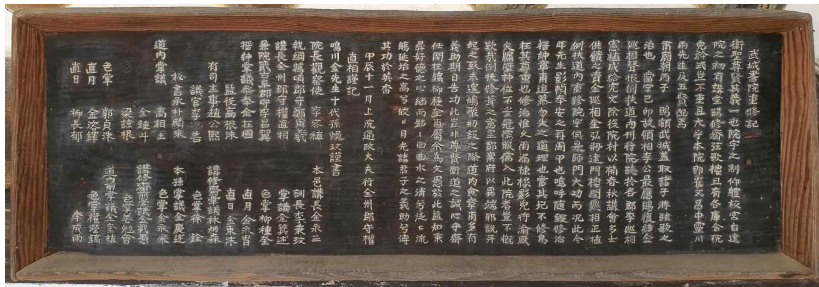
김영홍(金永洪)

색장(色掌)

우재호(禹在鎬)

19.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_ 권직상(權直相) 지음, 102×34(96×28)cm



성현들을 지키고 존송하는 것은 그 의리가 한 가지다. 서원의 제도는 향교를 우러러 따르는 것이다. 서원을 막 세운 때부터 강당이 있었으며 강수재(講修齋), 현가루(絃歌樓), 그리고 각 창고까지 서원의 격식을 공경히 따랐으니 어찌 중요하고 또 큰일이 아니겠는가? 본 서원은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선생과 영천(靈川) 신잠(申潛) 선생 두 분과 다섯 분의 현인을 배향하고 있다.

숙종 병자년(1696) '무성(武城)'이라 사액을 받았으니, 이는 대개 자유(子游)가 현가(絃歌) 소리를 울리며 선정을 베풀었던 데서 뜻을 취해온 것이다. 지금 임금 기묘년(1879)에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이 복결(復結)²⁵을 하사하였고, 순상(巡相)²⁶ 김성근(金聲根)은 도내의 각 군(郡) 서원에서 원지(院誌)를 간행하도록 도왔고, 순상(巡相) 이헌직(李憲植)이 증명 문서를 발급하여²⁷ 서원 마을의 부역

25 복결(復結) : 세금을 면제받은 토지.

26 순상(巡相) : 도내의 군무를 순찰하는 벼슬.

27 원문(完文) : 관공 문서의 하나로 증명·허가·인가·명령 등 처분에 관하여 당해 관청이 발급하는 문서였다. 내용은 부동산에 관한 것, 조세(租稅)·부역(賦役)·군역(軍役)에 관한 것 등이다.

을 없애주어 힘을 보탤다. 봄가을 강회(講會)에 여러 선비들이 음식을 보태었고, 순상(巡相) 김규홍(金奎弘)이 문루(門樓)를 세우고 순상(巡相) 민정식(閔正植)이 도내 서원의 중수(重修)를 도왔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스승 문하의 큰 공이다. 더욱이 올해엔 선생의 영정을 봉안한 후 두 번째 갑자가 돌아온 해이다.

아! 허물어진 것들을 다스려 고치는 일은 벼슬에 있는 선비들이 추모하며 잃지 말아야 할 도리이다. 허물어진 것들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어찌 높이고 중시할 수 있겠는가? 다스려 고친 일이 오래되어 서까래와 용마루에 비가 새고 들창과 벽에 바람이 들어쳐 신위(神位)가 평안하지 않을 터이니, 이 서원에 들어오는 유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어찌 개탄하지 않겠는가! 수리하는 뜻을 도와 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이단과 사설이 함께 일어나 다다랐기에 한 데 모을 겨를이 없었으나 도내의 모든 유생들이 대부분 의롭게 보탬을 주었다. 공사를 완성하고 그 공을 널리 아뢰니 이 어찌 현인들을 존모하고 도를 지키는 성심 아니겠는가? 재임(齎任) 민재호(閔在鎬)와 유종규(柳種奎)가 나에게 기문 작성을 부탁하였다. 나는 이 일에 대해 병이(秉彝)와 호덕(好德)²⁸의 마음임을 더욱 잘 안다. 이어서 명을 적는다. 명은 다음과 같다.

曲水之清兮

곡수(曲水)의 맑음이어

泛泛流觴

두둥실 술잔 흘러간단네²⁹

延埳之高兮

연대(延埳)의 높음이어

28 《시경》 〈증민(蒸民)〉에 “하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내실 적에……사람이 떳떳한 본성을 가진지라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天生蒸民，……民之秉彝，好是懿德。]”라고 하였다. 양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것, 즉 본연의 지혜를 말한다. 《孟子 盡心上》

29 곡수유상(曲水流觴) : 구불구불 굽이져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차례로 마시며 노는 것을 의미한다. 왕희지(王羲之)의 〈난정기(蘭亭記)〉에서 나온 말로, 회계(會稽) 산음(山陰)의 난정(蘭亭)에서 42인의 명사(名士)들이 모여 계사(禊事)를 행하고 유상곡수(流觴曲水)를 하고 시를 지으며 성대한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皎皎月光 환하디 환한 달빛 비치네
 諸君子之義助兮 여러 군자들의 의로운 도움이여
 傳其功於英香 그 공로 꽃 향기로 널리 전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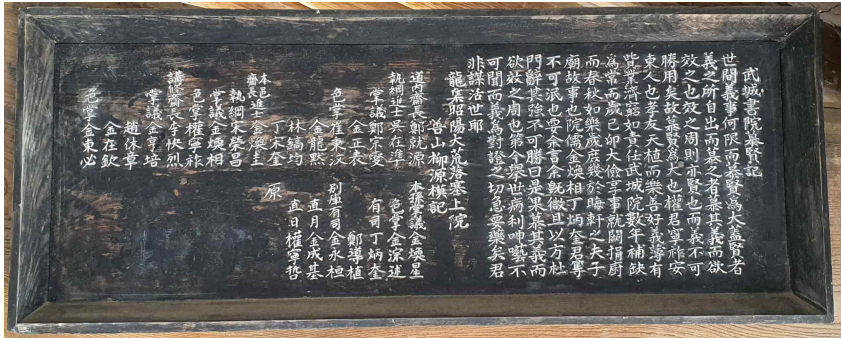
갑진년(1904) 11월 상완(上浣) 통정대부 행전주군수 권직상 삼가 짓다.
 명천 김선생 십대손 환민 삼가 쓰다.

원장(院長) 관찰사(觀察使)	이용직(李容植)
집강(執綱) 만경군수(萬頃郡守)	정인희(鄭寅羲)
강장(講長) 전주군수(全州郡守)	권직상(權直相)
겸원이(兼院貳) 고부군수(古阜郡守)	이창익(李昌翼)
진신장의(摺紳掌議) 참봉(參奉)	김재국(金在國)
	감역(監役)
유사(有司)	고근수(高根洙)
	주사(主事)
	조공희(趙公熙)
	의관(議官)
	이●선(李●善)
	비서승(秘書承)
도내장의(道內掌議)	박인래(朴麟來)
	고상규(高相奎)
	김종두(金鍾斗)
	양익근(梁誼根)
	색장(色掌)
	곽정수(郭貞洙)
	직월(直月)
	김용택(金溶鐸)
	직일(直日)
	유장욱(柳長郁)
본읍강장(本邑講長)	김영삼(金永三)
	훈장(訓長)
	이병문(李秉旼)
	장의(掌議)
	김기술(金箕述)
	색장(色掌)
	유종규(柳種奎)
	직월(直月)
	김영주(金永冑)
	직일(直日)
	김동수(金東洙)
강수재장의(講修齋掌議)	임병삼(林炳森)
	색장(色掌)
	서 전(徐 銓)
본손장의(本孫掌議)	김경술(金慶述)

	색장(色掌)	김영채(金永采)
강수재전장의(講修齋前掌議)		김재우(金載愚)
	색장(色掌)	강면회(姜勉會)
도내전장의(道內前掌議)		김규식(金奎植)
	색장(色掌)	권형호(權潐鎬)
		이성우(李成雨)

20. 무성서원모현기(武城書院慕賢記)

_ 유원모(柳源模) 지음, 84×33(75×27)cm



세상에 의로운 일이 무수히 많지만 현인(賢人)을 존모(尊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개 현인은 의리가 말미암아 나오는 사람으로, 현인을 존모하는 것은 그의 의리를 사모하여 본받고자 해서이다. 현인을 본받기를 충분히 한다면 그 사람 역시 현인이 되어 의리를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현인을 존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권영조(權寧祚) 군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천성이 효성과 우애가 있었고 선행을 즐기고 의리를 좋아했다. 다소 넉넉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곤궁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책임으로 여겼고, 수년간 무성서원(武城書院) 직임을 맡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태는 것을 상례(常例)로 삼았으며, 기묘년(1939년)에는 향사(享事)를 크게 절약하여 부족한 곳에 비용을 사용했고 봄가을 제사 때 풍년이 든 것처럼 풍성하게 지내 거의 회현(晦軒 안향(安珦))이 부자묘(夫子廟)에 했던 고사(故事)³⁰에

30 회현(晦軒)이……고사(故事) : 회현(晦軒)은 안향(安珦, 1243~1306)의 호로, 자는 사온(士蘊),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찬성사(贊成事) 안향(安珦)은 양형고(養賢庫)가 텅텅 비자 국학(國學) 재정을 확보를 위해 섬학전(瞻學錢)을 문무관원들에게 모금하였다. 남은 기금을 박사(博士) 김문정(金文鼎) 등에게 주어 중국으로 파견해 공자와 그의

가까웠다.

무성서원의 서원 유생(儒生) 김환상(金煥相)과 정병규(丁炳奎) 군 등이 권영조의 이 일을 사라지게 그냥 둘 수 없어 나에게 기문(記文)을 요청했다. 내가 이미 미천하고 또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양했는데, 애써 요청함을 이길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일은 참으로 현인(賢人)의 의리를 존모하여 충분히 본받고자 한 것이다. 다만 지금 온 세상이 이익에 병들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이니, 의리가 증세에 딱 맞는 절실하고 요긴한 약(藥)이다. 권영조 군(君)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용집(龍集 세차(歲次)) 기사년(1953) 새상원(塞上院)³¹에서 선산(善山) 유원모(柳源模)는 짓다.

도내 재장(道內齋長)	정취원(鄭就源)
집강(執綱) 진사(進士)	오재준(吳在準)
장의(掌議)	정종섭(鄭宗燮)
	김정표(金正表)
색장(色掌)	최병문(崔秉汶)
	김용묵(金龍默)
	임호균(林鎬均)
	정송규(丁宋奎)
본읍 재장(本邑齋長) 진사	김환규(金煥圭)
집강	송영창(宋榮昌)
장의	김환상(金煥相)
색장	권영조(權寧祚)

칠십 제자의 초상을 그려 오도록 하고 아울러 제기(祭器)와 악기(樂器), 6경(六經) 및 제자서(諸子書)와 사서(史書) 등을 구해 오게 하였다. 1304년 대성전(大成殿)이 완성되자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들의 화상을 모셨다.

31 새상원(塞上院)은 확실하지 않지만, 지명인 듯하다.

강수재장(講修齋長)

장의

색장

본손 장의(本孫掌議)

색장

유사(有司)

별고 유사(別庫有司)

직월(直月)

직일(直日)

이쾌렬(李快烈)

김형배(金亨培)

조휴장(趙休章)

김재흠(金在欽)

김동필(金東必)

김환성(金煥星)

김종술(金宗述)

정병규(丁炳奎)

정도식(鄭導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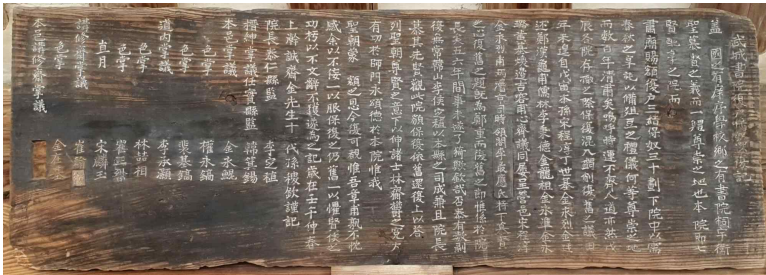
김영환(金永桓)

김성기(金成基)

권영철(權寧哲)

21.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_ 김직흠(金稷欽) 지음, 96.5×33.5cm



나라에 상서(庠序)와 학교(學校)가 있고 고을에 서원과 사우가 있는 것은 성인을 보위하고 현인을 사모하는 의리로 일체 존송하기 위한 것이다. 본 서원은 칠현(七賢)을 배향한 서원으로, 숙종(肅宗) 때 사액(賜額)되어 복호(復戶) 3결(結)과 보노(保奴) 30을 서원에 떼어주어 봄가를 향사(享祀)에 쓰고 제사의 예의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니, 매우 존송하였고 수백 년 동안 맑고 엄숙하였던 곳이었다.

아, 시운(時運)이 고르지 않고 인도(人道) 역시 그러하여 무진년(1868, 고종5)에 각 서원의 존속과 훼손이 결정되던 즈음에 보노와 복호가 삭감하는 대상에 뒤섞여 들어갔다. 이를 복구하자는 논의가 작년까지는 겨를이 없다가, 무인년(1878, 고종15)부터 본손(本孫) 송정순(宋程淳), 정세기(丁世基), 김영렬(金永烈), 김정술(金廷述), 정한귀(鄭韓龜)와 유림(儒林) 이병덕(李秉德), 김용조(金龍祖), 김영준(金永準), 김영로(金永璫), 황기환(黃基煥), 변길용(邊吉容)이 한 마음으로 의견을 합하여 여러 차례 영읍(營邑)에 요청하는 문서를 올렸고, 송정순과 김영렬은 두 차례 경사(京司)에 아뢰었다. 당시 영의정 이최응(李最應)씨가 현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구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이 이미 정중하였지만, 복구하는 절차는 오직 원장(院長)에게 달려 있어 5~6년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아, 공경할지어다. 비태(否泰)³²는 운수가 있고 박복(剝復)³³은 일정하

지 않다. 한산(韓山) 이정직(李定植)이 본현(本縣)의 사성(司成)으로서 원장(院長)을 겸하여 선현(先賢)을 사모하였는데, 이 서원의 모습을 보더니 보노와 복호를 예전처럼 회복해 주어 위로는 열성조(列聖朝)에서 선현을 존숭한 뜻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여러 사람의 답답한 원망을 풀 수 있도록 해주어 사문(師門)에 큰 공이 있으니 본원에서 길이 덕을 칭송하리라. 우리 성조(聖朝)에서 사액을 내려준 은혜를 지금 다시 보게 되었으니, 우리 장보(章甫) 가운데 누가 감격하지 않겠는가. 내가 변변치 못하지만 한편으로 보노와 복호가 예전대로 회복된 것에 감복하고, 한편으로는 어진 사성의 공이 전해지지 못할까 두려웠다. 글을 잘 짓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침내 환복기를 쓴다.

지난 임오년 중춘(仲春) 상한(上澣)에 성재(誠齋) 김 선생(金先生)의 11대손 직흠(稷欽)이 삼가 짓다.

원장(院長)	태인	현감(泰仁縣監)	이정직(李定植)
진신장의(摺紳掌議)	임실	현감(任實縣監)	한기석(韓箕錫)
본읍(本邑)	장의		김영곤(金永鯤)
	색장(色掌)		권영호(權永鎬)
	색장		배기호(裴基鎬)
도내(道內)	장의		이승호(李承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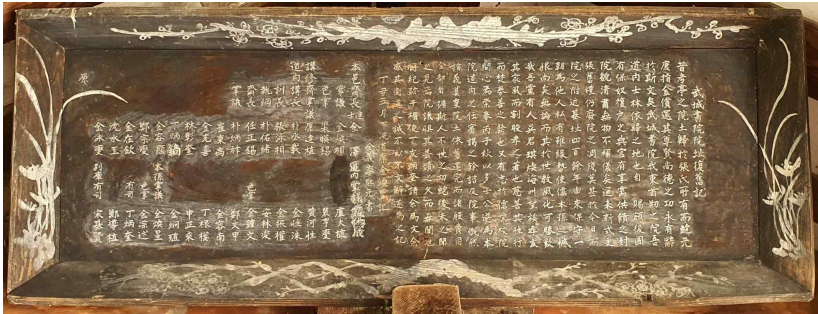
32 비태(否泰) : 《주역》의 〈비괘(否卦)〉와 〈태괘(泰卦)〉로, 〈비괘〉는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막히는 상이고, 〈태괘〉는 하늘이 아래에 있고 땅이 위에 있어서 천지가 서로 교섭하는 상이다. 만물의 성쇠와 운명의 순역(順逆)을 표현한다.

33 박복(剝復) : 《주역》의 〈박괘(剝卦)〉와 〈복괘(復卦)〉를 가리키는데, 〈박괘〉는 음(陰)이 성하여 양(陽)이 쇠한 것을 의미하고, 〈복괘〉는 음이 극에 이르러 다시 양이 회복한 것을 의미한다. 성쇠(盛衰)와 소장(消長)이 반복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색장	임철상(林喆相)
	색장	최정열(崔正烈)
	직월(直月)	송인옥(宋麟玉)
강수재(講修齋)	장의	최한■(崔翰■)
	색장	김재기(金在基)
본읍 강수재	장의	■■■

22. 무성서원원지복구기(武城書院院址復舊記)

_ 김환풍(金煥豐) 지음, 115×42(101×35)cm



옛날에 고정(考亭, 주자의 별호)의 서원 제전(祭田)이 장씨(張氏)의 소유가 되자 포원강(鮑元康)이 돈을 기부하여 되찾았으니,³⁴ 그가 어진 이를 높이고 덕을 숭상한 공로가 길이 유학(儒學)에 할 말이 있다. 무성서원(武城書院)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건된 서원으로, 우리 도 내 사람(士林)들의 의귀처(依歸處)이다. ‘무성’이라는 사액(賜額)이 내려진 뒤로 나라에서는 보노(保奴)와 복호(復戶)의 은전을 두었고 관아에서는 제수(祭需)와 공궤(供饋)의 봉납을 하였으니, 서원의 모습이 정결하고 엄숙하며 물품마다 예식에 걸맞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근래에 신식(新式)으로 경장(更張)되면서 예부터 내려온 예법이 이로 인해 폐해져서 서원이 오늘날보다 심하게 쇠락한 적이 없었고, 서원 부근의 터를 400여 년 동안 예전부터 지켜 왔건만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사유물이 되어버렸다. 비록 형세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유생(儒生)과 본손(本孫)의 한탄스러움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세교(世

34 포원강의 자는 중안(仲安)이고, 흡현(歙縣) 사람이다. 원나라 말기 정주학파(程朱學派)로, 진흙하거나 선행을 쌓기를 좋아했다. 주자(朱子)의 제전(祭田) 백무(百畝)가 족인(族人)에 의해 도매(盜賣)를 당하자 많은 돈을 내어 되찾았다. 이 고사의 출전은 《송원학안(宋元學案)》이다.

敎)와 풍화(風化)에 있어서 이루 다 탄식할 수 있겠는가.

우리 고을 선비 중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오기환(吳琪煥) 군이다. 본관이 해주(海州)로 명망 있는 집안이다. 효성과 우애가 가풍(家風)이어서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효성이 드러났고, 자애와 선행이 천성이어서 빛 문서를 불태워 선행이 드러났다. 또 유학에 뜻이 두어 향교와 서원을 출입하며 진심으로 존중하고 봉행하였다. 병자년(1936) 가을에 여러 선비의 공평한 선발로 본원의 도내 직임을 맡았다. 참배(參拜)한 후에 서원의 일을 묻고는 개연히 의연금을 내어 막중한 서원의 땅을 예전대로 도로 되돌려 놓았고 제반 모든 비용을 전부 스스로 책임졌으니, 이 사람의 세상에 드문 공로는 포원강 이후로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본원에서 의논하면서 선(善)한 그의 행적이 오래되면 알려지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장차 문미(門楣)에 선한 행적을 기록하려고 벼 정병규(丁炳奎)로 하여금 내게 기문을 요청하게 하였다. 내가 유도(儒道)를 보위(保衛)하는 그의 성의에 감동하여 글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었기에 마침내 이처럼 기문을 짓는다.

정축년(1937) 5월 하순일(下旬日)에 도강(道康) 김환풍(金煥豐)이 기문을 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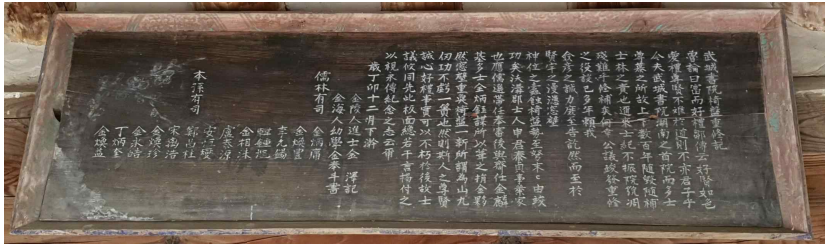
전의(全義) 이희원(李熙元)이 글씨를 썼다.

본읍 재장(本邑齋長)	진사(進士) 김택(金澤)
장의(掌議)	김환상(金煥相)
색장(色掌)	배영석(裵映錫)
강수재 장의(講修齋掌議)	강달식(康達植)
도내 재장(道內講長)	박승재(朴丞載)
훈장(訓長)	장영상(張泳相)
집강(執綱)	박우서(朴佑緒)
재장(齋長)	임정석(任正錫)
장의	박병조(朴炳祚)
	최병우(崔秉禹)
	김충희(金充喜)

	박창규(朴彰奎)
	정병호(丁炳鎬)
	김용현(金容顯)
	정종섭(鄭宗燮)
	김재흠(金在欽)
	심수옥(沈水玉)
	김영섭(金泳燮)
도내 장의(道內掌議)	나후성(羅倬成)
	노대식(盧大植)
	배형섭(裴亨燮)
	황하성(黃河性)
	김성수(金性洙)
	김진권(金振權)
	안임준(安林浚)
색장	김종문(金鍾文)
	정문갑(鄭文甲)
	김용남(金容南)
	정근모(丁根模)
	신정래(申正來)
	김형식(金炯殖)
본손 장의(本孫掌議)	김환성(金煥星)
색장	김종술(金淙述)
유사(有司)	정병규(丁炳奎)
	정도식(鄭導植)
별고 유사(別庫有司)	송기현(宋基賢)
원(原, 이상 끝)	

23. 무성서원의반중수기(武城書院椅盤重修記)

_ 김택(金澤) 지음, 104.9×34.5(98.9×31.5)cm



《논어》에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한다.”고 하였고, 《맹자》에 “어진 이를 좋아하되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같이한다.”라고 하였으니,³⁵ 예를 아끼워하고³⁶ 어진이를 높이며 도에서 떠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지금 무성서원은 호남의 으뜸가는 서원이고 많은 선비들이 우러러 사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후 수백 년 동안 훼손되는 대로 보수했던 것은 사람의 책무였다. 근래 선비의 기강이 떨치지 못하여 서원의 모습이 쇠잔해져도 보수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다행히 공의(公議)가 일어나 중수 공사가 시작된 지 이미 여러 해가 되었다. 우리 여러 선비들의 정성 덕분에 거의 공사를 마치기에 이르지만, 현우(賢宇)는 창문과 벽이 허물어지고 신위(神位)는 의자와 소반이 좀먹어 형세가 매우 쇠잔한 지경에 이르러 준공될 방도가 없었다. 옥구군(沃溝郡)의 사인(士人) 신태정(申泰貞) 군은 사업가인데, 유생들의 천거에 부

35 맹자에……하였으니 : 《논어》 〈자한(子罕)〉에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好德如好色]”라고 한 구절에서 ‘덕(德)’을 ‘현(賢)’으로 바꿔 썼다.

36 예를 아끼워하고 : 예를 보호하기 위해 형식일 뿐이라도 옛 제도를 보존한다는 말이다.

《논어》 〈팔일(八佾)〉에 “자공이 초하룻날 사당에 바치는 희생양을 없애려 하자, 공자께서 ‘사야, 너는 그 양을 아끼워하느냐? 너는 그 예를 아끼워한다.’ 하였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응하여 직임을 띠고 봉심(奉審)한 뒤에 재임(齎任) 김인기(金麟基), 선비 전병옥(全炳鈺)과 더불어 수리할 방도를 도모하여 모아진 의연금(義演金)이 매우 많았다. 창문과 벽이 다시 환해지고 의자와 소반이 새로워졌으니, 이른바 아홉 길 높이의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을 쌓아 공이 무너지지 않은 격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진 이를 존중한 정성스런 마음과 예를 좋아한 사실을 후세에까지 불후하게 할 만하다. 때문에 사람이 동의하여 먼저 이 판면(板面)에 약간의 말을 총괄하여 걸어 놓음으로써 길이 전하고 기념하는 뜻을 내보인다.

정묘년 12월 하순 금릉인(金陵人) 진사(進士) 김택(金澤) 짓다.

김해인(金海人), 유학(幼學) 김봉두(金奉斗) 쓰다.

유림(儒林) 유사(有司) 김병용(金炳庸)

김환풍(金煥豐)

이운석(李允錫)

한종욱(韓鍾旭)

김상수(金相洙)

노태원(盧泰源)

안항섭(安恒燮)

본손(本孫) 유사(有司) 정창주(鄭昌柱)

송이호(宋離浩)

김환진(金煥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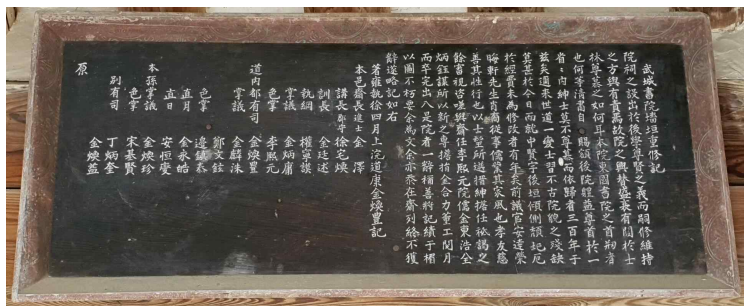
김영호(金永皓)

정병규(丁炳奎)

김환익(金煥益)

24. 무성서원장원중수기(武城書院牆垣重修記)

_ 김환풍(金煥豐) 지음, 95×41(86×37.5)cm



서원과 사당을 설치하는 것은 후학들이 선현을 존송하는 의논에서 나왔는데, 이어서 후학은 수리하고 유지하는 방법과 책임을 가진다. 그러므로 서원의 흥폐와 성쇠는 사람이 어떻게 선현을 존중하고 사모하는가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본 서원은 우리나라 서원 중에서 첫 번째 세워진 것이니, 얼마나 맑고 엄숙한가! 사액(賜額)을 받은 후 서원의 체면이 더욱 높아져 한 고을에서 으뜸이고, 고을 내 벼슬아치들이 존중하고 사모하지 아니함이 없이 귀의(歸依)한 것이 이에 삼백 년이 되었다.

근래 세상의 도리가 일변하여 선비들은 고학(古學)을 익히지 않고, 서원의 면모는 쇠퇴하여 허물어진 것이 오늘날보다 심한 적이 없다. 그러던 중 현우(賢宇)의 뒷담이 기울어지고 무너져 경비를 들여 고친 것이 몇 해가 되었다. 전의관(前議官)의 안달영(安達榮)은 회헌(晦軒) 선생의 후손으로 유업(儒業)에 종사함이 가풍이요, 효도와 우애와 자비(慈悲)와 선행(善行)이 성품과 행실이었다. 사람의 천망이 거둬되어 벼슬에 나간 뒤, 공경히 알현한 뒤에 살펴보고는 탄식하고, 재임(齎任) 이희원(李熙元)과 서원의 선비 김동호(金東浩)와 김병옥(金炳玉)과 함께 새롭게 수리할 것을 도모하고, 의연금을 전담하고 힘을 합하여 공사를 감독하자 한 달 정도에 완공하였다. 이 서원에 출입하는 자가 한마디로 좋

다고 칭찬하였다.

장차 문 위 나무[門楣]에 행적을 기록하여 잊혀지지 않도록 나에게 글을 요구하였다. 내가 욕되게도 재실 소임의 반열에 있기에 사양할 수 없어서 마침내 대략 기록하길 위와 같이 하였다.

무진년 4월 상순에 도강 김환풍(金煥豐)이 짓다.

본읍재장(本邑齋長) 진사	김 택(金 澤)
강장(講長) 군수(郡守)	서택환(徐宅煥)
훈장(訓長)	김정술(金廷述)
집강(執綱)	권영모(權寧謨)
장의(掌議)	김병용(金炳庸)
색장(色掌)	이희원(李熙元)
도내도유사(道內都有司)	김환풍(金煥豐)
장의	김인수(金麟洙)
	정문현(鄭文鉉)
색장	변진태(邊鎭泰)
직월(直月)	김영호(金永皓)
직일(直日)	안항섭(安恒燮)
본손장의(本孫掌議)	김환진(金煥珍)
색장	송기현(宋基賢)
별유사(別有司)	정병규(丁炳奎)
	김환익(金煥益)

25. 무성서원제기개수기(武城書院祭器改修記)

_ 김인기(金麟基) 지음, 100×38.5(92×34.5)cm



무성서원(武城書院)은 도(道)를 대표하는 서원이다. 문창후(文昌侯) 최선생(崔先生) 최치원(崔致遠)과 육선생(六先生)³⁷의 위패(位牌)를 모신 곳이니, 극진히 존경하고 받들어 제수(祭需)를 올리고 술을 따르고 예식을 행하는 행동이 각각 의식(儀式)에 맞아 다른 서원에 비해 엄숙하여 법식이 있었다. 그런데 거짓된 왜정(倭政) 이후로 본원(本院)의 의식(儀式)이 펼쳐지지 않았고 제기(祭器)는 약탈당했으며, 그 뒤 6·25 동란 때에는 보존하고 있던 것조차 분실되어 10개 중 2, 3개도 없게 된 상황이라 여전히 모두 결손 되고 부족하여 의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서원의 유생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도내(道內)의 사림(士林)들이 탄식하지 않는 해가 없었다.

현인(賢人)의 영령(英靈)이 묵묵히 도와주시어 송영옥(宋榮玉) 군이 개연히 한탄하여 수만 원의 거액을 기부하였다. 이에 여러 제기와 희생(犧牲)과 술잔 및 여러 부속 물품들이 찬연히 정결하고, 제수를 올리고 술을 따르고 예법을 행하는 행동이 각각 의식에 맞아 선유(先儒)들의 '재계(齋戒)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어 영령

37 육선생(六先生) : 영천자(靈川子) 신잠(申潛),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 놀암(訥庵) 송세림(宋世琳), 묵재(默齋) 정언충(鄭彦忠), 성재(誠齋) 김약묵(金若默), 도강(道康) 김관(金灌)을 말한다.

이 뚜렷하게 마치 그 위에 있는 듯함³⁸을 다시 행하게 되었으니, 어찌 이리도 성대하단 말인가!

아! 지금 이욕(利慾)에 꼭 막혀 어둡고 이단(異端)이 기세등등한 날에 이처럼 널리 베푸니, 어찌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랬겠는가. 유학의 도를 보위(保衛)하고 현인을 높이는 마음이 독실하여 스스로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아는 자이다. 이 사람의 이 공로는 무성서원이 생긴 뒤로 드물게 있는 공로이다. 이에 입으로만 전할 수 없기에, 본원의 유생과 도내 사림들의 의견들이 일치되어 대들보 위에 현판을 걸어 공로를 기록하려는 뜻으로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내가 글솜씨가 없다는 이유로³⁹ 사양할 수 없어 감히 거친 글이나마 졸렬함을 잊은 채 마침내 기문을 짓는다.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은 김형기(金炯基)와 김동기(金東基) 군이다.

단기(檀紀) 4300년 정미년(1967) 2월 청명절(淸明節)에 도강(道康) 김인기(金麟基)는 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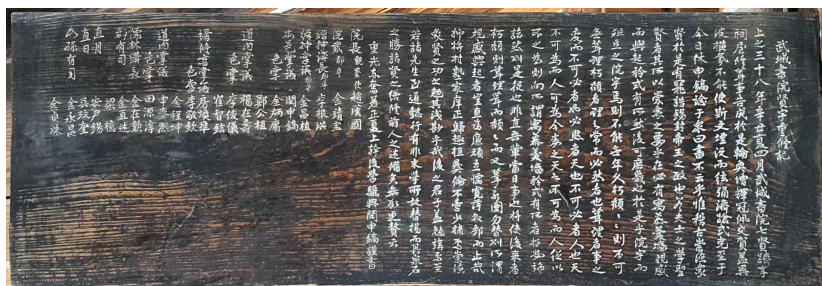
집강(執綱)	권영옥(權寧玉)
장의(掌議)	김동주(金東柱)
색장(色掌)	이교면(李敎冕)
도내장의(道內掌議)	최지홍(崔墀洪)
본손장의(本孫掌議)	김종술(金淙述)
본손색장(本孫色掌)	송길섭(宋吉燮)
본손유사(本孫有司)	김동기(金東基)
도내직월(道內直月)	김재흠(金在欽)

38 재계(齋戒)하고……듯함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6장에 “천하의 사람으로 하여금 재계(齋戒)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귀신이 뚜렷하게 그 위에 있는 듯하며 그 좌우에 있는 듯하다.〔使天下之人 齊明盛服 以承祭祀 洋洋乎 如在其上 如在其左右〕”라고 하였다.

39 글재주가 없다는 이유로 : 원문은 ‘爲不文’인데, 문맥에 따라 ‘爲’를 ‘以’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26. 무성서원현우중수기(武城書院賢宇重修記)

_ 민신호(閔申鎬) 지음, 99.5×33.5cm



금상 재위 38년(1901) 신축 여름 4월, 무성서원에 7현(七賢)을 배향하고 사옥(祠屋)을 수리하는 일이 다 끝났다. 이에 건물이 한층 더 환해지고 훌륭한 선비들이 서로 축하하였으니, 대개 이단(異端)의 물결이 횡행하여도 사문(斯文)을 없애지 못하여 글 읽는 소리가 공손하고 위기가 있어 오늘날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된 것이다. 민신호(閔申鎬)가 여러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노라. 《서경》에 “옛날을 상고하여 덕이 있는 이를 높이고 어짊을 닮은 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에 영광스러운 고명(誥命)과 봉작(封爵)을 내리는 제왕의 정사가 있게 된 것이다. 선비로서 성현(聖賢)을 배우는 자가 덕 있는 이를 높이고 어짊을 닮은 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는 요체는 반드시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고 감동하여 흥기하여 본받을 곳이 있는 데 달려 있으니, 그런 뒤에야 거의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원우(院宇)를 두는데 제사를 지내는 원우는 햇수가 오래되면 썩고 무너지는 것이 없을 수 없고, 썩고 무너지면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썩고 무너지는 것은 이치의 떳떳함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수리하는 것은 일의 변화로 기필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고, 기필할 수 없는 것은 사람에 달린 일이니, 하늘이야 어찌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어찌할 수 없는 하늘에 맡겨두고 사람이 이를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장차 어디에 베풀 것인가. 그렇다면 이 일은 우리들 당대의 일만이 아니다. 앞으로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썩고 무너지면 수리하고, 수리했는데 무너지면 또 수리하여 영구히 변하지 않도록 도모한다면, 이른바 보고 감동하여 흥기하는 것이 어찌 다만 완악한 이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이가 뜻을 세우며 경박한 이가 너그러워지고 비루한 이가 돈후해지는 것에 그치겠는가.

장차 촌塾(村塾)과 가상(家庠)이 귀추를 바로 하고 떳떳한 인륜을 부식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뿐만 아닐 것이니, 덕 있는 이를 높이고 어진 이를 본받는 공효와 권면이 어찌 얇고 적다고 하겠는가. 훗날의 군자는 힘써 학업을 닦아야 할 것이다. 여러 선생의 지극한 도와 아름다운 행실로 말하자면 말학(末學)인 내가 드러내어 높일 바가 아니고, 좋은 자연 풍광과 여러 사람이 손봐서 고친 내용은 전인(前人)들의 기록에 있으니 더 이상 군더더기 말은 하지 않겠다.

신축년 정하(正夏) 상한(上澣)에 후학(後學) 여흥(驪興) 민신호가 삼가 짓다.

원장(院長)	관찰사(觀察使)	조한국(趙漢國)
원이(院貳)	군수(郡守)	김정규(金靖圭)
진신강장(摺紳講長)	군수	이근홍(李根洪)
진신장의(摺紳掌議)	군수	김창식(金昌植)
본읍(本邑) 장의		민신호(閔申鎬)
색장(色掌)		김병용(金炳庸)
		정공식(鄭公植)
도내(道內) 장의		양재수(楊在壽)
색장		이준의(李俊儀)
		최지현(崔智鉉)
강수재(講修齋) 장의		방환준(房煥準)
색장		이경흠(李敬欽)
		김정곤(金程坤)
도내 장의		신태희(申泰熙)

색장

유림 강장(講長)

도유사(都有司)

직월(直月)

직일(直日)

본손유사(本孫有司)

전원순(田源淳)

김재훈(金在勳)

김직술(金直述)

양 억(梁 億)

안윤석(安尹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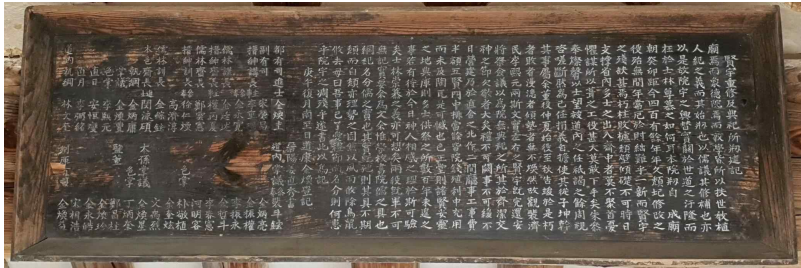
오문규(吳玟奎)

김영창(金永昌)

김정수(金貞洙)

27. 현우중수급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及典祀所勸建記)

_ 김환풍(金煥豐) 지음, 104×39(94×34)cm



묘(廟)는 덕을 본받는 곳이고 원(院)은 학문에 힘쓰는 곳이니, 모두 세상의 교화를 부지하고 사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뜻이다. 처음 창설한 것은 유생들의 논의를 통한 것이었고 보수하는 것 또한 이를 통해서 한다. 때문에 원우의 흥망은 실로 세도(世道)의 쇠퇴와 융성에 관계되어 있고 사림의 존모(尊慕)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본원(本院)은 성묘조(成廟朝) 계묘년(1483, 성종 14)에 창설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이다.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질 때마다 수리하는 일을 거른 해가 없지만, 항상 재정이 부족하여 일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현우의 파손이 심하여 기둥이 썩고 두공이 주저앉으며 벽이 무너지고 주춧돌이 기울어 얼마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재중(齋中)에 출입하는 성내(省內)의 많은 선비들이 머리를 모으고 우려하지 않는 이가 없어 수리하는 방법을 도모하였지만 공사가 너무 커서 감히 착수하지 못하였다. 참봉 주찬형(朱燦馨)이 선비들의 바람에 따라 도내(道內)의 직임을 맡았는데, 지알(祗謁)하고 나서 두루 돌아보고 탄식하며 단연코 자신의 소임으로 여겼다. 의연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종자(從子) 곤(坤)을 시켜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나에게는 공사의 감독을 맡겼다. 중하(仲夏 음력 5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가을이 되어서 일을 끝마쳤다. 이에 썩고 무너진 것, 닳고 기울어졌던 것이 모두 환하게 한결 새로워졌다. 배제민(裴濟民)과 이희원(李熙元) 두 사문이 곁에서 도왔

다. 현우가 완공되고 나서 도로 봉안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 여러 사람의 의견에 서원에 전사소(典祀所)가 없어 재계(齋戒)하고 교신(交神)하는 절차에 공경이 부족한 점이 크다고 하여 빠뜨릴 수 없는 예이고 늦출 수 없는 일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지어야 한다고 하여 이내 직사(直舍)의 북쪽에 두 칸짜리 건물을 지었다. 공사비용의 절반은 다섯 현문(賢門)에서 나누어 담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원전(院錢)을 식리(殖利)한 것 가운데서 충당하여 썼는데, 기와까지 고치지 못한 것은 유감이 다. 정당(正堂)은 현인들의 영령을 봉안한 곳이고, 전고(典庫)는 많은 선비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니, 수백 년 동안 겨를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 귀신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를 여기에서 증험할 수 있으니, 사람이 숭모하는 의리 또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의 공사를 마치고 나서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 나에게 글을 요청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학교와 서원은 유학의 도구이고, 기강과 명분은 유학의 실제인데, 실체가 느슨하면 그 도구는 무너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니, 또한 이치의 형세가 진실로 그러하다. 비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새나 쥐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 일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예절을 아끼고 명분을 숭상한다면 원우가 쇠잔해질 것을 어찌 걱정하겠는가. 마침내 이렇게 써서 기록으로 삼는다.

경오년 복월(復月 11월) 남지일(南至日 동짓날) 도강(道康) 김환풍(金煥豊) 짓다.

진양(晉陽) 강직수(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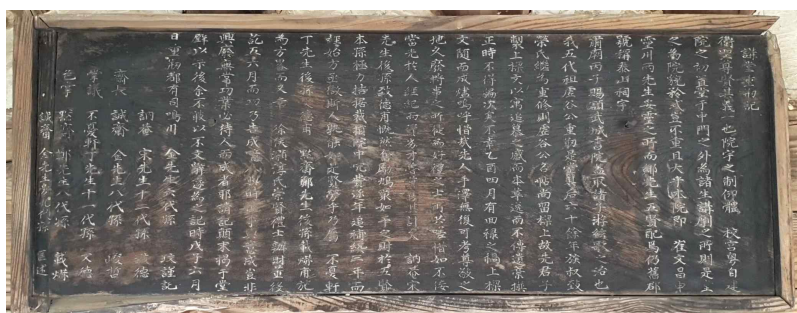
直秀) 쓰다.

도유사(都有司)	진사(進士)	김환규(金煥圭)
부유사(副有司)		송영창(宋榮昌)
진신강장(摺紳講長)	주사(主事)	이중명(李重明)
참봉(參奉)		김영관(金永寬)
유림(儒林)	강장	김정술(金廷述)
진신재장(摺紳齋長)	주사	권병하(權丙夏)

유림재장(儒林齋長)		정운헌(鄭雲憲)
진신훈장(摺紳訓長)	참봉	서인환(徐仁煥)
		고제순(高濟淳)
유림훈장(儒林訓長)		김종현(金綜鉉)
본읍(本邑) 재장(齋長) 진사		민영석(閔泳碩)
집강(執綱)		김병용(金炳庸)
장의(掌議)		김환풍(金煥豊)
색장(色掌)		이희원(李熙元)
직일(直日)		안항섭(安恒燮)
직월(直月)		이필서(李弼緒)
도내(道內) 집강(執綱)		임문奎(林文奎)
도내장의	참봉	배두현(裴斗鉉)
		김병량(金炳亮)
		김진권(金振權)
		이진영(李振永)
		김철두(金哲斗)
		이춘헌(李春憲)
		하명용(河明容)
	색장	박경직(朴敬植)
		김규현(金奎炫)
		문우열(文禹烈)
본손(本孫) 장의		김환성(金煥星)
색장		정병규(丁炳奎)
감동(監董)		정창주(鄭昌柱)
		김환진(金煥珍)
		김영호(金永皓)
		송상호(宋相浩)
■고유사(■庫有司)		김환익(金煥益)

28. 강당중창기(講堂重勅記)

_ 김민(金玟) 지음, 89.8×34.5(85.8×32.5)cm



성인(聖人)을 지키고 어진 이를 존중함은 뜻이 하나이다. 서원의 제도는 교궁(校宮)을 우러러 본받은 것이다. 서원을 세운 처음부터 중문 밖에 당(堂)을 두어 여러 학생들이 학업을 연마하는 장소로 삼았기 때문에 이 당(堂)이 서원의 면모가 되었다. 어찌 중요하지 아니한가? 본 서원은 최 문창(최치원)과 신 영천(신잠) 두 선생의 혼령을 편히 모시는 곳으로 고을 선생 5현도 배향하고, 옛 고을의 이름을 따서 '태산사(泰山祠)'라고 했다. 숙종 병자년에 '무성서원'으로 사액(賜額)을 받았으니, 대개 공자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에서 현가(絃歌)의 다스림을 했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나의 5대조 허곡(虛谷)공께서 이 당을 다시 세운 뒤 60여 년 만에 친척 아저씨인 치영(致榮)씨가 이어 중수를 하였으니, 허곡공의 이름은 아직도 상량 위에 남아 있다. 그러므로 선친께서 상량문을 지어서 추모의 느낌을 썼지만 전하지 아니하여, 일찍이 유고(遺藁)를 편찬할 적에 넣을 수가 없었다. 불행히도 을유년 4월 화재를 당하여 상량문도 함께 재가 되었다. 아! 아깝다. 선친의 글을 다시는 살필 수가 없고, 존경하는 곳도 오래전 폐해졌으니, 장차 일이 헛되게 것은 예(禮)를 좋아하는 선비와 함께 탄식하고 아까워하는 바가 된 것이다.

재주 없는 나와 같이 마땅히 남보다 앞서서 법도를 바로 잡아야 하지

만, 능력이 졸렬하고 재주는 어리석고 둔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놀암 송선생 후손 치덕(致德)이 개연히 분발하고 독려하여 5현의 본손으로부터 약간의 재물을 모으고, 온 힘을 다해 서원 가운데 잡비를 절약하고 줄여서 해마다 보충하여, 겨우 3년 만에 비로소 운영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이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이같이 현명하게 일할 수 있었겠는가!

불우현 정선생 후손 문덕(文德)과 묵재 정(鄭)선생 후손 재혁(載赫)에게 부탁하여 일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다행히도 서호순(徐灝淳)이 어진 이를 높이고 선비를 예우하여, 재물을 모으고 공사를 감독하여 대여섯 달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아! 사람이 때를 만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니, 어찌 흥폐(興廢)는 무상(無常)하지만 공로와 사업은 반드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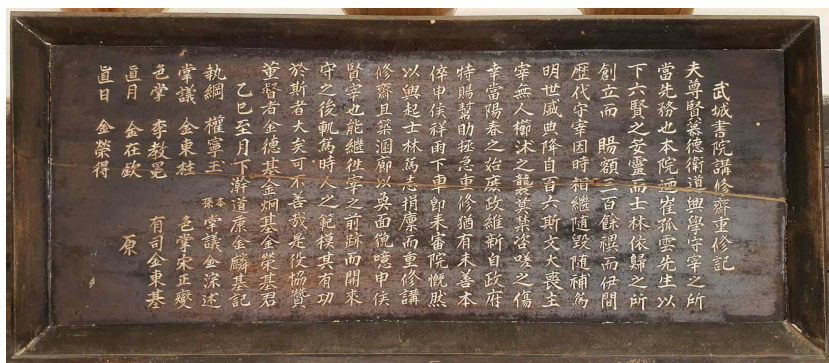
일의 전말을 기록하여 당(堂)의 벽에 걸어 후인에게 보이기를 청하거늘, 내가 감히 글을 짓지 못한다고 사양할 수가 없어 마침내 이를 위하여 기문을 썼다.

무자(1828) 6월 일 중창 도유사(重勑都有司) 명천(鳴川) 김 선생 6대손 민(旻)이 삼가 짓다.

	놀암	송 선생 12대손	구덕(口德)
재장(齋長)	성재	김 선생 8대손	준철(峻哲)
장의	불우현	정(丁) 선생 11대손	문덕(文德)
색장	묵재	정(鄭) 선생 8대손	재혁(載赫)
	성재	김 선생 방예 9대손	광술(匡述)

29. 무성서원강수재중수기(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_ 김인기(金麟基) 지음, 85×36(78×30)cm



대저 어진 이를 존중하고 덕(德) 있는 이를 사모하고 도(道)를 지키고 학문을 일으키는 것은 수령(守令)이 마땅히 급선무로 삼아야 할 바이다. 본 서원은 고운 최치원 선생 이하 여섯 선현의 훈령을 편히 모신 곳으로 사림(士林)이 의지하는 곳이다. 세워지고 사액(賜額)을 받은 지 삼백여 년이 되었다. 그 사이에 역대의 수령(守令)들이 시간이 되면 서로 이어서 훼손된 곳을 수리하여 세상의 성대한 의식을 밝히고 두터이 했다. 재액을 당할 운수로 사문(斯文)이 크게 주재자를 잃었고, 사람들이 머리를 빗고 감는 습관이 없어져 탄식하는 상심을 금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좋은 세상이 열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새로워져 정부로부터 특별히 도움이 받아 급히 중수(重修)할 수 있게 되었어도 오히려 잘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본 고을의 수령으로 신상우(申祥雨)가 부임하시어 서원을 살피고는 개연(慨然)하게 사림을 일으키려 뜻을 돈독히 하고 봉급을 덜어서 강수재(講修齋)를 중수했고, 또 혼랑(濶廊)을 지어 면모를 일신하였다. 아! 신후(申侯)는 어진 수령이다. 역대 수령의 앞 자취를 이어서 뒤에 오는 수령의 길을 열어주고, 세상 사람의 모범을 두텁게 하시니, 사문에 그 공이 크시다. 어찌 좋지 아니한가! 이 일을 협찬하고 감독한 사람은 김

덕기(金德基) 김형기(金炯基) 김영기(金榮基)군들이다.

을사(1965) 동짓달 하순에 도강(道康) 김인기(金麟基)가 짓다.

집강(執綱) 권영옥(權寧玉)

장의(掌議) 김동주(金東柱)

직월(直月) 김재흠(金在欽)

직월(直月) 김영득(金榮得)

본손장의(本孫掌議) 김종술(金淙述)

색장(色掌) 송정섭(宋正燮)

30. 현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_ 고원훈(高元勳) 지음, 142×41(137×32.2)cm



무성서원은 호남 지방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이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을 주향(主享)으로 삼고 있으며 여섯 분의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최치원 선생께서 태산군(泰山郡)을 다스릴 때 현가(絃歌)의 교화가 있었던 것과 같았기 때문에 ‘무성(武城)’이라 사액을 내렸다. 남도와 북도의 선비들이 우러러 뒤따르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달의 초하루에 배알하였고 봄가을에 제사를 올렸다. 이 현가루에서 강습을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남겨진 교화가 이어져 끊이지 않기를 도모하였다.

현가루를 창건한 건 고종(高宗) 신묘년(1891)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변하고 비바람이 번갈아 침범하였다. 때마침 세도(世道)가 날로 하강하여 사문(斯文)의 유학을 강습하지 않는 일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또한 서원의 강당도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기에, 서원의 선비들이 이 일을 근심으로 여겼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보태어 남도와 북도 내의 유생들이 각자 공익을 위해 물품과 돈을 내었다. 몇 년이 지나 공사를 마치자 비로소 기울어진 것들이 반듯하게 바로잡혔고 물 새는 곳들이 아름답게 되었다. 그 장대하고 아름다움이 옛날에 비해 갑절은 새로웠다.

이때 바라보는 이들이 찬미하며 우리 유교가 다시 흥기하기를 기대하였다. 장차 문미(門楣)를 걸려 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하여 나에게 한 마디 말을 부탁하였기에 나는 승낙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감히 서원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으나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니, 이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생의 교화를 앙모하여 여러 선비들에게서 실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명실상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제 여러 선비들이 이 현가루에 올라서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유교가 흥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필시 누대의 이름을 돌아보고 그 실질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최치원 선생이 펼친 현가의 교화가 끊이지 않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이름과 실질이 서로 부합하고 우리 유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로 여러 선비들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도록 권면해야 서원 우두머리가 이름만 있지 실질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병자년(1936) 봄 전라북도지사

개성 고원훈 근지

원장(院長)	전북지사	고원훈(高元勳)
원이(院貳)	정읍군수	조동민(趙東敏)
진신강장(摺紳講長)	박사	이광수(李光秀)
유림강장(儒林講長)	진사	김택(金澤)
진신훈장(摺紳訓長)	직원	강창영(姜昌永)
유림훈장(儒林訓長)		권영모(權寧謨)
진신재장(摺紳齋長)	주사	권병하(權丙夏)
유림재장(儒林齋長)	진사	김환규(金煥圭)
집강(執綱)		송영조(宋榮祚)
진신도유사(摺紳都有司)	참봉	지응현(池應鉉)
유림도유사(儒林都有司)		허업(許業)
진신장의(摺紳掌議)	참봉	정태환(鄭泰煥)
유림장의(儒林掌議)		임사규(林士圭)
색장(色掌)		권영조(權寧祚)
강수재장의(講修齋掌議)		정취원(鄭就源)
색장		김명수(金明洙)
본읍재장(本邑齋長)		김정술(金廷述)
집강		송영창(宋榮昌)
장의		강철호(姜喆鎬)

색장겸총무(色掌兼總務)

본손장의(本孫掌議)

색장

장재(掌財)

유사

감동(監董)

직월(直月) 교관(敎官)

직일(直日)

김환상(金煥相)

김환성(金煥星)

김종술(金淙述)

송기현(宋基賢)

김환일(金煥一)

안항섭(安恒燮)

임재규(林在圭)

이희원(李熙元)

정병규(丁炳奎)

안재근(安在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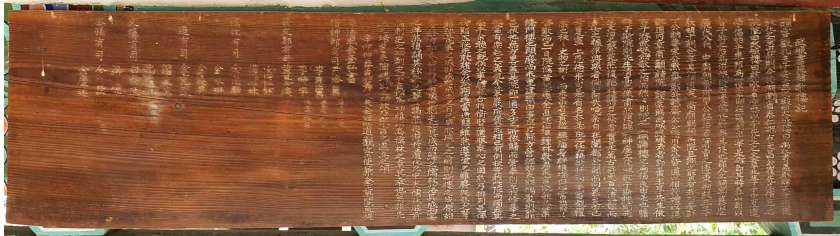
정길주(鄭吉柱)

김성기(金成基)

권영옥(權寧玉)

31. 무성서원현가루기(武城書院絃歌樓記)

_ 김규홍(金奎弘) 지음, 122×31cm



삼가 일찍 살펴보니 공자의 훈령을 편히 모시는 건물을 ‘대성(大成)’이라 하고, 누(樓)를 ‘풍화(風化)’라고 한 것은 대개 공자의 도덕과 교화에서 뜻을 취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제 호남의 고을을 살펴보면, 태인현에 문창공(文昌公) 최치원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 있으니, 서원을 ‘무성(武城)’이라 하고 누(樓)를 ‘현가(絃歌)’라고 한 것도 또한 이유가 없겠는가? 선생은 문장을 중국에서 배워 도학을 우리나라에서 창시(倡始)였으며, 한 세상의 종사(宗師)되어 신라 조정에서 이 고을에 수령으로 나왔으니, 곧 그때는 태산군(泰山郡)이었다. 옛날 자유(子游)의 다스림으로 고을을 다스리니, 민간의 풍속이 크게 변하고 유학의 교화가 무성하게 일어났다. 그가 죽자 고을 사람들이 사당(祠堂)을 세워 사모하였다.

고려시대를 거쳐 우리 중종(中宗) 때에, 영천(靈川) 신(申潛)공이 소하(蕭何)⁴⁰를 따라 조참(曹參)⁴¹이 한 것과 같이 (문창공의) 다스림을 이

40 소하(蕭何, ?~BC193) 중국 전한(前漢)의 공신, 고조를 도와 왕조의 기반을 닦는데 일조하였다. 고조 유방이 죽은 뒤 혜제를 보좌했으며, 후임으로 조참을 추천하여 정국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소하가 만들고 조참이 지키고 따랐다(蕭規曹隨)’는 고사성어가 유래하였다.

었다. 오학(五學)을 세우고 십훈(十訓)을 가르쳐 밝히니 이 사당에 합하여 제향하였다. 숙종(肅宗) 때에 사당이 서원(書院)이 되었고, 또 고을의 어진 이로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공, 눌암(訥庵) 송세림(宋世琳)공, 묵재(默齋) 정언충(鄭彦忠)공, 성재(誠齋) 김약묵(金若默)공, 명천(鳴川) 김관(金灌)공 등이 모두 도덕으로 서로 부합이 되니, 예(禮)로써 추가로 배향하였다.

도내의 선비가 서원의 사액(賜額)을 청원하여 ‘무성(武城)’으로 사액을 받았으니, 무성이란 곧 주향(主享) 최고운 선생께서 옛 자유(子游)자 무성(武城)에서 현가의 다스림을 한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원의 편액 이름과 누각의 편액이 걸린 것도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서원에 우리러 참배하면, 곧 선생의 청고한 기상이 숙연하게 신령의 좌석 뒤에 다시 임한 듯하고, 이 누각에서 노래하면, 곧 선생께서 문덕(文德)으로 다스리는 소리가 완연하게 다시 강습한 후에 들리는 듯했으니, 실로 이는 만고의 꽃 바람이요, 백대의 남긴 시운이다. 많은 선비들이 진작되어 감흥된 것이 아마도 어떠하겠는가! 아! 내가 서울에 있을 적부터 흠모하여 듣고 우리러 사모했다.

지난 기축년 여름에 임금의 은덕을 입어 이 고을에 관찰사로 부임하여, 내가 이 서원의 책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삼가 배알(拜謁)하고 봉심하면서, 예의(禮儀)가 발달하고 문물(文物) 번창함을 보고 싶었으나, 그렇게 못한 것은 번진(藩鎭)의 책임을 맡아 몸이 일선의 성벽 방어에 매였기 때문이었다. 다만 마음으로 항상 답답하여 탄식 할 따름이었다. 하루는 서원의 선비 황기환(黃基煥), 김직술(金直述), 권종림(權鍾林)군 등이 와서 말하기를, "서원의 면모가 쓸쓸하고 문루(門樓)가 넘어졌음에도 아직 중건하지 못하니, 일은 크고 힘은 약하였기 때문이다. 곧 경영 시작을 모의하여 재물을 모았으나, 곧 고을의 부조(扶助)가 없으면 달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개 서원은 한 도(道)의 많은 선비가 의지

41 조참(曹參, ?~BC190) 중국 전한(前漢)의 공신, 유방을 도와 대업을 이바지한 공으로 평양후(平陽侯)로 책봉되었다. 고조가 죽은 뒤 소하(蕭何)의 추천으로 상국(相國)이 되었다.

해 높여 받드는 곳이니, 곧 수리할 논의가 있으면 마땅히 즐겨 나아갈 의리가 있거늘, 하물며 이제 필암서원(筆巖書院)과 포충사(褒忠祠)에는 이미 전례(典例)로 부조(扶助)함이 있는데, 어찌 이 서원에만 오직 어진 이를 숭상함이 없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듣고 이미 사태를 헤아렸으니, 진실로 어진 이를 지키는 도리에 합당하고, 대중들의 마음을 복종시킴에 진실로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곧 여러 읍에 배당하여 하여금 일에 대비하도록 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임기가 다 되어 갑자기 교체되었다. 비록 그렇지만 길을 가다가 그만두기 어렵고, 당긴 쇠뇌를 다시 풀기는 어렵다. 무릇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루어진 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 누(樓)가 이루어진 것도 처음 시작하면 끝이 있다고 보면, 바야흐로 시작하고 아직 이루지 못하면 그 끝에 이루어진다.

자사(刺史)가 그 이루어짐을 알고 유림(儒林)에게 공을 돌리고, 낙성(落成)하여 잔치를 베풀니, 의기양양하게 다시 현가(絃歌)의 소리를 외우고, 부지런하게 다시 자유(子遊) 남긴 교화의 가운데서 노닐게 되었다. 유림들은 모두 자사(刺史)의 공로라고 했지만, 자사는 스스로 자기의 공으로 생각지 않고 오직 유림의 행복으로 삼았는데, 그 행복이란 선왕께서 길러 오고 인재를 양성[陶鑄]한 공덕(功德)이다. 그러므로 이에 감히 그것을 말하면서 드디어 칭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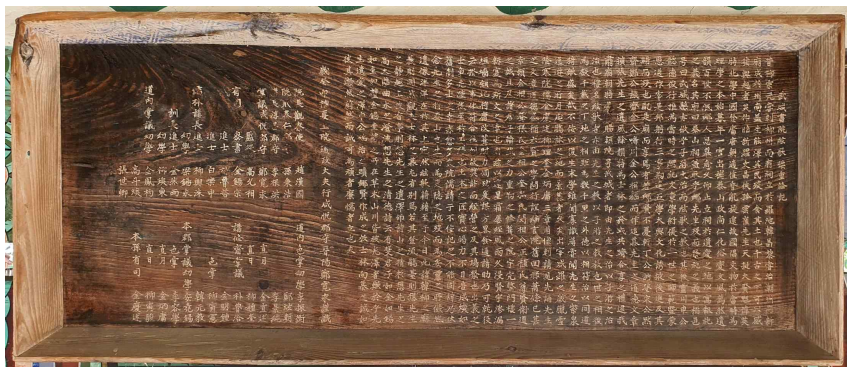
신묘(1891) 2월에 가의대부 전라도 관찰사 겸 규장각 직제학 청풍(淸風) 김규홍(金奎弘)이 짓다.

진신도유사(摺紳都右司)	윤제익(尹濟翼)	담양부사(潭陽府使)
	이희익(李熹翼)	보성군수(寶城郡守)
	이시우(李時宇)	옥구현감(沃溝縣監)
발문도유사(發文都右司)	황기환(黃基煥)	
	김직술(金直述)	
	최종림(崔鍾林)	
유림유사(儒林有司)	김사준(金思駿)	
	김영림(金永琳)	

	김요승(金堯昇)
성조유사(成造有司)	김관흠(金寬欽)
	권직규(權直圭)
	우재호(禹在鎬)
문부유사(文簿有司)	백태수(白泰洙)
	양 억(梁 億)
본손유사(本孫有司)	김광흠(金光欽)
	김경술(金慶述)

32. 무성서원현가루중수기(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_ 정관영(鄭寬永) 지음, 120×50.5(110×42)cm



옛날에 유종원(柳宗元)이 유주(柳州)에 유배를 갔을 때 나지(羅池)에 묘사(廟祠)를 세웠다. 한유(韓愈)가 조주(潮州)를 다스릴 때 새 사당이 주의 남쪽에 세워졌다. 이는 대개 살아서는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고 죽어서는 그 땅에서 제사를 받게 한 것으로, 오랜 세월 후에 감발하고 흥기한 것이다. 우리러 보건대 신라(新羅)의 문창후(文昌侯)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께서는 하늘이 낸 빼어난 인물이며 위대하고 영특한 분이다. 중국에서 학업을 해 당(唐)나라에 등용이 되었으나 혼란한 시기를 만나 고국으로 되돌아 왔다. 당시에 문물을 인도하여 이학(理學)의 근본이자 시작이 되었다.

노년(老年)에 궁에서 나와 태산군(泰山郡)⁴²에 부임하여 인자한 교화의 정치를 숭상하니 풍속이 변화하였다. 문풍도 성대하여 남긴 시들이 백세가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오래 되었다. 양모하는 마음으로 그 분이 은덕을 끼친 땅에 사당을 세워 보답으로 제사를 올리는 뜻을 부치고 그 사당의 이름을 ‘태산사

42 태산군(泰山郡) : 전라북도 정읍의 옛 지명.

(泰山祠)’라 하였다. 이는 대개 향선생(鄕先生)⁴³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올리는 뜻에서 취한 것이다. 읍의 이름을 무성현(武城縣)이라 한 것도 또한 자유(子游)가 문(文)으로 다스리자 현가(絃歌)의 가르침이 있었던 일을 본뜬 것이다.

그 후에 영천(靈川) 신잠(申潛) 공은 큰 덕과 뛰어난 행실로 당대의 기강 있는 인물로 추대되었으며, 문장과 학술로 당대에 으뜸가는 스승이자 모범인 지라, 성은을 입어 이 고을에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세 가지 일을 몸소 행하였으며 오학(五學)을 창건하여 문화를 크게 흥기시키고 후진들을 이끌어 도와주었기에 급기야 이 사당에 배향하여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우리 고장의 현인으로 불우현(不憂軒) 정극인(丁克仁), 눌암(訥菴) 송세림(宋世琳), 묵재(默齋) 정언충(鄭彦忠), 성재(誠齋) 김약묵(金若默), 명천(鳴川) 김관(金灌) 등이 서로를 이어 나타나 선생의 도덕과 문장을 추모하고 선생의 유풍(遺風)과 문학 작품을 확장하여 특별히 사림(士林)의 훌륭한 법식이 되었기에 함께 배향하는 예를 드리게 되었다.

우리 숙종 임금께서는 특별히 사액을 내려 서원의 이름을 무성(武城)이라 하였으니, 이는 최치원 선생의 다스림이 자유(子游)의 다스림에 연유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누대의 이름을 현가(絃歌)라고 한 것도 또한 선생의 교화가 자유의 교화로 가르친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가 몇천 년 떨어져 있고 거리도 수천 리 떨어져 있으나, 그 덕이 서로 부합하고 다스림이 같은 도리였으니, 아 성대하도다.

부족한 나는 후생(後生)이자 말학(末學)으로서 비록 들은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일찍이 자천대(紫泉臺)⁴⁴는 선생께서 노닐었

43 향선생(鄕先生) : 그 지방 출신 대부(大夫)로서 벼슬을 내놓고 시골에 내려와 서당을 세우고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 뒤에 그가 죽으면 그 서당에 위패(位牌)를 모시고 제사한다. 한유(韓愈)의 송양거원소윤서(送楊巨源少尹序)에 “옛날에 이른바 향선생으로 죽으면 서당에 제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였는데 이는 큰 유현(儒賢)이 아니더라도 그 지방 출신의 학자나 절의가 높은 사람이면 사당을 짓고 제사할 수 있음을 뜻한 것이다.

44 자천대(紫泉臺) :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이 거닐던 곳이다.

던 곳이요 월연대(月延臺)는 선생께서 술잔을 들고 시를 읊조리던 곳임을 들었기에 마음으로 사모한 지가 오래 되었다.

내가 함라(咸羅)⁴⁵에 수령으로 나오게 된 해에 납설(臘雪)⁴⁶이 내리고 날은 추웠다. 서원의 유생 김경술(金慶述), 유종규(柳鍾奎), 김병용(金炳庸) 세 명이 명함을 품고 찾아와 만나기를 청하였다. 먼저 선생의 문장과 도덕에 대해 말하고, 여섯 현인의 학문과 행실에 대해 성대하게 칭송하였다. 계속하여 서원이 화재를 당해⁴⁷ 심하게 을씨년스럽게 된 지가 오래 되었다는 얘기를 하였다. 다행히 상공(相公) 김성근(金聲根), 상공(相公) 김규홍(金奎弘), 상공(相公) 민정식(閔正植) 씨가 선현을 존모하고 도를 지키는 정성에 힘입고, 또한 여러 군자들이 정성을 보태 함에 힘입어 건물을 새롭게 고치고 수리하였다.

서원 건물을 완전하게 정비하고 문루(門樓)를 완전히 새롭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 사문(斯文)에 다행스런 일이다. 이후로 세월이 흐르고 비바람이 오래 침범하고 서원에 물이 새거나 담장이 허물어지면, 장차 어떻게 고치고 보수하겠는가? 재력이 거의 다 없어지자 이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도모하여 통지문을 돌리고 도움을 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부역을 시킬 수 있었다. 일의 규모를 헤아려 옛 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장려하고 허여하여 경영케 하였다. 재물과 사람을 한 데 모으는 일에 있어서는 의로운 뜻을 보태려는 선비들이 앞을 다투어 이어졌고, 공사하고 수선하는 일에 대해서는 토목을 다루는 장인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였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한 모습이 마치 옛 제도와 같았고 여러 선비들의 다행스러움도 또한 더욱 많아졌다.

서원의 선비들이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기에 고사하지 못하고 선생께서 태산군에 대해 한 일을 엮으려 생각하였다. 살아서는 관리로서 은거했던 땅이요 죽어서는 신주(神主)를 섬겨 모시는 곳이며 엄연한 유상(遺像)⁴⁸이 그 위에 유유하게 있고, 완전한 현가(絃歌)가 오늘날까지도

45 함라(咸羅) : 함열(咸悅)의 다른 이름.

46 납설(臘雪) : 설달에 내리는 눈.

47 회록(回祿) : 화재(火災)를 말함.

자자하다. 그러니 저 한유(韓愈)나 유종원(柳宗元)이 사당을 세운 뜻과 동일하다. 사림들이 사모하는 뜻을 보자면 더욱 특별함이 있다. 만약 유상대(流觴臺)에 오른다면 선생의 고요한 흥취를 떠올릴 것이요, 피향정(披香亭)에 오른다면 선생께서 남긴 은택을 생각할 것이요, 시산(詩山)⁴⁹의 아름다운 빛깔로부터는 선생의 고아하고 위대함을 떠올릴 것이고, 곡수(曲水)의 맑은 물에 임해서는 선생의 맑은 덕을 생각할 것이다. 시경에 이르기를, “문채나는 군자여, 금과 같고 석(錫)과 같으며, 규(圭)와 같고 벽(璧)과 같구나”⁵⁰ 라고 한 곳이다. 초목과 산천이 모두 광택을 입은 것 아니겠는가!

아! 선생께서 남긴 사랑의 은택, 신잠(申潛) 공이 이어서 다스린 유적, 고을의 현인들이 이뤄내 본받은 효과, 사림(士林)들이 사모하는 정성이 실로 저처럼 환하고 또 울창하도다. 그러니 실로 재주 없고 우둔하며 나약한 이가 세울 수 있겠는가.

계묘년(1903) 여름 통정대부 행함열군수 진양 정관영(鄭寬永)이 삼가 짓다.

원장(院長)	관찰사	조한국(趙漢國)
원이(院貳)	태인군수	손병호(孫秉浩)
강장(講長)	순창군수	이근홍(李根洪)
장의(掌議)	함열군수	정관영(鄭寬永)
감역(監役)		고윤상(高允相)
유사(有司)	참서(參書)	김석종(金錫宗)
	진사(進士)	박노철(朴魯哲)
	진사	백낙중(白樂中)
유림강장(儒林講長)	진사	유흥수(柳興洙)
	유학(幼學)	양석영(梁錫永)

48 유상(遺像) : 최치원 선생의 영정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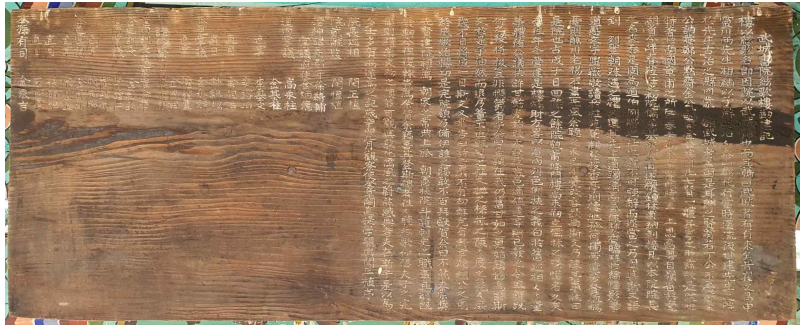
49 시산(詩山) : 태인현 태산(泰山)의 별칭.

50 《시경》 〈위풍 기옥〉에 “문채나는 군자여, 금(金)과 같고 석(錫)과 같으며, 규와 같고 벽과 같도다.[有匪君子, 如金如錫, 如圭如璧.]”라고 보인다.

훈장(訓長)	진사	김연우(金然雨)
	유학	유환동(柳煥東)
도내장의(道內掌議)	유학	김봉표(金鳳杓)
		유인준(柳寅駿)
		고두환(高斗煥)
		장세경(張世卿)
도내색장(道內色掌)	유학	이진형(李振衡)
		정현조(鄭炫朝)
		이경순(李景純)
직월(直月)		김직술(金直述)
직일(直日)		유종규(柳種奎)
강수재장의(講修齋掌議)		박노흡(朴魯洽)
		김명종(金明鍾)
색장		유인헌(柳寅憲)
		한원교(韓元敎)
본군장의(本郡掌議)	유학	안효석(安堯錫)
색장		이용학(李容學)
직월		김병용(金炳庸)
직일		유인준(柳寅駿)
본손유사(本孫有司)		김경술(金慶述)

33. 무성서원현가루창건기(武城書院絃歌樓創建記)

_민정식(閔正植) 지음, 99×39.5cm



누대를 ‘현가(絃歌)’라 이름 붙인 것은 서원(書院)의 이름이 ‘무성(武城)’이기 때문이니, 무성이라는 이름에는 본래 유래가 있다.⁵¹ 옛날에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 영천공(靈川公) 신잠(申潛) 두 분 선생이 서로 이어 태산군(泰山郡)⁵²에서 교화를 펼치셨다. 당시의 은택이 후세까지 흘러 선생의 서원을 선생께서 옛날 다스리던 현 안에 건립하였으니, 무성의 백성들을 깨우친 것은 대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고을의 현인들 가운데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 놀암(訥菴) 송세림(宋世琳), 묵재(默齋) 정언충(鄭彦忠), 성재(誠齋) 김약묵(金若默), 명천(鳴川) 김관(金灌) 같은 분을 합쳐 모두 일곱 분을 이곳에 아울러 배향(配享)하였으니, 이 서원은 특별히 남쪽 지방의 유생(儒生)들이 높이 받드는 분들을 드러내는 곳이다.

51 《논어》 〈양화(陽貨)〉 편의 다음 구절에서 이름을 따온 것임. “자유(子游)가 무성(武城) 고을 원이 되었을 때에 공자가 무성으로 가서 거문고를 타며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공자가 빙그레 웃으며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라고 하였다.〔子游爲武城宰，子之武城，聞絃歌之聲，夫子莞爾而笑曰：“割雞焉用牛刀？”〕”

52 태인군(泰仁郡)의 신라 때 이름.

나는 다행히 태평성대를 만나 주상의 은덕을 펼쳤는데 영남(嶺南)에서 호남(湖南)으로 옮겨 왔다. 금년 봄 내가 막 부임하였을 때 서원의 유생 황기환(黃基煥), 김직술(金直述), 권종림(權鍾林) 등이 명함을 바치고자 접견하였는데, 본 서원의 원장으로서 참여하였다. 이는 본디 관찰사가 전례에 따라 겸직하는 임무였다. 의리상 역지로 사양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임무를 맡았다. 이에 사문(斯文)들과 함께 열성조(列聖朝)에서 특별히 대우하는 예를 갖추려 한다. 또한 선생의 남긴 자취와 맑고 높은 기상을 말하고, 수놓은 영정(影幀) 앞에서 향을 사르고 배례(拜禮)한다. 선생의 도덕(道德) 문자를 장미 이슬로 손을 씻고⁵³ <계원필경(桂苑筆耕)>을 공경하게 읽었다. 피향정(披香亭)에 올라보니 연못의 한 줄기 연이 홀로 향기를 돌렸고, 유상대(流觴臺)에 올라 보니 냇가의 늙은 버드나무는 시원한 바람을 다함이 없었다. 내가 경치를 미처 다 즐기기 전에 나도 모르게 용모를 가다듬고 사문을 존중하여 그 일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이 서원은 옛날 무자일(戊子日)에 화재를 당한 이후 건물의 모습이 을씨년스러웠고 문루(門樓)는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였기에 유림들이 안타깝게 여긴 지가 오래 되었다. 그러다 작년 겨울에 이 누대를 세우고자 재물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니 도내 여러 읍(邑)에서 그 뜻을 돕고자 하는 의리를 이전 관찰사에게 아뢰었다. 순상이 일의 대체를 헤아리고서는 공론을 좇아 흔쾌하게 허락하고 감칙(甘飭)⁵⁴하니 이에 비로소 몇 고을에서 재목을 가까스로 구했는데, 마침 관찰사가 체직되는 바람에 이미 발송한 칙령이 무효가 되기도 하고, 이미 투입한 인력을 거두려고 하니, 어찌 걱정스럽고 답답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일은 실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이전 에 감칙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제칙(題飭)하여 사문의 허락을 받았

53 盥薇 : 원문의 ‘盥薇’는 장미(薔薇) 이슬로 손을 씻는다는 말이다.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이 한유(韓愈)가 보내준 시를 읽음에 먼저 장미 이슬로 손을 씻고 향을 피운 뒤에 읽었다고 함. 다른 글을 읽기 전에 예의를 극진히 갖추는 의미함.

54 甘飭 :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로 문서를 보내어 신칙함.

다. 이에 자연스럽게 물러나와 공장(工匠)들을 감독하니 이미 기둥을 세웠고 또 들보에 떡을 던지고⁵⁵ 그릇에 흙을 많이 담으며 여러 사람들이 흥얼거리며 흙을 판자에 넣었으니 며칠 지나지 않아 완성될 것이었다. 하루는 어떤 유자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 “시경에 이르기를 ‘시작이 없는 경우는 없으나, 끝까지 제대로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靡不有初 鮮克有終]’라 하였습니다. 다행히 상공(相公)의 덕에 힘입어 그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누대의 공사가 끝나고 서원의 모습이 이에 갖추어졌으니 그 누가 감히 백 번 절하며 축하를 올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무릇 선현(先賢)들을 존중하고 높여 서원을 세우고 예를 다해 제사 지내는 것은 나라에서 규정한 법식이다. 위로 조정의 법규를 따라서 서원을 부지하고 보호하는 것은 수령의 직무일 따름이다. 게다가 이전에 이미 시작된 일이고 지금은 다만 그 전철을 따른 것일 뿐이니 어찌 나에게 축하를 하겠는가?

나는 이 누대에 오르는 이들이 종종 거문고와 노래 소리를 들으며, 공부자(孔夫子)께서 빙그레 웃는 모습을 우러러 떠올리는 일을 기쁘게 여긴다. 그렇게 된다면 찬란한 예악(禮樂)과 문물(文物)이 볼 만하고 성대한 교화(教化)와 유풍(遺風)에 감흥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 때문에 여러 선비들을 위해 축하하며 마침내 기문을 짓는다.

신묘년(1891) 9월 관찰사(觀察使) 규장각 직제학 여흥(驪興) 민정식(閔正植)이 서문을 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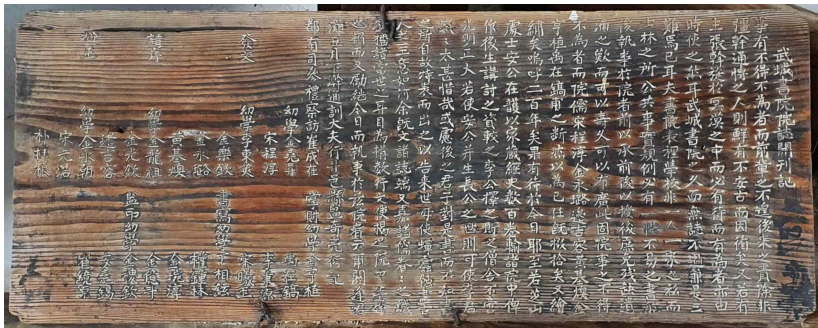
원장(院長)	순상(巡相)	민정식(閔正植)
원이(院貳)	현감(縣監)	민항식(閔恒植)
진신강장(摺紳講長)	군수(郡守)	서기보(徐綺輔)

55 拋榘 : 들보에 떡을 던진다는 뜻으로, 건물의 기본 골격이 완성된 뒤 길일(吉日)을 택해 상량식을 거행할 때, 도목수가 들보 위에서 떡을 상·하·사방으로 던지며 상량문을 읽어 축원한 데서 온 말로, 여기서는 곧 상량을 의미함.

장의(掌議)	부사(府使)	김병억(金炳億)
도내장의(道內掌議)		고영주(高永柱)
		김기주(金基柱)
색장(色掌)		이기문(李基文)
		안용균(安鎔均)
직월		김상호(金相浩)
직일		박기현(朴紀炫)
본읍장의(本邑掌議)		김영린(金永麟)
색장		권중풍(權鍾豐)
		김준상(金俊相)
강수재유사((講修齋有司)		오중근(吳重根)
		최명화(崔命華)
도내훈장(道內訓長)	감찰(監察)	김창흠(金彰欽)
도내장의		이종인(李鍾仁)
		최종구(崔鍾九)
색장(色掌)		조완소(趙完昭)
본읍장의(本邑掌議)		김기술(金箕述)
색장		송기옥(宋基玉)
직월		장석배(張碩培)
직일		안이섭(安以燮)
본손유사(本孫有司)		김영길(金永吉)

34. 무성서원원지개간기(武城書院院誌開刊記)

_ 기양연(奇亮衍) 지음, 77.5×30.5cm



일에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선배들이 경황이 없어 하지 못했거나 후배 중에 일을 맡더라도 근본이 강하고 통달 박식한 사람이 아니면 옛날에 편안하여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또 만약 아득한 가운데에서 주장하고 주선하더라도 반드시 때를 기다려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또한 시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성서원이 오래도록 원지가 없었던 것은 이 세 가지 어려움이 겹쳤던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서원이 학교와 표리를 이룬 것은 한 사람이나 한 집안의 사사로움이 아니라 사림(士林)의 공공의 사실이니, 규례(規例)가 반드시 한 질의 바뀌지 않을 책으로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서원에 집사를 맡은 자가 앞으로는 옛날을 잇고 뒤로는 후배에게 전수하여 잔결되고 누락되었다는 탄식을 면하여 오래 이어지고 널리 배포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서원의 일 가운데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서원의 유생 송정순(宋程淳), 김영로(金永璐), 변길용(邊吉容), 황기환(黃基煥), 김형식(金亨植), 우재호(禹在鎬)가 단연코 자기의 소임으로 여겨 거두어 모으고 또 책으로 엮었으니, 아 200년이 과연 오늘을 기다린 것이리라. 지산 처사(芝山處士) 안재호(安在護) 공이 집에 소장하고 있던 경사(經史) 수백 권을 서원으로 실어와 후생(後生)들이 강습하고 토론

할 자료로 만들었으니, 이택지(李擇之) 공이 승사(僧舍)에 쌓아두었던 것에 비하면 광명정대할 뿐만이 아니다. 만약 안공이 공의 시대에 함께 나고 자랐다면 이군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었으려만 매우 안타깝다. 혹 훗날의 군자들이 이 책을 보고 이 책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할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특별히 드러내어 후세에 알려줌으로써 좀벌레가 다 갹아먹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옛사람의 지극한 뜻이 어떠한가. 내가 이미 원지의 끝에 글을 썼고, 또 유생들의 사모하는 정성을 가상히 여겨 당세의 이목에 전파하고자 몇 줄의 글을 써서 서원 생재(生齋)의 문미(門楣)에 내걸게 하고, 또 오늘날을 이어 이 서원의 집사를 맡을 이에게 보도록 격려할 뿐이다.

갑신년(1884, 고종 21) 5월 하순 통훈대부 행 정읍 현감 기양연(奇亮衍)이 짓다.

도유사(都有司)	삼례찰방(參禮察訪)	최성재(崔成在)
유학(幼學)		김요승(金堯昇)
		송정순(宋程淳)
발문(發文)	유학	이동협(李東莢)
		김낙흠(金樂欽)
		김영로(金永瑤)
		황기환(黃基煥)
청서(請序)	유학	김용조(金龍祖)
		김광흠(金光欽)
		변길용(邊吉容)
교정(校正)	유학	김영조(金永朝)
		송원호(宋元浩)
		박계근(朴桂根)
장재(掌財)	유학	김형식(金亨植)
		우재호(禹在鎬)
		이병원(李秉源)
		송희옥(宋曦玉)

서사(書寫)

유학

정상현(丁相鉉)

권종림(權鍾林)

김완순(金琬淳)

김억두(金億斗)

감인(監印)

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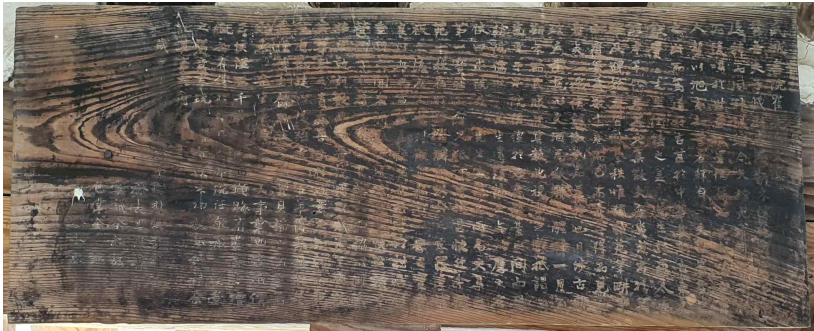
김직흠(金稷欽)

안요석(安堯錫)

최경원(崔鏡源)

35.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_ 박해언(朴海彦) 지음, 94.3×38.3cm



옛날 우리 부자(夫子 공자)께서 벽(壁) 속에 서적을 보관하여⁵⁶ 사문(斯文, 유학)의 끊어짐이 이어졌고, 하간(河間)이 일시(逸詩, 시경(詩經)에 수록되지 않은 시)를 보배처럼 구해⁵⁷ 풍아(風雅)가 다시 일어났다. 지금 《계원필경(桂苑筆耕)》이 거의 끊어졌다가 훗날 다시 세상에 드날렸으니, 어찌 또한 우연일 뿐이겠는가.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이(東夷)로 학문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문창공 최 선생이 나오므로부터 도(道)를 돈독히 하고 옛것을 좋아함이 중화(中華)보다 심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동방 문헌(文獻)은 실로 선생의 도야(陶冶)에서 시작한 것이다.

56 한 무제(漢武帝) 말년에 노 공왕(魯恭王) 유여(劉餘)가 궁실을 확장하던 중에 우연히 공자가 살던 옛집의 벽 속에서 《고문상서(古文尙書)》와 《예기》, 《논어》, 《효경》 등 수십 편의 서책을 얻었다는 기록이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나온다.

57 하간(河間)은 한 경제(漢景帝)의 셋째 아들인 하간헌왕(河間獻王) 유덕(劉德)을 가리킨다. 유학을 숭상하여 금과 비단으로 사방에서 좋은 책을 대대적으로 구입했는데 그중 《모씨시(毛氏詩)》 같은 책이 있었다.

선생은 신라 사람이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 이전이기에 그 문집이 흩어지고 거의 사라져 혹 《기아(箕雅)》⁵⁸ 및 비명(碑銘)에 있는 것 역시 모두 전질(全秩)이 아니다. 오직 《계원필경》과 《중산복괘집(中山覆篋集)》 수 십권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이 역시 쉽게 얻어 볼 수가 없다. 사또 심능숙(沈能淑) 씨가 태인현을 다스리면서 날마다 고적(古蹟)을 다니며 아랫사람들과 간격을 두지 않고 글을 짓고 술을 마시며 정사를 펼쳤는데 술이 깨어있는 사람의 정사보다 나았다. 한 달이 지나 1년이 채 되기 전에 백성들이 그 교화에 복종하였다. 정무를 돌볼 여가에 본 서원에 도착하여 선생을 배알(拜謁)하고는 석귀(石龜)와 유상대(流觴臺) 유적을 둘러보았다. 이 때 서원의 유생들이 문창공 선생의 남기신 유적에 제생들이 감응할 곳이 없다고 하자, 사또가 말하기를 “본 서원은 바로 선생을 주향(主享)으로 모신 곳이고 문집의 보장처(寶藏處)가 되는 곳인데, 상고할 만한 종이 조각조각 없으니 진실로 개탄스럽다. 지금 《계원필경》 한 질이 좌의정 연천(淵泉) 홍공(洪公, 홍석주)의 집 안에 있다. 신라말에 처음 판각한 이후 중간(重刊)한 사람이 없었으니 돌아보건대 한 집안에서 보배로 여기는 것은 진실로 이유가 있다. 내가 장차 제생(諸生)들을 위해 영문(營門, 감영)에 소개하여 이 책을 중간하도록 도모하겠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서원 유생들은 기쁜 마음으로 물러났다. 사또께서 감영에 가서 의논하니, 마침 전라감사는 서유구(徐有渠)였다. 서로 협심하여 동의하고서 장인들을 불러 판각하기 시작하였다. 수개월 만에 공역을 마치자 이 책을 상자에 담아 본 서원에 내려 보냈다. 이에 높이 받드는 책무는 우리 사림(士林)의 성의가 어떠한 지에 달려 있다. 본 서원은 창건한 이후 거의 2백년 만에 절대로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책을 얻게 되었으니, 보관하여 값진 보배로 삼고 전하여 금석(金石)으로 삼는다면 이는 바로 선생을 중흥(中興)하는 일대 큰 사업이다. 참으로 이른바 세 지방관이 동시대에 함께 있으니 천년에 한번 있는 기회이고, 드러나고 문힘에 운수(運數)가 있기에

58 조선후기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이 신라말에서부터 조선 현종 때까지 우리나라 여러 시인의 시를 뽑아 1688년에 간행한 시선집이다.

고금(古今)에 개탄하는 소회를 갖게 되니, 아마도 오늘날을 기다리는 것인가.

원임(院任)들은 사또가 유념하여 완상(玩賞)하신 뜻을 공경히 받들고 여진 사또의 공이 사라져 전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여 나에게 기문(記文)을 쓰도록 청하였다.

갑오년(1834) 선달 상순에 평양(平陽) 박해언(朴海彦)이 삼가 기문을 짓다.

재장(齋長) 이준한(李俊漢)

장의(掌議) 김조현(金祖鉉)

색장(色掌) 김주(金耑)

김규훈(金奎勳)

36. 記文 _ 송흥섭(宋興燮) 지음, 89×38cm



선철(先哲)들은 백성들보다 앞서 깨달은 이들이며 백세의 스승이니, 인심(人心)은 이에 힘입어 맑게 되고 세도(世道)는 이에 힘입어 밝게 된다. 그러니 선철들의 공이 실로 원대하고도 깊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선철들이 남긴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문묘(文廟)에 배향하거나 향사(鄉祠)에 배향하는 까닭이다.

무릇 선철들께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오품(五品)⁵⁹을 밝히는 것일 따름이다. 오품이 밝혀지면 천하가 평온해지고, 오품이 밝혀지지 않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진다. 지금 우리 유교가 밝혀지지 않아 세급(世級)이 낮아졌다. 성현들을 업신여기고 경전을 천시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아전들은 이익에만 급급하고 사도(邪道)만을 바라고 바른 정도(正道)로 돌아올 줄을 모른다.

아!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 서원의 장의(掌議) 가운데 해주(海州)를 본관으로 하는 오방환(吳邦煥)이 있는데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의 후손이다. 품성이 본래 순박하고 성실하며 선철들의 성심을 깊이 사모하였다. 곡식을 넉넉히 내어 정사년 봄의 제사에 제공하였다. 만약

59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의 오륜(五倫)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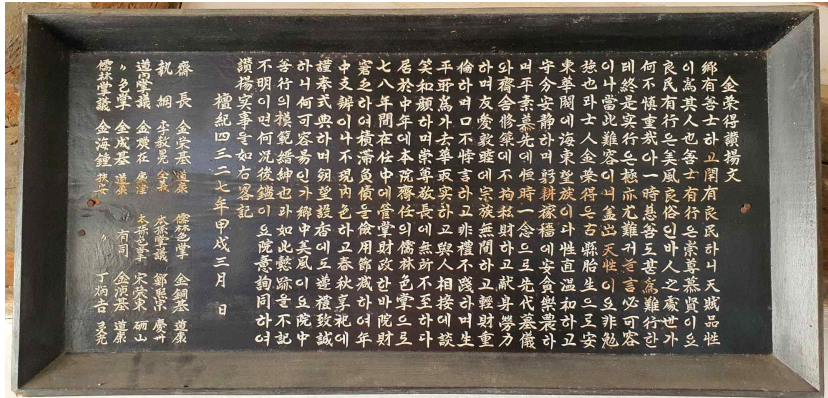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았더라면 인심이 맑게 되지 못할까 무어 근심하겠으며 세도가 밝게 되지 않을까 무어 근심하겠는가? 세상의 표준과 모범을 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서원의 여러 임원들이 말하기를, “이처럼 훌륭한 행실이라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며 부족한 나에게 이 일을 기록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가만히 현인들을 사모하고 선인들을 높이는 의의를 감히 위와 같이 기술하였다.

정사년(1977) 봄 2월 후학(後學) 여산(礪山) 송흥섭(宋興燮)이 짓다.

집강(執綱)	임홍圭(林洪圭)	송영달(宋榮達)
장의(掌議)	최봉식(崔鳳植)	정복수(丁福秀)
색장(色掌)	김종섭(金鍾燮)	정희준(鄭熙俊)
유사(有司)	김여술(金麗述)	김호갑(金鎬甲)

37. 김영득찬양문(金榮得讚揚文)



고을에 뛰어난 선비가 있고 마을에는 선량한 백성이 있으니 하늘이 내린 품성이 그 사람이다. 뛰어난 선비가 성현을 숭모하고, 선한 백성은 미풍양속을 실천하니.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어찌 신중하지 않겠는가?

일시 자선(慈善)도 심히 행하기 어려운 데 시종 실천하는 것은 또한 극히 어렵거늘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용인될 수 있으나 일에 당해서는 헤아리기 어려우니 모두 천성에서 나온 것이지 억지로 한 것은 아니다. 선비 김영득(金榮得)은 고현(古縣)에서 태어나 안동의 유명한 별족이고 해동의 명망가이다. 성품이 강직하고 온화하며, 분수를 지키고 편안하며 몸소 농사지으면서 안빈낙농(安貧樂農)하였다. 평소 선조를 숭모함에 항상 일념(一念)으로 선대의 묘의(墓儀)와 재사(齋舍) 수축에 구애됨이 없이 사재(私財) 내어 헌신 노력하였다. 우애와 화목함은 종족(宗族)에 관계 없고,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인륜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고, 예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다. 평생 동안 허황되지 않고 내실을 갖추어 학인(學人)을 만남에 환한 얼굴로 말하며, 성현을 존송하고 어른을 공경함이 미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중년이 되어 본원 재임(本院齋任)의 유림색장(儒林色掌)으로 7, 8년간 재임 중에

재정(財政)을 맡은 바, 서원의 재정이 궁핍하여 부채가 쌓이자 근검 절약하여 매년 부채를 변제함에 내색하지 않고 춘추향사(春秋享祀) 때에는 삼가 제사를 잘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 설향(設香)에도 예를 갖추어 정성을 다하니 어찌 쉬운 일이었겠는가? 고을의 아름다운 풍속이요 서원 내 선행의 모범적인 선비라. 이에 훌륭한 행적을 써 밝히지 아니하면 어찌 하물며 후에 귀감이 될 것인가. 서원의 뜻이 한결같아 그 찬양할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기록한다.

단기 4327년 갑술 3월 일

재장(齋長)	김영기(金榮基)	도강(道康)
집강(執綱)	이교면(李敎冕)	전의(全義)
도내장의(道內掌議)	김환재(金煥在)	강진(康津)
도내색장(道內色掌)	김성기(金成基)	도강(道康)
유림장의(儒林掌議)	김해종(金海鍾)	부안(扶安)
유림색장(儒林色掌)	김동기(金銅基)	도강(道康)
본손장의(本孫掌議)	정희종(鄭熙宗)	경주(慶州)
본손색장(本孫色掌)	송영동(宋榮東)	여산(礪山)
유사(有司)	김정기(金湏基)	도강(道康)
유사(有司)	정병길(丁炳吉)	영광(靈光)

■ 무성서원 강당 주련(38~43)_ 17×140.5cm



38. 음양진퇴행단유교(揖讓進退杏壇遺敎) _ 17×140.5cm

절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니 공자의 가르침이다.

39. 월삭참배향례양정(月朔參拜享禮兩丁) _ 17×140.5cm

매월 초하루 참배하고, 제사는 두 번(2월, 8월 첫 번째 丁일) 올린다.

40. 춘추강마경의사자(春秋講磨經義回(四)子) _ 17×140.5cm

춘추를 읽고 닦으며, 경전의 뜻은 四書에 있다.

41. 문예시습시서에낙(文藝時習詩書禮樂) _ 17×140.5cm

문예를 때때로 익히니 시·서·예·악이다.

42. 덕업일신효제충화(德業日新孝悌忠和) _ 17×140.5cm

덕업을 날로 쌓으니 효도와 공경, 충성과 화목이다

43. 권규교휼남전고약(勸規交恤藍田故約) _ 17×140.5cm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구휼의 향약은 남전⁶⁰의 옛 향약이구나

60 藍田 : 여씨향약을 만든 북송의 呂大鈞, 呂大忠 사형제 고향

■ 태산사 주련(44~45)_ 18×115cm



44. 사림수선(士林首善) _ 18×115cm

사림 중에서 으뜸이라

45. 성조액은(聖朝額恩) _ 18×115cm

임금(숙종)이 편액을 내려준 은혜를 입었네
_ 숙종 때 사액(賜額) 서원이 된 은혜

■ 강수재 주련1(46~49)_ 18×115cm



46. 연원추소수사렴민(淵源追溯洙泗濂閩) _ 17×141cm

연원을 쫓아 오르니 공자와 주돈이, 주희가 교육하는 곳이다.

47. 의인유예덕업일신(依仁游藝德業日新) _ 17×141cm

인(仁)에 의지하고 예(藝)의 세계에 노니 덕업이 날로 새로워 진다.

48. 규모이굉심신가국(規模已宏心身家國) _ 17×141cm

성현의 가르침은 이미 마음, 몸, 가정, 국가를 크게 한다.

49. 신사독행윤리자명(慎思篤行倫理自明) _ 17×141cm

신중히 생각하고 충실히 행동하면 윤리가 스스로 밝아진다.

■ 강수재 주련2(50~53)_ 18×115cm



강수재 주련 하나라 우 임금이 썼다고 전해지는 하우체(夏禹體)로 쓰여져 있으며, 그 옆에 해서체로 부기해 놓았다.

50. 만국망지정(萬國罔知定) _ 16×88cm

온 세상이 아는 곳으로 정하고

51. 가가구태평(家家久泰平) _ 16×88cm

집집마다 오래도록 태평하다.

52. 승제망형처(承帝忘形處) _ 16×88cm

임금의 뜻을 이어 잊지 않는 곳이니

53. 분화영불명(犇華永弗明) _ 16×88cm

크게 빛나 영원히 밝게 빛나라

Ⅲ. 무성서원 금석문 번역

54.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_ 김동주(金東柱) 지음, 78×183×56cm

빛들은 해그림자(日影)를 알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뜰의 삼분의 일이 되는 지점에 세우니 옛집의 제도가 그러할 뿐이다. 더구나 원우(院宇)는 희생을 매놓고 빙 둘러 읍하고 희생(犧牲)의 충둔(充臚)⁶¹를 고하며, 또 그 위에 공적을 써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할 바를 알게 한다. 우리 무성서원은 사당의 오른쪽에 문창후(文昌侯) 최치원 선생을 배향한 곳이다. 선생은 신라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동방의 학자들 중에 누구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하에 떨친 화려한 명성이 대단



하였기에 죽어서도 성무(聖廡)에 배향된 것이 고려 때부터였으니 사전(祀典)이 매우 융숭했던 것은 덧붙일 말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고국으

61 충둔(充臚) : 나라의 제사에 쓰던 살찌고 투박한 희생(犧牲)을 말한다. 제사 하루 전에 헌관(獻官)과 감찰(監察)이 주방(廚房)에 나가 소·돼지 또는 양의 충실한 정도를 검사하여 합격한 짐승만을 희생으로 쓰게 하였다.

로 돌아와⁶² 나라가 망해가는 조짐을 보고, 이 때문에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부끄러워하여 조정에는 오래 있지 않았고 낮은 관직이나 은자(隱者)로 배회하였다.

진성여왕(眞聖女王)이 무후(武后)의 예처럼 왕위에서 물러나니 그가 또한 오교(午橋)에 사는 노씨 이모(盧姨) 말처럼 더 이상 부끄럽게 벼슬하고자 하지 않았으니⁶³, 이 얼마나 뛰어난 호걸인가!

마침내 봉황새가 훨훨 날듯이 멀리 날고 매미가 허물을 벗듯 떠돌다가 가야산에서 생을 마쳤다. 그 맑은 풍류와 빼어난 시는 천고토록 나약한 이를 서게 하고 완악한 이를 청렴하게 할 만하였다. 어떤 사람이 우화(羽化)했다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하여 근거 없는 말이니 옛 사람이 이미 묘소가 홍산(鴻山)에 있음을 변증하였다.⁶⁴ 그 평소의 나머지는 나라 차원에서는 한 가지도 대략을 볼 수 없지만 지방 고을에 베푼 것은 넓고 넓어서 그 소 잡는 칼을 휘두르는 데 여유가 있었다.⁶⁵ 호남의 태

62 고국으로 돌아와 : 《고운집(孤雲集)》 〈가승(家乘)〉에 의하면, 884년(현강왕 10) 당 희종(唐僖宗)의 조서(詔書)를 받들고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출발하여 다음해 3월에 도착하였다.

63 최치원은 진성여왕 때 시무책을 올려 아찬(阿飡)의 벼슬을 지냈으나 실정을 거듭하던 진성여왕이 즉위 11년만에 효공왕에 왕위를 물려주자 신라 왕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기로 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측천무후가 태상왕(太上皇)으로 물러난 것이나, 측천무후에게 여릉왕(廬陵王) 이현(李顯)을 태자로 삼도록 직간한 채상적인걸(狄仁傑)이 이모 노씨에게 그 아들인 사촌 동생을 출세시켜 줄 수 있다고 하자, 이모 노씨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가 여황제(측천무후)를 섬기게 하지 말라 한 고사를 말한다. 《唐宋筆記注》 “仁傑啓曰：「某今爲相，表弟有何欲，願悉力從其意。」姨曰：「吾止有一子，不欲令事女主。」仁傑慚而去”

64 어떤 사람이……변증하였다 :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린 〈최문창사적변증설(崔文昌事蹟辨證說)〉에, 세상 사람들이 최치원에 대해 선학(仙學)의 원조(元祖)라고 하여 선학을 수련하여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묘는 호서(湖西) 홍산현(鴻山縣) 극락사(極樂寺) 뒤에 있다고 하였고, 서유구(徐有渠)의 〈계원필경서(桂苑筆耕序)〉에는 “묘는 홍산에 있다. 혹자는 홍산은 가야의 어느 산기슭의 이름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산(太山)⁶⁶도 한 명의 자유(子游)가 현가(弦歌)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한 곳으로, 사원(士元)이 작은 지방관인 뇌양현(耒陽縣)의 현령을 맡았던 것⁶⁷과 더불어 서로 거리가 아주 멀 뿐만이 아니니, 동향(桐鄉)⁶⁸의 사당으로서 비바람에 마멸되지 않은 채 우뚝하기가 영광전(靈光殿)⁶⁹과 같다. 우리 중종(中宗)의 성대한 시대에 영천(靈川) 신잠(申潛) 선생이 이 고을에 벼슬하여 오학당(五學堂)을 세워 선비들이 나아오도록 하였으며, 주자십훈(朱子十訓)으로 몸가짐을 하고 삼사(三事)로 문창후를

65 넓고 넓어서……있었다 : 포정해우(庖丁解牛)의 고사를 인용한 말로, 정사를 다스리는 데 뛰어난 재능으로 능수능란하게 처리함을 뜻한다.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에 “지금 나는 칼을 잡은 지 19년이나 되고 잡은 소도 수천 마리를 헤아리는데, 칼날이 지금 숫돌에서 금방 꺼낸 것처럼 시퍼렇다. 소의 마디와 마디 사이에는 틈이 있는 공간이 있고 나의 칼날에는 두께가 없으니, 두께가 없는 것을 그 틈 사이에 밀어 넣으면 그 공간이 넓적해서 칼을 놀릴 적에 반드시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66 태산(太山) : 《고운집(孤雲集)》 〈가승(家乘)〉에 의하면 886년(헌강왕12) 7월에 태산군(太山郡) 태수로 나갔다고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大山郡太守’로 되어 있으며 《동사강목》에는 ‘太山郡太守’로 되어 있고 그 주석에 ‘泰仁’으로 되어 있는데, ‘태산’은 충남 홍산(鴻山)의 옛 이름이며 ‘태산’은 전북 태인(泰仁)의 옛 이름으로, 현재의 전북 정읍시 칠보면 일대에 해당한다.

67 사원(士元)이……것 : 사원은 후한(後漢) 때 유비(劉備)를 섬긴 방통(龐統)의 자(字)로, 촉의 책사(策士)로 유명한 인물이다. 유비는 그의 재능보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여 방통을 뇌양현(耒陽縣)의 현령으로 보내버렸는데, 장비가 뇌양현을 갔다가 방통의 재능을 알아보고 유비에게 천거하여 군사 중랑장(軍師中郎將)이 되었다.

68 동향(桐鄉) : 한(漢)나라의 주읍(朱邑)이 젊었을 때 동향의 색부(畜夫)가 되어 선정을 베풀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자손이 그를 동향에 장사 지내자 백성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받든 일이 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일반적으로 고을 수령이 되어 은혜를 베풀고 고을을 말한다. 《漢書 卷89 循吏傳 朱邑》

69 영광전(靈光殿) : 마지막으로 홀로 남아 있는 건물이나 인물을 상징한다. 한(漢)나라 경제(景帝)의 아들인 공왕(恭王)이 산둥성 곡부(曲阜)에 건립한 궁전으로, 후한(後漢) 왕연수(王延壽)의 글에 “서경의 미양궁과 건장궁으로부터 모든 궁전이 파괴되어 허물어졌지만, 영광전만은 우뚝 홀로 서 있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빛나게 하여 고을 사람들이 생사당을 세워 공경하였으니 석경(石慶)이 제(齊)나라의 승상이었을 때의 고사⁷⁰를 쓴 것이다. 계림(鷄林)의 잎이 누렇다가 푸른 잎이 중흥한⁷¹ 이래 전후 700년간 지름길을 경유하지 않고 언(僊)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는 담대멸명(澹臺滅明) 같은 자⁷²가 고을에 없지 않지만, 불우헌(不憂軒) 정극인(丁克仁) 선생은 국조(國朝)의 명현(名賢) 중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장헌왕(莊憲王 세종(世宗)의 시호)에게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려 황폐해진 바른 길을 열고 남전향약(藍田鄉約)으로 백성들을 단속하여 고을 풍속을 크게 변화시켰다. 정언(正言) 벼슬로 치사(致仕)하고 영달을 구하지 않았으며, 고을의 자제들을 모아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놀암(訥菴) 송세림(宋世琳) 선생은 더러운 임금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정어린 간언을 잊지 않았으며, 방패로 연산군(燕山君)의 해의(解衣)를 방어하였다.⁷³ 중종(中宗)이 나라를 안정시키자 봉장(封章)을 올려 이단을

70 석경(石慶)이……고사 : 한 무제(漢武帝) 때 석경(石慶)이 제(齊)나라의 승상(丞相)이 되었는데,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 가문의 덕행을 사모한 나머지 말하지 않아도 제나라가 매우 잘 다스려졌다. 뒤에 제나라 사람들이 석상사(石相祠)를 세워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이 생사(生祠)의 시초이다. 《史記 卷103 萬石君列傳》

71 계림(鷄林)의……중흥한 :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한 시점을 말한다. 《동국통감(東國通鑑)》에 수록된 최치원의 말로, 최치원이 잠저(潛邸) 시절의 왕건(王建)에게 “계림의 잎은 누렇고 국령의 솔은 푸르다.〔鷄林黃葉，鵠嶺青松.〕”라는 편지를 보내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을 예언하였다고 한다.

72 지름길을……자 : 언(僊)은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의 이름인데, 자유가 무성(武城)의 읍재(邑宰)로 있을 적에 공자가 그에게 인물을 얻었느냐고 묻자, 대답하기를 “담대멸명(澹臺滅明)이라는 사람이 지름길로 다니지도 않고, 공사(公事)가 아니면 한 번도 언의 집에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論語 雍也》

73 방패로……방어하였다 : 해의는 한(漢)나라의 장수 한신(韓信)이 고조(高祖) 유방(劉邦)의 덕을 칭송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나를 입혀주셨다.”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하여 임금의 특별한 은총을 뜻한다. 송세림이 1498년(연산군4)에 진사가 되고 1502년에 알성시(謁聖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것을 특별한 은총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급제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상을 당하고 초상 중 병을 얻어 벼슬에 오르지

배척하고 백성들의 병통을 진달하였으며, 학규(學規)를 거듭 고쳐 몽매한 선비들을 가르쳤다. 묵재(默齋) 정언충(鄭彦忠) 선생은 몸소 효제(孝弟)를 실천하고 의리(義理)에 깊이 몰두하여 묘하게 상수(象數)의 오묘한 이치를 꿰뚫어 세상에서 훗날의 요부(堯夫)⁷⁴라고 일컬어졌다. 성재(誠齋) 김약목(金若黻) 선생은 학문은 취향을 바르게 하고 다스림은 청백(清白)을 근본으로 하여 학교를 일으켜 선비들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였다. 촉루(燭淚)라는 시를 다친 사람을 보듯 백성을 가엾게 여겼다.⁷⁵ 우리 급재(及齋)의 선친인 김관(金灌)은 진실하고 충담하며 학문에 성실하고 남을 잘 인도하였으며, 흉적에 물들지 않아 정묘호란 때에 의병을 모집하였다. 명천(鳴川)선생은 학자들이 호칭한 것이다. 이와같은 분들은 진실로 모두 호걸지사이고 성인(聖人)의 무리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음이 분명하니, 숙묘(肅廟)께서 정치를 개혁한 초기에 사액(賜額)을 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고종(高宗)이 왕위를 이은 뒤에 제사를 존속하라는 별단(別單)을 내렸으니, 이는 열성조(列聖朝)의 덕 있는 이를 높이고 어짐을 닮은 자에게 제사를 받들게 하는 깊은 은혜라 할 것이다. 오늘날은 옛 덕을 보기를 마치 짐새의 독을 섞은 술처럼 보고, 명교(名敎)를 버리기를 마치 쓸모없는 변모(弁髦)처럼 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금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오직 현인과 옛날을 보배로 여겨, 해마다 이어서 수리함으로써 더욱 새롭게 하고 유자(儒者)들이 이를 따라 감사함을 품고서 수백 년

않아 갑자사화를 면하였기 때문에, 방패로 방어하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74 요부(堯夫) : 송나라 소옹(邵雍, 1011~1077)의 자이다. 소옹은 학문이 깊고 역리(易理)에 밝아 세간만사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면서 자기 집을 안락와(安樂窩)라고 하고, 자기 자호를 안락 선생(安樂先生)이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생을 유유자적하게 지냈다.

75 촉루(燭淚)라는……여겼다 : 김약목의 묘갈명에 의하면, 명나라 장수 조도사(趙都司)가 한양에 와서 광혜군의 학정을 풍자하여 지었다는 시에 있는 “초의 눈물 떨어지는 곳에 백성의 눈물 같이 떨어지네.”라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써두었다고 한다. 《俛仰集 卷4 有明朝鮮國通訓大夫楊州牧使誠齋金公墓碣銘》

동안 경향이 없었던 나머지에 정실(庭實)을 진열하고 성대한 의식을 도모하는 것이 앞뒤로 많으니, 어찌 여러 선생의 유품이 백세가 지난 뒤에 듣는 자로 하여금 공경을 일으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유학의 도가 날로 다시 미약해지는 시기에 4척의 이수(虯首)에 새기는 것은 진실로 일제 강점 36년의 캄캄한 밤을 깨뜨린 뒤 큰 서광이 비취 사람의 뱃속을 따뜻하게 한 것이다. 문에 들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예악의 교화가 남은 이곳이 부자께서 빙그레 미소 지으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라고 했던 농담이 황홀하게 다시 들리는 것 같다. 군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은 부리기가 쉬워진다는 것이 모두 도를 배운 군자의 교화에 근본함을 알 것이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문창후께서는 우리나라에 태어나 뜻이 보통 사람과 매우 달라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문장과 학술이 중국에서조차 능가하는 이가 없었네. 금의환향하여 지방 수령이 되는 것도 달게 여겼건만, 돌아보건대 이 태산에 뛰어난 능력으로 작은 고을 수령을 지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고 황색 치마가 크게 길하다는 것은 점이 잘못되어 청산에 잠(簪)을 문었네.

영천(靈川) 신잠(申潛)이 수령이 된 것은 시대는 달라도 서로 부합하여 고을에 5학당을 지어 선비를 나아와 공자를 존모하게 하여 당시에功德비가 세워졌고, 생사당을 세웠으니 빠르도다.

진실하도다, 불우현은 맨 먼저 유학의 운에 응하여 포의(布衣)로서 불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한유(韓愈)와 동운(同韻)이고,⁷⁶ 향약을 시행하고 향음주례를 거행하니⁷⁷ 남전(藍田)의 유풍을 들었던 것이라네.

76 불교를……동운(同韻)이고 : 정극인이 1436년(세종18)에 올린 〈성균관에서 요승 행호를 베기를 청하는 소[太學請誅妖僧行乎疏]〉를 한유가 당 헌종(唐憲宗)에게 올린 〈논불골표(論佛骨表)〉에 비견하여 말한 것이다. 당시 승려 행호가 세종의 총애를 얻어 흥천사(興天寺) 주지가 되어 방자한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서울에 모임을 개설한 지 1년 만에 도첩(度牒)을 받고 승려가 된 이가 수만 명에 이르자, 정극인이 성균관 유생들을 거느리고 올린 상소이다. 《불우현집(不憂軒集) 권2》

눌암의 정성스러운 간언은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이단을 물리치며 백성의 병폐를 구제하고자 하였고, 개옥(改玉)하자 충성을 진달하였고⁷⁸ 향약의 발문(跋文)을 써서 유생들을 계발하였네.

목재는 효성스럽고 우애하여 모두 화락하였고 일찍 과거 공부를 그만두어 의리에 몸을 두고 고명(高明)한 데에 마음을 사색하였으니 후세의 요부(堯夫)로다.

성재는 곧고 강하며 박학(博學)과 심문(審問)을 지향하였고, 관직에 임해서는 빙벽(氷蘖)⁷⁹과 같아 임금께 옷을 하사받았으며,⁸⁰ 금옥군자(金玉君子)라 일컬었으니 흠양함이 이와 같았네.

명천은 가학(家學)이 있어 월봉(月峯)의 아름다움을 잘 이었으며⁸¹ 기쁨과 노여움을 드러내 지으니 기상은 봄바람과 같았고, 매사에 평탄하

77 향약을……거행하니 : 1475년(성종6)에 정극인이 마을에 향음주례를 마련하고 규약을 세워 서(序)를 지었다. 《불우헌집 권2 동중향음주서(洞中鄉飲酒序)》

78 개옥(改玉)하자……진달하였고 : 개옥은 반정(反正)과 같은 말로, 여기서는 중종반정을 가리킨다. 송세립이 1516년(중종11) 능성 현령(綾城縣令)으로 재직 중 방납(防納) 폐단의 제거, 책 인쇄로 인한 과중된 잡세(雜稅) 폐지, 군액(軍額) 충당을 위한 중[僧]의 추쇄(推刷)와 절의 소각, 우전입마(郵傳立馬)의 폐단에 대한 개선 등을 내용으로 개혁안을 상소한 일을 가리킨다.

79 빙벽(氷蘖) : 얼음과 황벽나무라로, 춥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굳게 절조를 지키며 청백하게 사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다.

80 관직에……하사받았으며 : 김약목이 1550년(명종5)에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부임하여 정사를 잘 처리하였는데, 이것이 조정에 알려져 명종으로부터 표리(表裏) 1습(襲)을 하사받은 일이 있다. 《俛仰集 卷4 楊州牧使同州鎭兵馬節制使誠齋金公行狀》 《명종실록 7년 11월 4일》

81 명천은……이었으며 : 명천의 증조부인 한정(閒亭) 김약회(金若晦)는 퇴계 이황과 하서 김인후와 종유하였고, 조부인 시암(詩岳) 김원(金元)은 문학과 행의가 있었으며, 부친인 월봉 김대립(金大立 1550~?)은 일재(一齋) 이항(李恒)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가동(家童) 수백을 거느리고 장성에서 의거하여 많은 공을 세웠다. 《金陵金氏四世稿》 《武城書院誌 七賢事蹟》

여 물처럼 넘실넘실 아름다웠도다.

생각건대 우리 무성의 7현의 영령이 감통하여 편액을 하사받고 길이
제사하니 성은(聖恩)이 넓고 커서 뜰에 비석을 세우니 백세토록 찬란하
게 빛나라.

때는 병자년 사액을 받은 뒤 262년 무술 10월 상완(上浣)에 금릉(金陵)
후학(後學) 김순(金蓊)이 삼가 짓다.

의성(義城) 후학 김동주(金東柱)가 삼가 쓰다.

후학 금릉 김용기(金龍基)가 경건하게 새기다.

55. 무성서원묘정비창건의연방명록

(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_ 75×159×44cm



무성서원묘정비창건의연방명록(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전 도의원(前道議員)	임종엽(林鍾燁)	김제
원장지사(院長知事)	이하영(李夏榮)	서울
도내장의(道內掌議)	허 현(許 炫)	김제
전 면장(前面長)	유상선(兪祥先)	정읍
	이규열(李圭烈)	옥구
원이군수(院貳郡守)	양창현(梁昌鉉)	남원
전 조합장(前組合長)	강동희(姜東曦)	김제
전 읍장(前邑長)	강태희(姜泰熙)	

	황금만(黃金萬)	
도유사(都有司)	김희진(金喜鎭)	강진
전 국장(前局長)	최찬택(崔讚澤)	부산
	오연호(吳然鎬)	김제
도내장의(道內掌議)	김제근(金濟根)	
	최병식(崔炳植)	
	모귀남(牟貴南)	
도의원(道議員)	송삼섭(宋三燮)	정읍
발전소장(發電所長)	윤석홍(尹錫弘)	서울
	정영혁(丁永赫)	광주
도과장(道課長)	홍석모(洪錫模)	부안
도내색장(道內色掌)	이주천(李柱川)	
전 국장(前局長)	장영복(張永福)	서울
참의원(參議員)	정문갑(丁文甲)	광주
	김상수(金相洙)	전주
도의원 일동(道議員一同)	전북(全北)	전북
금융단 일동(金融團一同)	전북(全北)	전북
도내장의(道內掌議)	서광옥(徐光玉)	정읍
전읍장(前邑長)	장길수(張吉洙)	
부읍장(副邑長)	황이성(黃二性)	신태인
	공일권(孔一權)	정읍
도유사(都有司)	강두환(康斗煥)	제주
면장(面長)	김생기(金生基)	정읍
	김용기(金鏞基)	전주
면장(面長)	은석표(殷錫杓)	정읍
전 군수(前郡守)	강우준(康祐俊)	제주
	정영식(丁永植)	광주
	김연흠(金演欽)	정읍
사장(社長)	정영찬(丁永贊)	목포
	박양언(朴良彦)	정읍
면장(面長)	박종기(朴琮基)	

	문종영(文鍾諤)	김제
면장(面長)	유재영(劉載英)	정읍
교육감(敎育監)	김용순(金容純)	고창
	김재흠(金在欽)	정읍
	송남호(宋南浩)	
	김기흥(金基興)	
면장(面長)	서병익(徐秉翊)	
면장(面長)	김성중(金聖仲)	
전 면장(前面長)	손성탁(孫聖卓)	
면장(面長)	이길용(李吉龍)	
면장(面長)	유귀남(柳貴男)	
전교(典校)	김창배(金昌培)	김제
도내장의(道內掌議)	정면현(鄭冕鉉)	순천
사장(社長)	김용기(金用基)	정읍
사장(社長)	김종문(金宗汶)	전주
전교(典校)	강범희(姜凡熙)	임실
	김옥기(金玉基)	정읍
	김환진(金桓鎭)	
	안동섭(安東燮)	
원장(院長)	김성환(金聲煥)	정읍
장의(掌議)	임종기(林鍾基)	부안
사장(社長)	김헌기(金憲基)	전주
	이철영(李鐵榮)	
면의원(面議員)	김생기(金生基)	정읍
	강사원(姜士遠)	
	이승우(李承友)	
	김상기(金相基)	
향교장의(鄕校掌議)	김학형(金學瑩)	순천
	이기우(李淇雨)	임실
장의(掌議)	심원순(沈元淳)	

	서병찬(徐丙贊)	
	김옥기(金玉基)	전주
	안종숙(安鍾淑)	정읍
	김종술(金淙述)	
	김원기(金源基)	
	김환길(金煥吉)	정읍
	송태섭(宋泰燮)	
	김여술(金麗述)	
	이교면(李敎冕)	
군수(郡守)	김운철(金允喆)	
도내장의(道內掌議)	이영춘(李永春)	부안
교육감(教育監)	김남규(金南奎)	정읍
전 색장(前色掌)	권영조(權寧祚)	
	박명규(朴明奎)	
	권태정(權泰晶)	
도내장의(道內掌議)	강한수(姜漢秀)	
전 색장(前色掌)	유석포(柳錫浦)	
참봉(參奉)	권영섭(權寧燮)	
	강여일(姜汝一)	
	황성옥(黃成玉)	
전 도의원(前道議員)	온영대(溫榮大)	김제
전 장의(前掌議)	배인술(裴仁述)	
	유상근(柳相根)	
전교(典校)	김재홍(金在洪)	옥구
사장(社長)	정두현(丁斗鉉)	
	김준기(金準基)	
	김원기(金元基)	김제
읍장(邑長)	최병규(崔炳奎)	
	황창용(黃昌龍)	
	최영식(崔永植)	

	박재동(朴再東)	
도내색장(道內色掌)	서재을(徐在乙)	김제
향교장의(鄕校掌議)	신석문(申錫文)	
	최동식(崔東植)	
전 장의(前掌議)	김병식(金炳晫)	
	김만엽(金萬燁)	
면장(面長)	최봉식(崔鳳植)	정읍
교육위원(教育委員)	송광섭(宋光燮)	
	오상호(吳相鎬)	
강재장의(講齋掌議)	강예민(康禮民)	제주
전 장의(前掌議)	이수진(李守珍)	
사장(社長)	강정옥(康丁玉)	
도내장의(道內掌議)	조동규(曹東圭)	순창
전 면장(前面長)	권승학(權承鶴)	정읍
	김환석(金煥碩)	
면장(面長)	최명욱(崔明郁)	
	김상술(金相述)	
사장(社長)	김창호(金昌鎬)	
전 면장(前面長)	오제호(吳濟鎬)	
	김정술(金正述)	
	이후연(李厚淵)	
	김중삼(金重三)	
	송영근(宋榮根)	
	송경종(宋京鍾)	강진
	김양기(金亮基)	정읍
전 면장(前面長)	김이화(金已化)	
	정호현(丁虎鉉)	광주
전 장의(前掌議)	하인권(河仁權)	정읍
사장(社長)	김병길(金炳吉)	
전 면장(前面長)	김봉규(金琤奎)	
	김요정(金堯政)	

면의장(面議長)	김 곤(金 坤)	
면의원(面議員)	유정렬(柳貞烈)	
	송기호(宋箕浩)	
면의원(面議員)	민병한(閔丙漢)	정읍
	김해원(金海源)	
	이동섭(李東燮)	
	서정규(徐廷珪)	김제
	오해옥(吳海玉)	
	이정관(李廷寬)	
향교장의(鄕校掌議)	황희경(黃熙炅)	
	김영환(金永桓)	정읍
	정병호(鄭炳鎬)	
	송봉섭(宋鳳燮)	
	강봉석(姜鳳石)	
지사(知事)	송호림(宋虎林)	광주
지사(知事)	김 인(金 仁)	전주
군수(郡守)	김성렬(金成烈)	장성
사장(社長)	신현두(申鉉斗)	광주
전 면의원(前面議員)	송영동(宋榮東)	정읍
전 면의원(前面議員)	김환옥(金煥玉)	
전 면의원(前面議員)	박오룡(朴五龍)	
면의원(面議員)	김동기(金東基)	
	김권중(金權中)	
전 장의(前掌議)	권진길(權鎭吉)	
	박병일(朴秉一)	
전 면의원(前面議員)	은희철(殷熙澈)	
집강(執綱)	권영옥(權寧玉)	
본원장의(本院掌議)	김용기(金龍基)	
본손장의(本孫掌議)	송기현(宋基玄)	
본손색장(本孫色掌)	정옥성(丁玉聲)	
	김인기(金麟基)	정읍

본손유사(本孫有司)	김종기(金淙基)	
	정동수(丁東秀)	
	김수환(金洙煥)	
	김환택(金煥澤)	정읍
	성봉용(成奉龍)	
	우제국(禹濟國)	
	김형기(金炯基)	정읍
	송영석(宋榮碩)	
	정용수(丁龍秀)	
	김사술(金仕述)	
	정성술(鄭聖述)	
	김흥기(金洪基)	
	김환준(金煥峻)	
	강정희(姜正熙)	
	안재권(安在權)	

신축년 5월 상순 총무 연안후인(延安后人) 전 참봉(前參奉) 색장(色掌)
 김종원金鍾元이 삼가 세우다.

56. 무성서원사적지정기념비기(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_ 김인기(金麟基) 지음, 77×213×52cm



문화재위원장 문학박사 김상기(金庠基) 서울시동송동(서울市東崇洞) 김제인
국립박물관미술과장 최순우(崔淳雨) 서울시궁정동(서울市宮井洞) 전주인
국회의원 박두선(朴斗先) 서울시흑석동(서울市黑石洞) 밀양인
국회예산결산전문위원 정영환(丁永煥) 정주읍하모리(井州邑下茅里) 영광인
전북지사 이환의(李桓儀) 영광서호몽해(靈光西湖夢海) 전주인
정읍군수 조영호(趙榮浩) 전주시노송동(全州市老松洞) 옥천인
도청 김인기(金麟基)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도강인
도유사 김재흠(金在欽) 서울시북선동(서울市北仙洞) 도강인
부유사 송영옥(宋榮玉) 정읍칠보시기(井邑七寶市基) 여산인
강한수(姜漢秀) 신태인남계동(新泰仁南溪洞) 진주인

	안동섭(安東燮) 정읍칠보신흥(井邑七寶新興) 순흥인
	김공서(金公瑞) 신태인표천동(新泰仁瓢泉洞) 청도인
	김용기(金用基) 정읍읍연지리(井州邑蓮池里) 도강인
총무	최봉식(崔鳳植) 정읍칠보건흥(井邑七寶建興) 전주인
	김형기(金炯基)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도강인
감동	김여술(金麗述) 정읍칠보삼리(井邑七寶三里) 도강인
	권찬순(權燦順) 정읍옹동칠리(井邑瓮東柒里) 안동인
	김호준(金鎬俊)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도강인
장부(掌簿)	김환길(金煥吉) 정읍칠보동변(井邑七寶東邊) 도강인
	송영달(宋榮達) 정읍칠보건흥(井邑七寶建興) 여산인
	송원용(宋元鏞) 정읍칠보삼리(井邑七寶三里) 여산인
경유사(京有司)	김현진(金鉉振) 서울시공덕동(서울市孔德洞) 도강인
의조원(義助員)	김봉술(金奉述) 전주동서학동(全州東西學洞) 도강인
	김용기(金龍基) 정읍칠보건흥(井邑七寶建興) 도강인
	김담술(金淡述) 정읍감곡통석(井邑甘谷通石) 도강인
	김영환(金永桓) 정읍칠보삼리(井邑七寶三里) 도강인
	김상기(金相基) 정읍산내소금(井邑山內巢禽) 도강인
	원준상(元俊常) 정읍북면마정(井邑北面馬亭) 원주인
	집(權文集) 정읍태인매계(井邑泰仁梅溪) 안동인
	규(朴正圭) 정읍칠보사식(井邑七寶沙湜) 밀양인
	근(李東根) 정읍칠보시기(井邑七寶市基) 전주인
	조(權寧祚) 전주시태평동(全州市太平洞) 안동인
	주(金東柱) 정읍칠보사리(井邑七寶四里) 의성인
	수(丁斗秀) 나주별양우산(羅州別良牛山) 영광인
	옥(徐光玉) 정읍정우삼산(井邑淨雨三山) 이천인
	술(金四述) 신태인정자리(新泰仁亭子里) 부안인
	언(朴良彦) 신태인표천동(新泰仁瓢泉洞) 밀양인
	규(林炯奎) 신태인신흥동(新泰仁新興洞) 나주인
	술(金才述) 정읍칠보삼리(井邑七寶三里) 도강인
	충(金煥忠) 정읍태인덕두(井邑泰仁德斗) 도강인
	진(孫邦珍) 정읍칠보여암(井邑七寶餘岩) 밀양인

현(丁鍾鉉) 정읍칠보백암(井邑七寶白岩) 영광인
 서(裴秉瑞) 정읍정우수금(井邑淨雨水金) 성주인
 일(崔泰鎰) 정읍정우산북(井邑淨雨山北) 전주인
 일(宋榮日) 정읍칠보시기(井邑七寶市基) 여산인
 술(金淙述) 정읍칠보삼리(井邑七寶三里) 도강인
 기(金德基)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도강인
 기(金元基) 김제만경황상(金堤萬頃黃裳) 도강인
 국(禹濟國)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단양인
 수(丁明秀) 부안백산원천(扶安白山元川) 영광인
 택(韓奎澤) 정읍칠보행단(井邑七寶杏丹) 청주인
 진(安興眞) 정읍태인증산(井邑泰仁甑山) 순흥인
 현(丁斗鉉) 군산시중앙로(群山市中央路) 영광인
 동(禹濟棟) 정주읍북호동(井州邑伏虎洞) 단양인
 희(姜正熙) 정읍칠보동변(井邑七寶東邊) 진주인
 기(金在基)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광산인
 진(南廷珍) 순천시장천동(順天市長泉洞) 의령인
 수(丁漢秀) 순천시장천동(順天市長泉洞) 영광인
 동(金煥東) 정읍칠보육리(井邑七寶六里) 도강인
 렬(申東烈) 신태인읍육리(新泰仁邑六里) 평산인
 기(金聖基)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도강인
 원(金鍾元) 정주읍원상동(井州邑元上洞) 연안인
 석(李正錫) 정읍칠보삼리(井邑七寶三里) 성주인
 술(崔三述) 정읍옹동구촌(井邑瓮東鷗村) 삭녕인
 균(申鳳均) 정읍칠보흥이(井邑七寶興二) 평산인
 이규현(李圭憲) 정읍칠보석탄(井邑七寶石灘) 함평인
 이희택(李喜澤) 정읍칠보시기(井邑七寶市基) 성주인
 정금수(丁金秀) 완주구이계곡(完州九耳桂谷) 영광인
 김환정(金煥政) 정읍칠보삼리(井邑七寶三里) 도강인
 홍재원(洪在述) 정읍산내사승(井邑山內四升) 남양인
 김복술(金福述) 정읍칠보도산(井邑七寶道山) 나주인
 최지홍(崔埤洪) 부안산내진서(扶安山內鎭西) 전주인

송영호(宋英浩) 정읍칠보복호(井邑七寶伏虎) 여산인
 권태경(權泰景) 정읍칠보외주(井邑七寶外舟) 안동인
 정영달(鄭永達) 정읍태인연정(井邑泰仁蓮汀) 경주인
 배이석(裴二錫) 정주읍명륜동(井州邑明倫洞) 익성인
 정병언(鄭炳彦) 정읍칠보복호(井邑七寶伏虎) 경주인
 박오룡(朴五龍) 정읍옹동노탄(井邑瓮東蘆灘) 반남인
 정병학(鄭炳學) 정읍칠보명천(井邑七寶鳴川) 경주인
 김종문(金宗汶) 전주시서노송(全州市西老松) 도강인
 서재경(徐在敬) 정읍칠보보림(井邑七寶寶林) 전주인
 이관신(李琯信) 정읍옹동오성(井邑瓮東五成) 전주인
 박병일(朴炳一) 정읍옹동매정(井邑瓮東梅井) 밀양인
 이주현(李周鉉) 신태인두지동(新泰仁斗池洞) 익산인
 김석기(金錫基) 정읍옹동내동(井邑瓮東內洞) 도강인
 김대환(金大煥) 정읍덕천우덕(井邑德川優德) 도강인
 송흥섭(宋興燮) 정읍북면가정(井邑北面柯亭) 여산인
 김용학(金容鶴) 광주시하백동(光州市荷白洞) 광산인
 박노찬(朴魯讚) 정읍정우화천(井邑淨雨花川) 밀양인
 송영석(宋榮碩) 정읍칠보송산(井邑七寶松山) 여산인
 권판길(權判吉) 정읍감곡승방(井邑甘谷勝芳) 안동인
 하관용(河官容) 신태인남계동(新泰仁南溪洞) 진주인
 강영일(姜永一) 정읍옹동칠석(井邑瓮東七石) 진주인
 신삼범(愼三範) 정읍칠보건흥(井邑七寶建興) 거창인
 이후연(李厚淵) 정읍칠보동변(井邑七寶東邊) 전주인
 전태봉(田泰峰) 신태인신시동(新泰仁新市洞) 담양인
 정복수(丁福秀)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영광인
 전복기(田福基) 정읍칠보장구(井邑七寶長久) 담양인
 황종기(黃宗琪) 신태인장교리(新泰仁長橋里) 창원인
 임혁규(林赫圭) 정읍칠보흥이(井邑七寶興二) 나주인
 최문길(崔文吉) 정읍옹동정동(井邑瓮東貞洞) 삭녕인
 안종숙(安鍾淑) 정읍칠보장구(井邑七寶長久) 순흥인
 김한석(金漢碩) 정읍칠보시기(井邑七寶市基) 도강인

김 곤(金 坤)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도강인
 이석주(李錫周) 정읍칠보동변(井邑七寶東邊) 전의인
 김옥기(金玉基) 정읍칠보복호(井邑七寶伏虎) 도강인
 송일호(宋一浩) 정읍칠보육리(井邑七寶六里) 여산인
 윤현득(尹賢得) 정읍칠보대흥(井邑七寶大興) 파평인
 김인섭(金仁燮) 정읍산외평동(井邑山外平洞) 의성인
 김상기(金相基) 정읍칠보도산(井邑七寶道山) 도강인
 송병호(宋丙浩) 정읍칠보육리(井邑七寶六里) 여산인
 송운섭(宋潤燮) 신태인신용리(新泰仁新龍里) 여산인
 박종남(朴鍾南) 정읍칠보백암(井邑七寶白岩) 밀양인
 한변수(韓邊洙) 정읍옹동노탄(井邑瓮東蘆灘) 금계인
 황규남(黃圭南) 신태인장교리(新泰仁長橋里) 창원인
 김환조(金煥祚) 전주시검암동(全州市劍岩洞) 도강인
 김태주(金兌周) 정읍태인태창(井邑泰仁泰昌) 경주인
 김동기(金東基)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도강인
 허 진(許 珍) 신태인표천리(新泰仁瓢泉里) 양천인
 정영동(丁永東) 정읍태인분동(井邑泰仁粉洞) 영광인
 조계식(趙啓湜) 정주읍중앙동(井州邑中央洞) 옥천인
 송병섭(宋柄燮) 신태인신흥리(新泰仁新興里) 여산인
 조양원(趙穰元) 신태인신시동(新泰仁新市洞) 한양인
 정희준(鄭熙俊) 정읍칠보복호(井邑七寶伏虎) 경주인
 송영동(宋榮東) 정읍칠보시기(井邑七寶市基) 여산인
 오상철(吳相喆) 정주읍연지동(井州邑蓮池洞) 해주인
 이교면(李敎冕) 정읍칠보석탄(井邑七寶石灘) 전의인
 권오식(權五植) 정읍칠보시기(井邑七寶市基) 안동인
 정보현(丁寶鉉) 정주읍하모리(井州邑下茅里) 영광인
 김형성(金炯星) 정읍북면대곡(井邑北面台谷) 김해인
 기용남(奇用南) 정주읍중앙동(井州邑中央洞) 행주인
 김일기(金一基) 정읍칠보동변(井邑七寶東邊) 도강인
 송삼섭(宋三燮) 정읍칠보시기(井邑七寶市基) 여산인
 김태환(金台煥) 정읍태인오봉(井邑泰仁五峰) 청도인

김영득(金榮得) 정읍칠보신흥(井邑七寶新興) 안동인
 오해완(吳海完) 정읍감곡승방(井邑甘谷勝芳) 해주인
 이홍낙(李洪洛) 전남해남성내(全南海南城內) 청안인
 정병길(丁炳吉)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영광인
 권혁상(權赫相) 정읍칠보대흥(井邑七寶大興) 안동인
 김일생(金日生) 서울시동교동(서울市東橋洞) 도강인
 김생기(金生基) 정읍칠보원촌(井邑七寶院村) 도강인
 정태진(鄭泰辰) 정읍정우망담(井邑淨雨望潭) 영일인
 김창기(金倉基) 정읍칠보백암(井邑七寶白岩) 도강인

본 서원은 실로 우리나라 서원의 시초이고, 고운(孤雲) 최선생(崔先生) 및 6현(六賢)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병자년 숙묘조(肅廟朝)에 사액을 받은 이후, 경재(卿宰)와 도백(道伯) 및 남북의 여러 선비들이 모두 숭상하고 받들어 그로 인해 도원(道院)이 되었다. 봄과 가을에 강마(講磨)하여 백일장을 열어 선비를 시험하는 일이 해마다 있어 학문을 장려하고 선을 권함이 이보다 뛰어난 곳이 없었으니, 호남의 인재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근래 새롭게 바뀐 이후로 규례가 마침내 폐지되자, 서원의 모습이 따라서 쇠잔해지고 제향 의식도 소략해져 추모하는 도리에 부끄러움을 금하기 어렵게 되었다. 서원의 유생 및 본손(本孫)이 함께 도모 주선하고, 또 정부가 독려하여 봄가을 제향에 필요한 물품과 서원의 수리를 도와서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풀렸다. 지난해 김상기(金尙基) 박사가 사림의 추천으로 원장(院長)의 자리에 올랐고, 국립박물관 최순우(崔淳雨) 과장과 함께 존현(尊賢)의 의리를 상의하여 협력 주선한 결과 작년 7월에 국가가 사적으로 본원을 지정하였다. 이때부터 서원 일원이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이는 서원이 창건된 이래 처음 있는 성대한 일이다. 도내의 인사들이 서로 축하하고 각자 성금을 출연하여, 한편으로는 봄가을의 제향 물품에 보태고 한편으로는 기념사업의 비용으로 쓰도록 했으니, 또한 쇠락한 시대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표장해야 할까를 여러 사람과 의논하니 빗돌에 새겨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나 또한 첨안(忝案)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글재주가 졸렬함을 헤아리지 않고 대강을 적었다.

단기 4302년 기유 7월 상한(上澣)에 도강(道康) 김인기(金麟基)가 삼가 기록하고 아울러 글씨까지 쓰고, 여산(礪山) 송성용(宋成鏞)이 전서(篆書)를 쓰다.

본원(本院) 상무 임원(常務任員)

유림 장의(儒林掌議) 김상기(金相基)

색장(色掌) 최봉식(崔鳳植)

본손 장의(本孫掌議) 김종기(金淙基)

색장 송원용(宋元鏞)

유사(有司) 김여술(金麗述)

57. 무성서원중수기념비(武城書院重修紀念碑)

_ 김인기(金麟基) 지음, 88×207×48cm



도청(都廳)

김택(金澤)

김병용(金炳庸)

김환풍(金煥豐)

유흥경(柳興慶)

송영조(宋榮祚)

도유사(都有司)

최영대(崔永大)

김병제(金炳祭)

차동진(車東珍)

부유사(副有司)

박종섭(朴鍾燮)

온성하(溫聖河)

총무(總務)	김인기(金麟基)
	긴현기(申鉉麒)
	김상수(金相洙)
	손두선(孫斗宣)
	송우회(宋羽會)
감리(監理)	백달인(白達寅)
	김용원(金龍源)
	김희수(金喜洙)
	최상식(崔庠植)
	노태원(盧泰源)
장부(掌簿)	이필서(李弼緒)
	박종간(朴宗玠)
	김성기(金成基)
	김환일(金煥一)
	서병완(徐丙玩)
장재(掌財)	권덕중(權德仲)
	문봉기(文鳳基)
	한종욱(韓鍾旭)
	조병필(趙炳弼)
	서정상(徐廷祥)
개찬(改纂)	노진상(盧鎭祥)
	박종원(朴宗遠)
	강상운(姜尙雲)
	김천두(金千斗)
	강하원(姜河遠)
	김낙준(金洛峻)
	김정술(金廷述)
	이배원(李培源)
	김병순(金炳順)
	강준희(姜準熙)
	이봉교(李鳳敎)

봉정(奉禎)

이종성(李鍾聲)
이현기(李鉉璣)
박병선(朴炳善)
박우서(朴佑緒)
박희동(朴喜東)
최현욱(崔顯旭)
박영근(朴永根)
문주태(文柱泰)
임동철(林東鐵)
강기형(姜基馨)
정종주(鄭琮主)
위희량(魏禧良)
김태익(金泰益)
김재영(金在榮)
홍종환(洪鍾煥)
오호영(吳鎬泳)
신송(申松)
양기석(梁冀錫)
홍종주(洪鍾柱)
장영규(張榮奎)
송주철(宋柱澈)
김창섭(金昌燮)
김동호(金東鎬)
박영권(朴永權)
신 색(申 穡)
박시현(朴時玄)
유정렬(劉貞烈)
김병수(金炳洙)
김채원(金采源)
윤재욱(尹在旭)
김권오(金權五)

조동규(趙東奎)
문창승(文昌承)
채수선(蔡洙瑄)
배재섭(裵在燮)
김성희(金聖喜)
한종효(韓宗孝)
문창설(文昌說)
고제순(高濟淳)
윤자필(尹滋弼)
이의완(李義琬)
문광석(文光碩)
김종실(金鍾實)
[김춘두\(金春斗\)](#)
박수학(朴洙學)
김후규(金厚奎)
강도석(姜道錫)
김정권(金正權)
조두열(趙斗烈)
송정만(宋正萬)
이상호(李相皓)
정병갑(丁炳甲)
윤태용(尹台鏞)
안화영(安華榮)
[홍화무\(洪化畝\)](#)
정병규(丁炳奎)
곽상만(郭祥萬)
최완택(崔完澤)
오병남(吳秉南)
박학종(朴鶴鍾)
조면섭(趙冕燮)
배동호(裵東鎬)

김석용(金錫用)
정대풍(丁大豐)
빈덕창(賓德昌)
소동규(蘇同奎)
김용진(金容辰)
정병섭(丁秉燮)
한인원(韓麟源)
염상수(廉祥洙)
왕상규(王相奎)
김동호(金東浩)
정해묵(鄭海默)
최병오(崔炳梧)
김용환(金容桓)
고원곤(高元坤)
양후섭(楊珦燮)
채규문(蔡奎文)
신현대(申鉉大)
김석기(金錫琦)
오창연(吳昶淵)
고성재(高聲在)
이신형(李臣炯)
정영민(丁永旻)
김병묵(金炳默)
김철수(金哲洙)
정기섭(丁基燮)
김용규(金容奎)
은성대(殷成大)
표기환(表基煥)
백낙구(白樂九)
고봉주(高奉柱)
황학현(黃鶴顯)

염종호(廉鍾湖)

모일환(牟日煥)

염동섭(廉同燮)

김공서(金公瑞)

송영옥(宋榮玉)

안흥진(安興眞)

지난 갑자년 여름, 본원이 도내 선비들의 여론으로 강회(講會)와 백일장을 열어 선비들에게 시험을 치르면서 학문을 권장하였는데, 그때 중수하자는 의논이 제기되어 당시 사람들이 의연금을 많이 출연하였고, 그로 인해 기념비를 세웠으니 이 비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외람되어 총무의 직임을 맡아 이 일을 감독하였는데, 왜놈들의 폭정 아래에서 면암(勉菴) 최선생(崔先生)의 거의(舉義)에 동의하였다는 오해를 잘못 입어 한 달여 구금되었고 여러 차례 해명에도 풀려나지 못하여 결국 폐기하여 깊숙이 감춰두었으니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거의 해방이 된 뒤에 서원 뜰 밖에 즉시 다시 세웠어야 하지만 경비가 부족하여 머뭇거리며 시일을 보내다가 이루지 못하였다. 중간에 옛 벗 광산(光山) 김희수(金喜洙)의 아들 용학(容鶴)군이 원임(院任)을 맡아 봉심한 뒤에 이를 보고, 개연히 탄식하며 “지금까지도 세워지지 못한 것은 후배들의 잘못이다.”라고 하더니,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여 서원 뜰에 우뚝하게 세웠으니 얼마나 훌륭한가. 아, 풍속이 쇠퇴하고 무너져서 이익과 욕심이 눈앞을 가리고 섞이는 때에 이 사람의 독실한 뜻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중론이 이 사람의 이 공은 언어로 전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래되면 없어질까 염려하여 나에게 사실을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사양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략 서술하여 드러낸다. 이 일을 감독한 사람은 원유(院儒) 최봉식(崔鳳植), 김재기(金在基), 김형기(金炯基)군이다.

단기 4301년 무신 9월 11일 도강(道康) 김인기(金麟基) 쓰다.

58.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

— 김성연(金成淵) 지음, 146×331×36cm

최고운(崔孤雲)과 신영천(申靈川)이 고을을 다스리고 이일제(李一齊)가 강학하며 불우헌 정극인, 눌암(訥庵) 송세림, 묵제(默齋) 정언충, 성제(誠齋) 김약목, 명천(鳴川) 김관이 이어 풍화(風化)하던 옛 태산(太山)이 고을은 군자향(君子鄉)이다.

고로 이곳에 무성서원이 서고 여기에서 선비들이 창의를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한말의 국운은 기울어 왜적은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강탈하니 이에 언론은 이를 규탄하고 일부 조신(朝臣)과 전국 각 처의 유생들은 늑약의 무효와 오적의 참수를 상소(上疏)하다. 시종무관(侍從武官)

민영환(閔泳煥)이 고동포문(告同胞文)을 남기고 자문(自刎), 자결함에 순국하는 열사가 잇따르니 항왜 의병활동이 격화(激化)하여 이듬해 병오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때에 일어난 무성서원의 병오창의는 호남의 다수 의사들이 최익현(崔益鉉)을 맹주(盟主)로 기치(旗幟)를 든 것이다.

이를 계기로 그 기세가 호남 전역에 떨쳤다. 당초 최익현은 을사늑약의 파기를 상소하고 왜적의 죄상을 통박(痛駁)하여 왜정부(倭政府)와 외국 공관에 보냈으나 대세를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통분하던 중 문인 고석진(高石鎭), 최제학(崔濟學)이 정론(正論)을 받아들여 호남으로 내려



와 정읍군(井邑郡) 산내면(山內面) 종성리(宗聖里)에서 거사 준비 중인 임병찬(林炳瓚)과 창의하기로 하니 이는 고석진의 식견과 최제학의 국량(局量) 그리고 임병찬의 경론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병찬이 최익현을 맞아 집지례(執贄禮)를 올리자 스승인 최익현은 임병찬에게 의군의 병권(兵權)을 일임하니 병오 3월 초1일의 일이다.

최익현은 동지들을 순방하던 중 진안(鎭安) 최제학의 장수처(藏修處)인 삼우당(三友堂)에서 이호용(李浩鎔), 정백현(鄭栢鉉) 등과 방책을 논의하며 각 처에 제후를 청하고 종성리로 돌아와 내방 의사(義士)들을 접견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창의소에 출입한 의사 중 기우만(奇宇萬), 고광순(高光洵), 김상기(金相璣), 이항선(李恒善), 이석용(李錫庸), 이규홍(李奎弘), 양윤숙(楊允淑) 등은 이 거사 후 각 처에서 의진을 영도(領導)하였다.

한편 임병찬은 결정된 거사일인 윤4월 13일에 김영상(金永相), 김기술(金箕述), 김직술(金直述), 유종규(柳種奎), 권재일(權在一) 등의 협조로 무성서원에 유림을 모으고 포수를 불러 모았다. 최익현은 4월 초2일에 창의소를 올리고 초8일 담양(潭陽) 용추사(龍湫寺)에서 기우만 등 유림 50여 명과 회동하여 동맹록(同盟錄)을 작성하고 격문을 각 읍에 띄웠다.

4월 13일 무성서원에 당도한 최익현은 먼저 봉심(奉審)하고 김균(金鰲)에게 시도기(時到記)를 적게 하였다. 강회를 마친 다음 창의할 뜻을 밝히니 원종자(願從者)가 80여 명이었다. 이때에 임병찬의 의병 100여 명이 합세하니 부서를 정한 다음 대오를 정돈하고 바로 태인읍(泰仁邑)에 들어가 읍민을 모아 창의 사실을 알리고 왜적의 16대 죄 성토문을 왜 공관에 발송하고 바로 현내 무기를 거두었다. 이때에 김우섭(金禹燮)이 여러 명과 함께 종군을 원하므로 잔류하여 첩보할 것을 명하였다.

14일 정읍에서 또 무기를 거두고 내장산에 진을 치고 있던 중 고용진(高龍鎭), 김재구(金在龜), 강종회(姜鍾會)가 영솔한 포군 30여 명이 가세하니 의병이 100여 명이 되었다.

15일 손종궁(孫鍾弓)이 이를 좌우익(左右翼)으로 진을 나누어 한 곳에서 조련하니 군용이 숙연하였다. 진군 중 구암사(龜岩寺)에 숙영하는

데 채영찬(蔡永瓚)이 포수 수십 명을 인솔하여 입진(入陣)하였다.

16일 순창(淳昌) 읍민의 환영을 받고 수성장(守城將)을 불러 총포를 거두자 포수 10명을 이끌고 황균창(黃均昌), 김갑술(金甲述), 양윤숙(楊允淑) 등이 오니 강종회(姜鍾會)를 화포장(火砲長), 김갑술(金甲述)을 수포수(首砲手)로 삼아 정군(整軍)하고 바로 왜병 일대를 격퇴하였다. 곡성, 순창을 순회 중 의병 수는 배증(倍增)하고 또 김송현(金松鉉), 엄덕조(嚴德祚)가 포수 수십 명을 이끌고 와 총 군대 수는 600명이 되고 19일에는 800명에 이르렀다. 순창읍에서 또 왜병 수십을 격퇴하고 문서와 무기 등을 노획하였다.

20일 왜적의 앞잡이 진위대가 전후로 협공해오니 최익현이 동족상잔은 불가하다고 하여 그들에게 퇴거하라 하고 의병도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의병 100여 명이 차마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진위대가 사격을 해오니 총성이 진동하고 총탄이 비 오듯 하였다. 이때 정시해(鄭時海)가 적탄에 순국하고 임병찬, 고석진, 김기술(金箕述), 유종규(柳鍾奎), 최제학, 문달환(文達煥), 임현주(林顯周), 조우식(趙愚植), 조영선(趙泳善), 나기덕(羅基德), 이용길(李容吉), 유해용(柳海瑤), 양재해(梁在海) 등 13의사(義士)가 최후까지 맹주와 더불어 남아 곧 피체되어 형옥을 치렀다.

이 밖에 막하(幕下)에서 호위하던 의사 채영찬, 김갑술이 있어 이들로 하여금 기밀 문서를 비장(秘藏) 탈출하도록 하였다.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에 감금된 최익현은 그해 11월 17일 끝내 항왜 순절하고 임병찬은 후일 고종황제의 밀지로 다시 거의(擧義)하려다 구금되어 거문도에서 순절하며 제 의사(義士)들도 각 의진에서 맹약(猛躍)하였다.

아. 장렬하도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죽은 가을에 단심(丹心)을 가진 늙은 최익현 선생과 의혈이 충만한 호남 의사 제공들이여. 이곳 무성서원에서 드높인 거위의 깃발이여. 이 거룩한 사적을 길이 흠모 기념하고자 각계 인사들의 뜻을 모아 이 비를 세우다.

단군 기원 4325년(1992) 임신(壬申) 11월 17일 정읍군수(井邑郡守) 김성연(金成淵)이 짓다.

경주(慶州) 정태선(鄭泰善) 서면(書面)

울산(蔚山) 김종섭(金鍾燮) 서(書)

강진(康津) 김환재(金煥在) 수(杼)

59. 사인 김인기 불망비(士人金麟基不忘碑)

_ 김환각(金煥珏) 지음, 64×180×43.5cm



뜰에 비석을 세우는 것은 비석을 세우고 그 위에 새겨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가만 생각건대 무성(武城)은 서원을 세운지 오래되었건만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일정치 않았고, 우리 사직이 망하고부터 쇠락하고 무너짐이 날로 심하니 봄풀만 무성하고 오는 사람 없는 탄식이 과연 어떠한가. 지난 갑자년 봄에 김인기 군이 원색(院色)을 맡아 개연히 일신할 방도를 도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척심(尺尋)을 따지지 않고 한 결과 4년 만에 일이 완성되었으니, 훌륭한 장인이 홀로 애쓰는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원의 자산이 영세하여 제수(祭需)를 댈 수 없는 것을 가장 우려하여 마침내 한두 명의 뜻있는 사람에게 토로하여 토지 한 구역을 헌납함으로써 희생(犧牲)과 기명(器皿)과 의복이 거의 의식에 맞게 갖추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아, 지금

은 세상에 없을 사람의 정성을 분명하게 일으켰으니, 누가 사람의 아름다운 덕을 좋아함을 이와 같이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에 원의(院議)에 한결같이 그 공적을 말하여 새길만하다고 하면서, 내가 명천옹(鳴川翁)의 후예이고 김인기 군과 종인(宗人)의 교분이 있으므로 본 바를 기록하기에 나만큼 상세히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기록해주기를 부탁하였다. 이후로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가 아름다움과 성대함을 보고, 동그렇게 읍양하는 자가 충둔(充脣)⁸²을 고한다면, 이 말이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글씨를 훼손하는 자로 하여금 경계할 바를 알게 해야 할 것이다.

기사년 동짓날 강진(康津) 김환각(金煥珪) 짓다.

참봉 김제(金堤) 김연호(金然灝) 전서(篆書)

유림 유사(儒林有司) 이용학(李容學)

최동근(崔東根)

본손 유사(本孫有司) 김환성(金煥星)

정남명(丁南明)

승록대부(崇祿大夫) 전(前)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 쓰다.

82 충둔(充脣) : 나라의 제사에 쓰던 살찌고 투박한 희생(犧牲)을 말한다. 제사 하루 전에 헌관(獻官)과 감찰(監察)이 주방(廚房)에 나가 소·돼지 또는 양의 충실한 정도를 검사하여 합격한 짐승만을 희생으로 쓰게 하였다.

60. 영상 이공최응 불망비(領相李公最應不忘碑)

성현을 존숭하고 덕을 숭상하고
보노복호(保奴復戶)하고 중창하니
많은 공훈과 뛰어난 업적으로
제수를 잘 갖추고 청렴하였다.

尊賢尙德
保復重勳
豐功盛烈
柔牲愈潔



61. 전 감역 정문술 중수 의조비(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_ 김환풍(金煥豐) 지음, 80×147×11cm



원장(院長)	교리(校理)	김진호(金鎭祐)
집강(執綱)	직원(直員)	강희순(姜禧淳)
훈장(訓長)	유학(幼學)	유병양(柳秉養)
진신장의(摺紳掌議)	도사	최익환(崔翼煥)
오위장(五衛將)		노재용(盧載庸)
가선(嘉善)		최용식(崔庸植)
도내 장의(道內掌議)	참봉	박연유(朴淵維)
	참봉	이형로(李亨老)
색장(色掌)	도사(都事)	최봉환(崔鳳煥)
본재 재장(本齋齋長)	참봉	권기수(權沂洙)
장의	진사	최영대(崔永大)
색장	유학	김두홍(金斗泓)
유림 장의(儒林掌議)	유학	우공진(禹功鎭)

	유학	한길수(韓吉洙)
색장	참봉	김두홍(金斗泓)
직월(直月)	참봉	김병용(金炳庸)
직월		김정술(金廷述)
중수 도유사(重修都有司) 교관(敎官)		김직술(金直述)
부유사(副有司)	유학	권재일(權載一)
참봉		이재우(李在宇)
본손 유사	참봉	김영주(金永冑)
참봉		정한옥(鄭漢郁)
감동(監董)	유학	송병섭(宋炳燮)
	유학	김환진(金煥珍)
문부 유사(文簿有司)	유학	김환일(金煥一)
	유학	조관영(趙涓榮)

본 서원은 도원(道院)이다. 훼손 되는대로 보수하는 것은 사림(士林)의 책무이다. 그동안 사기(士氣)가 시들고 서원의 모습도 쇠잔해졌다. 이에 감역(監役) 정문술(丁汶述)이 현인을 사모하고 의리를 숭상하여 돈을 출연하여 중수하고자 권재일(權在一)씨에게 일을 맡겼다. 한 달 만에 공사가 완공되자 백일장을 열어 선비들을 시험하고 학문을 권하였다. 아름다운 사적이 없어질 것을 걱정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 비석에 새기고 나에게 사실을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내가 글을 못한다고 사양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마침내 이와 같이 기록하였다.

정사년 맹하(孟夏)에 강진(康津) 김환풍(金煥豊)이 짓다.

62. 전 의관 이경희 불망비(前議官李慶熙不忘碑)

_ 김환풍(金煥豐) 지음, 67×160×44cm



【현인을 존중한 그 뜻 한 조각 비석에 담았으니, 서원의 모습을 중창한 것 어찌 잊을 수 있으리오.】

불망비 기(不忘碑記)

사업은 옛사람이 이른바 삼불후(三不朽) 가운데 한 가지이니, 비석을 세워 기록하되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잊지 않으려는 뜻이다. 본 서원은 도원(道院)이기에 모든 수용(需用)이 다른 곳에 비해 크고 많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 의관 이경희(李慶熙)는 경주(慶州)의 명망 있는 집안 사람인데, 은혜를 잘 베풀기로 향리에서 칭송을 받았다. 이 서원을 중수하는 일에 즈음하여 남보다 더 많은 기금을 출연하였고 토지를 기부하여 봄가을의 제향 비용과 초하루와 보름의 공궤(供饋)가 영구히 이어지기를 도모하였으니, 서원이 생긴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사람의 이 공적에 대한 칭송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
어찌 돌에 새길 것이 있겠는가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생각
이 달라지니 잊지 않으려는 뜻에 비석이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
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 나에게 글을 부탁하였기에 대강의 사실
을 기록하였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김병용(金炳庸), 김인기(金麟基),
최상식(崔庠植), 김성기(金成基), 송영조(宋榮祚), 김용원(金龍源)이다.

을축년 중춘(仲春) 상한(上澣)에 도강(道康) 김환풍(金煥豐)이 짓고, 진
사(進士) 여흥(驪興) 민영석(閔泳碩)이 쓴다.

승록대부(崇祿大夫) 전(前)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해평(海平) 윤용구
(尹用求) 쓴다.

63. 전 참봉 주찬형 기공비(前參奉朱燦馨紀功碑)

_ 이병관(李炳觀) 지음, 64×181×44cm



무성서원 현우 중수 기공비 서(武城書院賢宇重修紀功碑序)

현인은 성인이 되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이 되기를 바라서 덕을 숭상하고 진전을 장려하는 것이 사문(師門)을 적전(嫡傳)하는 정맥(正脈)이다. 태인의 무성서원은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과 영천(靈川) 신잠(申潛) 두 선생이 학문을 창도하고 은혜를 남긴 고장이기에 사당을 세워 영령을 모셨고, 다섯 현인을 추가로 배향하였으니 이는 창주정사(滄洲精舍)⁸³에서 배식(配食)한 뜻을 모방한 것이다. 서원이 창설된 지 아

83 창주정사(滄洲精舍) : 남송 시대 주희(朱熹)가 고정촌(考亭村)에 선친을 그리워하여 집을 짓고 창주정사(滄洲精舍)라고 하였는데, 주희 사후인 1244년에 고정서원(考亭書院)으로 사액(賜額)되었다. 앞에는 명륜당(明倫堂)을 짓고 또 그 앞에는 연거묘(燕居廟)를 세워 공자를 모셨는데, 공자의 상(像)을 중앙에 배치하고 안자(顔子)·증자(曾子)·

득하여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현우(賢宇)의 용마루와 문미가 기울고 비뚤어져 무너졌기에 이내 보수할 뜻을 두고서도 물력이 넉넉지 못하여 이루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성내(省內)의 선사(善士)인 전 참봉 주찬형은 바로 주자(朱子)의 후예로서 사대부이면서 장의(掌議)를 맡아 봉심(奉審)하고 제사 돕는 일을 해마다 매우 충실히 하였는데, 올 여름에 큰 재물을 출연하고 중수에 힘써 번듯하고 아름답게 하여 새롭게 만들었으니, 나무 하나로 지탱할만한 것이 아니었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처음에 일을 마치지 못했는데도 사람들이 신뢰를 하였으니 세상에 드문 큰일이었다. 능성(綾城)의 향교를 보수한 일에 비하면 이 일은 몇 곱절이나 더 큰일이니 온 나라를 통틀어도 모두가 과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종자(從子) 곤(坤)은 이미 문장과 행실이 홍유석학(鴻儒碩學)인데 또 현인을 사모함을 이어받아 곁에서 모시며 대신 행하여 시종 힘썼으니 얼마나 훌륭한가. 아, 옛적에 엄 선생(嚴先生)의 사당을 범중엄(范仲淹)이 중수하였고,⁸⁴ 한문공(韓文公)의 묘비(廟碑)를 왕척(王滌)이 중수하였으니,⁸⁵ 모두 재임 중에 한 일이다. 이 사람의 이 일은 인(仁)에서 우리나라와 공을 잊었으니 아, 숭상할만하다. 현가(弦歌)의 고장에 선비들이 모여들어 이 일에 서원에서 속식

자사(子思)·맹자(孟子)를 북쪽에 상위로 하여 서향으로 배치하였으며, 주돈이(周敦頤)·정이(程頤)·사마광(司馬光)·이동(李侗)을 동쪽에 차례로 배치하고 정호(程顥)·소옹(邵雍)·장재(張載)를 서쪽에 차례로 배치하였다. 《朱子大全 附錄 卷6 別本年譜》

84 엄 선생(嚴先生)의……중수하였고 : 송(宋)나라 범중엄(范仲淹)이 일찍이 엄광이 태어난 엄주(嚴州)의 태수(太守)가 되자, 그의 맑은 절개를 추모하여 사당을 세워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고 사당의 기(記)를 썼으니, 이것이 곧 〈엄선생사당기(嚴先生祠堂記)〉이다.

85 한문공(韓文公)의……중수하였으니 : 소식(蘇軾)의 〈조주한문공묘비(潮州韓文公廟碑)〉에 조주(潮州) 사람들이 학문을 몰랐는데 한유가 조주 자사가 되어 조덕(趙德)을 시켜 가르치게 하니 선비들의 문행(文行)이 독실해졌고 일반 백성에게까지 미쳐서 다스리기 쉬워졌으며, 이후 왕척(王滌)이 이 고을을 맡으면서 공의 사당을 새로 짓기를 원하면 들어주겠다고 하니 백성들이 기꺼이 달려와 터를 잡은 지 1년 만에 사당이 완공되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東坡全集 卷86》

하며 정성을 다하였다. 외부에 출입하며 빠진 부분을 보충한 자는 시임(時任) 김환풍(金煥豐)과 이희원(李熙元)이다. 서원의 의견을 편지로 보내 나에게 기공비문을 청하기에 장려하며 허락하였다. 마침내 돌에 썼으니, 글자 밖에서 뜻을 찾는 것은 현인을 좋아하는 군자가 바로잡기를 기다린다.

경오년 중추(仲秋) 상완(上浣)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원임(原任) 규장각부제학(奎章閣副提學) 연안(延安) 이병관(李炳觀)이 짓고, 의성(義城) 김동주(金東柱)가 쓰다.

64. 진사 최영대 영세 불망비(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_ 김종한(金宗漢) 지음, 81×190×52cm



《어(語)》에 “임금의 집안이 인을 행하면 온 나라가 인한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어질면서 효도하고 우애하지 않는 자는 있지 않고, 또 어질면서 베풀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는 있지 않다.”라고 하였다. 어느 날 정읍 치소의 김인기(金麟基) 군이 와서 고하기를 “진사 최영대씨는 전주의 명망 있는 집안사람으로 제 장인인데,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여 아버이를 섬길 때에는 몸을 다 아울러 봉양하였고, 형제간에 우애하여 재산을 나누지 않았습시다. 집안의 저축이 조금 넉넉해지자 궁핍한 사람을 두루 구휼하였으니, 재물을 축적하되 잘 흘려 베풀 줄을 알았습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법도에 맞아 사우(士友)들로부터 추중(推重)을 받았습시다. 경신년 봄에 기금을 내어 공사를 감독해서 공부자(孔夫子)의 영전(影殿)을 이건(移建)하고 토지를 기부하여 제사 지낼 밀천을 만들었으며, 무성서원에 또 전토(田土)를 소속시켜서 봄가를 제수(祭需)를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도와 군의 선비들이 의

논하여 장차 비석을 세워 공로를 기록하고자 저로 하여금 집사를 찾아
 뵈고 글을 부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감히 좋아한다고 아부하는 것
 이 아니라 실로 사람들의 여러 의견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
 를 “아, 공처럼 평소 집안에서의 행실이 순수하게 구비되신 분이 어찌
 이처럼 명성과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사람에게 공덕이 있으면 비
 석을 세워 그 행적을 오래도록 전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다. 그
 러나 정려와 증직의 전례가 지금은 없으니 이는 한탄할만하다.”라고
 하였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효우(孝友)로 집안을 다스리고 시례(詩
 禮)로 몸을 윤택하게 하였네. 어두운 거리에 경종을 울리고 길 잃은 나
 루에서 배로 건네주었네. 성인과 현인을 사모하여 땅을 떼어주고 돈을
 기부하였으니, 이 비석 영원하여 지나는 자 경의를 표하리라.”

정묘년 맹하(孟夏)에 승록대부(崇祿大夫) 예조 판서(禮曹判書) 원임(原
 任)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 안동(安東) 김종한(金宗漢) 짓고, 도강(道
 康) 김인기(金麟基) 쓰다.

유사(有司)	유학(幼學)	권재일(權在一)
의관(議官)		전의석(田義錫)
부유사(副有司)	참봉(參奉)	강기형(姜基馨)
		서인환(徐仁煥)
장의(掌議)	유학	김환풍(金煥豐)
	참봉	최기우(崔麒宇)
색장(色掌)	유학	김상수(金相洙)
		한규택(韓奎澤)

승록대부(崇祿大夫) 전 판돈녕원사(前判敦寧院事) 해평(海平) 윤용구
 (尹用求) 쓰다.

65. 통정대부 전 비서감승 신용희 불망비(通政大夫前秘書監丞申瑬熙不忘碑)

_ 김환풍(金煥豐) 지음, 60×142×17.5cm



서원은 학교와 표리를 이루니,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들어 사모하고 학문을 익힐 줄을 안다. 그러나 서원을 처음 설립하고 수리하는 것은 모두 사림(士林)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학교보다 몇 곱절이 되고, 선비로서 서원의 일에 힘을 쏟는 자가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서 때때로 무너지고 비가 새어 온전치 못할 근심이 있다. 갑자년에 남북의 선비들이 본 서원을 중수하기로 논의하여 이 해 가을에 현우(賢宇)를 중수하고, 다음 해 봄에는 강당(講堂)을 중수하고 현가루(絃歌樓)의 기와를 개수하는 일에 이르러 힘을 다 쏟아 마침내 완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장수재(藏修齋)가 무너지고 문루(門樓)의 기둥이 썩어가며, 담장이 무너지고 고사(庫舍)의 기울어짐이 또 심했지만 미처 겨를이 없었다. 재정이 부족하고 힘이 미약해졌지만 만약 지금을 넘기면 비록 수리하고 싶어도 일을 하기 어려우리란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전 비서감 승을 지낸 신용희씨는 평산(平山)의 명망 있는 집안으로, 그 심덕

(心德)은 자애롭고 선하였고 그 사업은 현인을 존모하는 것이었다. 선비들의 여망으로 본 서원의 이장(貳長)이 되어 지알(祇謁)한 뒤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계획해서 서원 유자들 가운데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김병용(金炳庸), 김인기(金麟基), 이필서(李弼緒), 이기순(李機淳)을 선택하여 일을 맡겼는데 몇 달이 되지 않아 준공되었다. 또 전토를 마련하여 서원의 제향을 풍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많은 선비들이 미처 바라지 못한 일이었다. 아, 돌아보건대 지금 세상은 이욕이 도도한데 진실로 사문(斯文)을 독실히 좋아하고 실제로 성현을 존모하는 데 뜻을 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유생들이 장차 비석을 세워 공적을 기록함으로써 영원히 잊지 않는 뜻을 보이고자 하여 나에게 글을 청하였다. 나 역시 남의 선한 점을 즐겨 말하는 사람이기에 마침내 사양하지 않고 기록하였다.

을축년 10월 상순에 도강(道康) 김환풍(金煥豐)이 짓다.

예조 판서 규장각 학사 안동 김종한(金宗漢)이 쓰다.

송록대부(崇祿大夫) 전(前)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 윤용구(尹用求) 쓰다.

66. 현감 서후호순 불망비(縣監徐侯灝淳不忘碑)

_ 58×158×15cm



훼손으로 판독 불가

67. 현감 이후정식 불망비(縣監李侯定植不忘碑)

_ 68×161×48cm

보노복호(保奴復戶)를 옛날처럼 하고
진실로 성현을 우러러 그리워하니
덕행과 덕화(德化)를 자주 베푸니
그 뛰어난 행적을 비에 새기다.

保復遂舊
誠深慕仰
忝芬重馨
頌溢刻銘



IV. 무성서원 현판 원문

1. 무성서원(武城書院) _ 편액



2. 태산사(泰山祠) _ 편액



3. 강수재(講修齋) _ 편액



4. 현가루(絃歌樓) _ 편액



5.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庸曰齋明盛服以承祭祀洋洋乎如在其上如在其左右夫祭致其嚴精潔盛服能致如在之誠凡院祠必有齊服不欲以燕服行祀所以致其敬也我武城書院全道士林所尊奉而凡俱完備降自季世人心澆薄無有表誠者故徒想不已幸茲禹濟棟安興眞金鎬俊三君審院來曰以若至重賢院齊服如此敗(陋)尊嚴之義果安其非士林之恥耶敢請某等雖微力自當裁呈矣遂鳩力而成新服服新精潔而薦尊所謂如左右必至矣噫諸君以不贍之財能敬而獻忱其慕賢衛道之心果何如人人皆以此爲心士林烏有無人之患乎院任金炯基君囑不佞記余亦嘉尙書此以示後之人
丙午三月日道康金麟基記

執綱	權寧玉
掌議	金東柱
色掌	李教冕
本孫掌議	金淙述

本孫色掌 宋正燮

本孫有司 金東基

原

6.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院案之任員付銜其規舊
矣上自公伯至各郡守宰
及紳士曰誰曰某曾有所
經歷而非其人則難矣嘉
善崔庸植與其族弟錦南
廷植系出全州故議政府
左贊成諱有慶號竹亭諡
平度公後裔也自湖西寓
居於金堤而其清德雅操
足以師世範俗今年秋遂
公議付搢紳掌議之任矣
居無何兩氏鼎來四隣咸
集茶罷見院貌之蕭索聞
約嘗之薄略慨然興歎出
金爲拮据小補之資物輕
義重見今滔滔者天下過
泗水而不見孔子者多而
惟其慕賢之心不以身老
道遠爲苦既審且助苟非
名門賢仍豈庸若是慕義
觀德將欲不尸其功故錄
其名于楹爲人觀感云爾
柔兆執徐冬十月日
講長延安金思謙謹識
直月康津金直述

7.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夫設校宮建院祀朝家之盛典縫掖首善之重地而校院之興廢在於守宰尊慕之如何矣昔柳刺史之治柳州也大修夫子之廟范文正之守嚴州也始奠先生之祠皆莫非尊賢重祭之義也本院自肅廟朝丙子賜額因爲道院享需之節依禮奉行矣自甲午新式以後舊章仍寢先賢享需之節多士供億之資只有所費別無所補存是院去其例則市脯不足備邊豆儀物無以稱柔盛冠儒服儒者莫不齊歎慕賢尊賢者孰敢越視於是乎道內章甫公議齊發本郡本面庖肆付于本院需脯次儒林黃基煥金直述權鍾林金邦勳柳種奎·金炳庸累呈府郡出題飭成節目稅金以六十兩定數自齋中上納而以補春秋享祀之需遠近章甫之供矣是歲夏所謂派員輩罔念道理肯欲侵責幸茲趙相公漢國氏殿南服孫侯秉浩氏守是邦也帝院長院貳之任而特出慕尚之誠敬薦俎豆之禮公政一出儀物復新上以答聖朝崇獎之恩下以副章甫輿顙之望存羊之義視牲之禮回粗而轉潔反薄而爲豐其一省內頌德之聲百世下不朽之蹟可肩於古之柳刺史

范文正矣將欲登梓壽後不揆譾劣
因揭顛末爲之記

壬寅菊秋康津金直述謹記

8.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衛道而尊賢崇德而報功寔繼往
聖開來學其義一也本院卽文
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主享之
道院也配以鄉之五賢五賢乃不憂軒
丁先生訥菴宋先生默齋鄭先生誠
齋金先生鳴川金先生也

肅廟丙子賜額武城一倣子游文治
故事戊辰撤院之後院貌凋殘春秋
享祀之禮朔望焚香之節萬無其
理而惟道內掌色出義出力僅僅成
樣者況至于今儒道百六之運極矣
何幸道內搢紳掌議從二品金昌喜
慨然乎瞿然乎院貌之凋殘出義
助金以補萬一士烝賴而不墜其非
補世教之狀德者烏能如是乎
於是士論齊發請誌其功於院壁
以俟夫後來僉君子象德者咸曰
可而因揭其顛末云爾是歲丙午
春三月

日	鳴川先生九代孫	金秉述謹記
搢紳講長	金溝郡守	閔泳晉
執綱	井邑郡守	宋鍾民
掌議	從二品	金昌喜
儒林掌議		柳種奎
色掌		金善述
道內訓長	進士	柳然浩
搢紳掌議	參奉	柳錫根

	參奉	□□南
儒林掌議		崔秉□
		李世憲
道內掌議		□□學
色掌		金□權
講修齋掌議		吳鍾大
		金琦善
		文福淳
道內色掌		孔興杓
		柳□□
直月		崔庠植

9.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以大賢而屈於小縣不以不屑爲志而盡吾之學措諸事爲卽子游之弦歌起夫子之莞爾而在我 東有崔文昌申靈川兩先生焉先生俱宰泰山縣縣以武城名豈偶然也哉其後若不憂軒訥庵默齋誠齋鳴川諸公士類推爲鄉賢配於茲院可以見百世之下興起觀感之效矣院舊毀敗僉儒謀財重修廢而復興余守瀛之翌年忝錄院任而金永璫金邦勳兩章甫來請記其事事在前人之述不文不敢贅焉雖然余於崔文昌先生尤有感焉蓋士之行道命也先生豪邁天挺文學夙就髫齡北學爲唐進士若將有爲而值懿僖衰亂高駢昏謬知不能行其志慨然還國則新羅之世亦季矣懷抱彷徨遂終於伽倻之間使先生遭遇盛時得以展蘊致澤之功未易可量桂苑筆耕奚啻文章而止而武城牛刀豈但一縣之治哉願後之君子悲公之跡慕公之道繼以修葺勿墜俎豆則幸也
歲乙未季秋上澣古阜郡守尹 秉謹書

院長巡察使	李道幸
院貳縣監	朴義成
講長牧使	閔種烈
摺紳掌議郡守	尹 秉

本邑掌議幼學	金永璐
色掌幼學	金邦勳
	李喜林
道內掌議幼學	鄭海鵬
色掌進士	金龍熙
講修齋掌議幼學	邊吉容
色掌幼學	李根碩
道內掌議幼學	朴鳳來
色掌	
儒林有司幼學	黃基煥
	權鍾林
本孫有司幼學	金光欽
	金慶述

10.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餽食聖賢其禮維舊而後學尊奉
 少無間然故於唐有九隴複廟之儀
 於宋有紫陽精舍之祀非徒一時之
 盛舉抑爲萬世之師範本郡武城書
 院乃湖省之最所首倡而文昌侯崔先
 生靈川申先生不憂軒丁先生訥
 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
 生鳴川金先生妥靈配享之院也年
 久曠葺缺瓦崩墻滿目蕭然不佞以
 曾經院任圖所以重覆力綿未就靡嘗
 不寤寐永嘆矣何幸是歲春省內紳
 士之扶得線陽者存焉出義助金庶可
 爲修補之資有司權在一氏量計監
 務昕夕靡懈不多日而完之院貌煥
 然維新苟有非常之人亦有⁸⁶非常之功
 者果非耶然則將欲不尸其功而鐫其氏
 名于石揭其事實于楣爲人觀感云
 爾

歲強圉大荒落維夏二十八日庚寅
 前參奉清安李在宇謹誌

院長校理	金鎮祐
院貳察訪	朴晚煥
講長郡守	徐宅煥
摺紳掌議	任公燮
副卿	
佐郎	申□□
參奉	徐相□
有司	盧□燮
幼學	

□□□□□□□□		金□□
□長	幼學	金彰欽
訓長		金箕述
訓長	進士	趙方淳
掌議	直員	柳種奎
掌議	□□	□方□
色掌	□□	□□□
色掌	□□	□平三
道內直月	參奉	金斗熙
直月		崔炳齊
□□掌議		權□龍
掌議敎官		金永丸
色掌		權泰信
		黃致秀
直月	進士	金澤
直日	幼學	吳學根
講修齋掌議	幼學	朴燦敏
	前訓郎	李炳圭
色掌	幼學	□□□
絃歌樓有司	幼學	宋鍾漢
本孫掌議	幼學	金秉述
色掌	主事	金河述
色掌	幼學	宋榮昌
別庫掌議	幼學	金膺欽
有司		鄭漢謹
		丁永振
		崔秉南

86 『무성서원지』 71쪽에는 '無'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현판에는 '有'자의 초서로 쓰여 있다.

11.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院以武城名因邑號也昔崔文昌先生在是邑化尚絃歌治倣子游民俗丕變邑之號盖以是而先生俎豆之所亦以武城宣額後靈川申先生繼之文化復興且鄉之五賢有若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俱以湖南之望道德相孚併食此院院之刼閱幾百載隨圯隨修而其所以修之者必待時宰之尊賢故修舉之事或不恒有焉賢宇講堂瓦裂而漏庫舍牆垣土滲而圯院儒謀所以新之而役鉅財窮顧无以經劃今我太守以二先生之治爲治禮教丕振儒化蔚興下車之初先訪是院祇拜訖院儒金廷勳以誠齋金先生外孫誠護尤切以其事白太守慨然曰是誠在我遂鳩財集事招匠董役未一月工告訖院貌於是乎復新而賢靈妥侑學徒藏修泰之儒咸頌其功歸之太守太守爲誰韓山李侯承敬也爲記其事以文屬持灝持灝乃訥庵宋先生十世裔也義爲所不敢辭者遂爲之記

甲寅陽月上澣宋持灝謹記

都有司 宋亮采

齋長 宋儒元

掌議 朴奎東

色掌 金廷勳

安永斗

12.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尊賢衛道莫善於書院書院之有關於世道者重且大矣是以在昔盛時雖愚夫愚婦莫不高景而以至於修補之節燦然可尚者有矣嗟夫叔季以降人殊其學學殊其途也虛無寂滅惑世誣民甚至及害而滔滔皆是安文成公詩有曰滿庭春草寂無人此時則其時未嘗不寤寐興歎者也迺者族叔廷述氏安斯文恒夔以雅望被選居無何惧夫院貌之殘缺不憚心身之勞請助於有志各家門儒林掌議尹君二炳恪勤董役瓦者瓦土者土講堂以下藏修興學齋滲漏傾頽者奐焉改觀次第奏功嗚呼吾道駸駸土氣不振之日是舉也雖一瓦一土之補安知不爲異日陽復之漸也歟孟子曰能言拒楊墨者聖人之徒也師吾師學吾學入先生之院者亦先生之徒也然則今日修補之事關於斥邪衛正未必無少補云爾

壬申十月 日

道康金煥一謹記

靈光金秀聲謹書

院長	判書	尹用求
院貳	郡守	吳海建
都有司	直員	張瑾秀
	進士	金 澤
講長		金煥豐
齋長		朴勝斗

訓長	李時轍
	許 鐘
	姜甲秀
執綱	張泳相
	朴昇柱
	金圭哲
摺紳掌議	金讚均
	李康鍊
	晉在碩
	金煥九
	咸宰洙
	李權宰
	朴龍淳
	朴鍾善
	曹秉洪
	黃鶴性
儒林掌議	申元均
	金德煥
	朴墉來
	李義■
	金煥權
	金容■
	卞東煥
	宋濬勉
	金炯洙
	安昌正
	金洛峻
	林灝鎮
	河泰容
	金善仲
	朴榮郁

	金炯哲
	張國遠
	金相玉
	趙相順
	金時鍾
	金千圭
	奉憶斗
	金相烈
本邑齋長 進士	閔泳碩
掌議	金廷述
色掌	安恒燮
訓長	金成基
色掌	金榮述
	吳海信
本孫掌議	宋榮昌
	金永淇
色掌	金煥益
有司	金麟基
直月	金煥龍
直日	朴光用

13.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古有邑而曰武城卽子游之治也今有院而額武城因其跡之號也肅廟丙子特夢宣額何等清肅何等尊崇文昌崔先生靈川申先生道德相孚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踵乎德孚七賢配享之院也勦建幾百載重修幾許次隨圯隨葺維舊維新嗚呼噫噫丙子大無之後朔望之焚香春秋之享祀謹慎奉行修葺之方有志未遑賢宇則瓦碎而滲漏席弊而漫漶講修廳則東齋西齋四無一壁難庇風雨何以藏修垣牆與庫舍神門萬無一全不獲不改新乃已而余之不敏將何如哉遍諭鄉員輪告道儒士林任事中既有公爛之飯一縉紳任名下亦有貽力之不貳方略周旋鳩聚錢財可以葺而葺之可以新而新之賢宇之席則以葛代竹東西之齋則仍舊肯堂至於滲漏處瓦則瓦土則土一一修補懇懇訖功瞻仰院貌惟爲復新余之不佞以院本孫心自感服略揭顛末忘拙爲記云爾歲在己卯潤三月 日

訥庵宋先生十一代孫程淳謹記

院長	縣監	閔觀鎬
搢紳掌議	縣監	金益健
	講長 察訪	金禹鉉
本邑掌議		金樂欽
	色掌	安夔鏞
道內掌議		李穰弼
	色掌	金榮遠
		李會秀

14.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在昔孔夫子之武城聞絃哥之聲莞爾而笑曰割雞焉用牛刀夫絃歌禮樂教化之器也夫子所以喜子游之行此政而笑也其後千載之下我小魯邦有若文昌公崔先生以子游武城之治爲治於茲土又其後靈川申先生以崔先生之治爲治院於是建焉額以是宣焉曰武城而鄉之賢五先生文獻相傳道德相符一體妥靈禮義秩秩文物彬彬搢紳之所欽慕章甫之所崇奉而院貌之改觀隨圯隨葺相代相尋者累百年矣暨于今者本縣金琬淳以本邑色掌誠篤慕賢自願鳩資賢宇風版招匠修葺不日告成而是歲也戊子卽講堂及燼後重砌之回甲也而試士於白場回甲之歲復以重修又且試士院貌改新文風翕然今不圖今日之義也余乃本孫猥忝都有司之名油然興感略記顛末示其不忘而以待來後之君子云爾歲在戊子九月重九日

誠齋金先生十代孫光欽謹記

院長縣監	申 柳
儒林講長	金永朝
掌議	金永夏
色掌	金琬淳
道內掌議	金顯模
講修齋掌議	李會粹
有司 權直主	
	禹在鎬

15.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學舍之興廢蓋由於人事之得失而人事得則學舍興焉人事失則學舍廢焉本院自回祿之後講堂賢宇重創改觀爲多士尊慕之地矣纔經十年許神門傾圯賢宇講堂庫舍皆爲滲漏墻垣頽落齋服破裂食鼎破碎餘外之有無萬不形說而尊賢生徒幾無寓慕之所訥庵宋先生後孫彥直慨然發歎詢謀不佞而方營圖新不幸有天奪之速藐茲愚昧未知所以經紀博詢鄉儒協謀本孫展盡淺慮而鳩聚些財先葺賢宇講堂庫舍牆垣齋服食鼎繼建神門修成餘外之有無煥然院貌若有萬一之助焉且庫舍之廊門修葺乃已故粵翌年與不憂軒丁先生後孫志孝氏又設經始以默齋鄭先生旁裔天奎甫擇付別庫有司則天奎與其族叔致學受璧兩人殫力辦財俾至告訖此皆群儒之力不佞何與焉噫昔在甲子年吾先君已任院事神門牆垣修立一新今暨四十餘載不佞又當補葺事不偶然亦不無感舊之心茲揭顛末以待後之君子云

聖上卽位十三年丁未七月

誠齋金先生十代孫丙欽記

16.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夫尊尙學校朝家之盛典隨毀隨葺士林之懿誠也
本院自戊辰以來連經大事修葺無暇頽圯愈久矣
及於庚寅春士論齊發以重修事稟于院長院長
乃金公巡相奎弘氏也勸務農桑民服教化尙儒興
學士望風聲入稟之日題之甘之急速修葺而禮扶
道內勸助儒中略略鳩財勑建絃歌樓重修本院顛
覆之神門復立破碎之邊豆改新院貌重勑棗盛愈
潔此非徒本院之幸也實是吾道之幸也先生文章
道學七賢恩額事蹟已悉於先儒之序跋今不敢
復言而盖先生之風山高水長矣余猥忝重修有司
之名任居尸位恒心愧悶一日院儒數君來言曰院
役將訖不可無院長搢紳及有司章甫頌功之揭
板願得公一言以爲百世不忘之蹟云云余作而復
之曰於事則盛矣於吾則不可以吾固陋安敢嘴說
於大成文字哉雖然茲在衛賢尙儒之地辭之固則
亦爲不恭故槩舉諸儒眷眷之誠敢構顛末遂爲之
記歲在壬辰秋八月日行通訓大夫潭陽都護

府使海平尹濟翼謹記

院長觀察使 閔正植

院貳縣監 閔泳哲

講長縣監 李時宇

搢紳掌議縣監李喆和

道內掌議幼學金思根

監察朴麟來

色掌幼學□□□

本邑掌議 金思駿

色掌 金永琳

直月	金永麟
直日	權鍾豐
本孫有司	金光欽
	宋琦浩
重修有司	金稷欽
	黃基煥
	金直述
	權鍾林
	禹在鎬
	白泰洙

17.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崇禎后五甲申夏院誌之編輯也觀察使金公聲根氏序其事憂斯道之失其傳而作也盖道學之傳有自來而

肅廟丙子賜額武城盖取諸子游弦歌之意也子游聖門高弟而遺化千載洋溢于左海之武城崔先生聖廟從祀而流芳百世繼開于武城六賢六賢乃靈川申先生不憂軒丁先生訥庵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歲之覆雖或千百揆之所聞相傳精一合祀一堂是年也訥庵宋先生後孫程淳以院誌事往復于搢紳友申岐朝申公謁廟而視院貌之凋殘神門傾覆易以新之垣牆滲漏瓦以葺之之意屬乎宋程淳宋斯文方營重修而徐侯碑閣錢亦優補用神門改新庶幾訖功不幸有天奪之速其子鍾海自感先君之未遑不論所費專當告訖嗚呼天理有否泰人道有繼述一則尊賢而當其道一則爲先而續其事矣不佞猥參校正監印之例油然感歎謹記載誌而間略竊板揭于顛末云爾丙戌三月下澣

鳴川金先生八世孫永朝謹記

院長 縣監 鄭履源

搢紳掌議 縣監 奇亮衍

搢紳講長 縣監 申岐朝

重修有司文昌侯崔先生後孫鏡源奎涉

本邑掌議 金鼎厚

色掌 安永文

色掌 崔在鳳

道內掌議	孫履祥
色掌	崔昌源
色掌	俞根喆
直月	吳尙默
直月	宋弼煥
講修齋掌議	鄭邦翼
色掌	韓鎮{玉+宋}

別庫掌議文昌侯崔先生後孫日九

18.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大州之有書院卽國之有學館而禮儀文章之所由具也俎豆以薦先師講磨而做後學昔文昌崔先生靈川申先生暨鄉賢不憂軒丁先生訥菴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道德相孚治倣子游故先生妥靈之所必以武城宣額而邑亦因以爲號遺風尙傳尹茲賢侯往往多以昔先生之治爲治尙文教修學宮凡士之待興者向慕而誠護是故斯院雖舊與時維新蓋天道之扶斯文也信矣而易曰兌講滋益否則受泰此其理也粵若回祿後徐侯之重剏翻瓦時李侯之復新及其隨圯隨修者先公之述也已備不必架疊而勦說矣徐侯之胤相鼎氏去庚午年間旬宣湖省桐鄉古績先訪茲院絃歌之餘韵猶被興學之片石堪語乃建碑閣又捐廩俸以一苞拮据爲資修補之方而屬於誠齋公旁十代孫金廷信鳴川公七代孫金惺欽廷信惺欽誠力勤幹且誠齋公十代孫金必欽爲本齋扶別廳積累其功由來迄于今年風雨大戒屋瓦則既滲而且裂賢宇門則既而綻破至於垣牆之頽圯弘門之顛越可謂百孔千瘡時則李侯敏泰氏以縉紳院長在齋儒以其事白侯侯乃慨然有志於先賢之治而面戒書諭足爲士林之興感於是乎經畫方畧捐出徐相公資給条俾當一隅而不憂軒公十四代孫文鉉甫其爲先之誠尤切於凡儒慕賢之心極力鳩財屬匠董役凡所殘缺者一新而改觀焉猗歟盛哉文學之氣出乎天賦乎人而賢賢斯道在在是奉非徒地守之尊象而亦有方伯之修飭不但章甫之矜式而均是雲仍之永慕者右如是夫不佞亦以院本孫不能無感服於此而竊爲前緒之不朽後賢之有歎忘拙構荒以備顛末如右云爾歲在乙亥陽月日訥菴十二代孫宋鍾壽謹記

院長縣監

李敏泰

都有司	不憂軒十四代孫	丁文鉉
掌議		金永洪
色掌		禹在鎬

19. 무성서원중수기(武城書院重修記)

衛聖尊賢其義一也院宇之制仰體校宮自建
院之初有講堂講修齋絃歌樓且有各庫舍院
貌矜式豈不重且大乎本院則崔文昌申靈川
兩先生及五賢配焉

肅廟朝丙子賜額武城盖取諸子游絃歌之
治也當宁己卯故領相李公最應賜復結金
巡相聲根例扶道內刊行院誌於各郡李巡相
憲植成給完文除役院村以補春秋講會多士
供饋之資金巡相奎弘勑建門樓閔巡相正植
例扶道內重修院宇俱是師門大功而況此今
年先生影幀奉安之再周甲也嗚呼隨毀修治
搢紳章甫追慕勿失之道理也當其圯不修烏
在其尊重也修治惟久雨漏棟椽影貌將渝風
矢牖壁神位不妥冠儒服儒入此院者豈不慨
歎哉例扶修葺之意呈郡稟府以異端邪說竝
起之致未遑鳩聚勑設之際道內僉章甫多有
義助期日告功此豈非尊賢衛道之誠心乎齋
任閔在鎬·柳種奎甫屬余爲文愚於此益知秉
彝好德之心繼而銘銘曰曲水之清兮泛泛流
觴延烝之高兮皎皎月光諸君子之義助兮傳
其功於英香

甲辰十一月上浣 通政大夫 行全州郡守 權
直相 謹記

鳴川 金先生 十代孫 煥玟 謹書

院長 觀察使 李容植

執綱 萬頃郡守 鄭寅義

講長 全州郡守 權直相

兼院貳 古阜郡守

摺紳掌議 參奉

監役

有司 主事

議官

秘書承

道內掌議

色掌

直月

直日

本邑講長

訓長

掌議

色掌

直月

直日

講修齋掌議

色掌

本孫掌議

色掌

講修齋前掌議

色掌

道內前掌議

色掌

李昌翼

金在國

高根洙

趙公熙

李●善

朴麟來

高相奎

金鍾斗

梁誼根

郭貞洙

金溶鐸

柳長郁

金永三

李秉玟

金箕述

柳種奎

金永胄

金東洙

林炳森

徐 銓

金慶述

金永采

金載愚

姜勉會

金奎植

權澄鎬

李成雨

20. 무성서원모현기(武城書院慕賢記)

世間義事何限而慕賢爲大蓋賢者
義之所自出而慕之者慕其義而欲
效之也效之周則亦賢也而義不可
勝用矣故慕賢爲大也權君寧祚安
東人也孝友天植而樂善好義薄有
貲業濟窮如責任武城院數年補缺
爲常而歲己卯大儉享事就闕捐廚
而春秋如樂歲庶幾於晦軒之夫子
廟故事也院儒金煥相丁炳奎君等
不可泯也要余言余旣微且以方杜
門辭其強不可勝曰是果慕其義而
欲效之周也第今舉世病利呻嚙不
可聞而義爲對證之切急要藥矣君
非謀活世耶

龍集昭陽大荒落塞上院

善山柳源模記

道內齋長 鄭就源

執綱 進士 吳在準

掌議 鄭宗燮

金正表

色掌 崔秉汶

金龍默

林鎬均

丁宋奎

本邑齋長 進士 金煥圭

執綱 宋榮昌

掌議 金煥相

色掌	權寧祚
講修齋長	李快烈
掌議	金亨培
	趙休章
	金在欽
色掌	金東必
本孫掌議	金煥星
色掌	金宗述
有司	丁炳奎
	鄭導植
別庫有司	金永桓
直月	金成基
直日	權寧哲
原	

21. 무성서원복호보노환복기(武城書院復戶保奴還復記)

蓋 國之有庠序學校鄉之有書院祠宇衛
聖慕賢之義而一體尊崇之地也本院卽七
賢配享之院而

肅廟賜額復戶三結保奴三十劃下院中以需
春秋之享祀以備俎豆之禮儀何等尊崇之地
而數百年清肅矣嗚呼時運不齊人道亦然戊
辰各院存撤之際保復混入鐫削復舊之議田
年未遑自戊寅本孫宋程淳丁世基金永烈金廷
述鄭韓龜甫儒林李秉德金龍祖金永準金永
璐黃基煥邊古容甫心齊議同屢呈營邑宋程淳
金永烈甫兩瀆京司時領閣李最應氏持下慕賢
之心復舊之題既爲鄭重而復舊之節惟係於院
長矣五六年間事未遂了猗歟欽哉否泰有數剝
復無常韓山李侯定植以本縣之司成兼且院長
慕其先賢觀此院貌保復依舊還復上以答
列聖朝尊賢之意下以伸諸士林齎鬱之寃大有
功於師門永頌德於本院惟我

聖朝蒙額之恩今復可覩惟吾章甫孰不忱
感余以不佞一以服保復之仍舊一以懼賢侯之
功朽以不文辭不獲遂爲之記歲在壬午仲春
上澣誠齋金先生十代孫稷欽謹記

院長	泰仁縣監	李定植
搢紳掌議	任實縣監	韓箕錫
本邑掌議		金永鯤
色掌		權永鎬
色掌		裴基鎬
道內掌議		李承灝

色掌
色掌
直月
講修齋掌議
色掌
本邑講修齋掌議

林喆相
崔正烈
宋麟玉
崔翰■
金在基
■■■

22. 무성서원원지복구기(武城書院院址復舊記)

昔考亭之院土歸於張氏所有而鮑元康捐金償還其尊賢尚德之功永有辭於斯文矣武城書院我東首朮之院吾道內士林依歸之地也自賜額後國有保奴復戶之典官有享需供饋之封院貌清肅無物不稱儀矣邇來新式更張舊禮仍廢院之凋殘莫甚於今日而院之附近基址四百餘年由來保守一朝爲他人私有雖緣勢使儒本孫之憾恨尙矣無論而其於世教風化可勝歎哉!吾黨有人吳君琪煥海州望族孝友其家風而割股孝之著也慈善其性行而焚券善之發也又有志於儒業校院間心焉崇奉丙子秋以多士公選爲本院道內之任審謁之餘諮及院事慨然捐義莫重院土依舊還完而諸般費用全部自擔斯人不世之功鮑後未之聞之見焉院議惧其善蹟之久而無聞也將紀跡于楣使丁友炳奎請余爲文余感其衛道之誠不以不文辭遂爲之記

丁丑五月下浣 道康 金煥豐記

全義 李熙元書

本邑齋長	進士	金澤
掌議		金煥相
色掌		裴暎錫
講修齋掌議		康達植

道內講長	朴丞載
訓長	張泳相
執綱	朴佑緒
齋長	任正錫
掌議	朴炳祚
	崔秉禹
	金充喜
	朴彰奎
	丁炳鎬
	金容顯
	鄭宗燮
	金在欽
	沈水玉
	金泳燮
道內掌議	羅然成
	盧大植
	裴亨燮
	黃河性
	金性洙
	金振權
	安林浚
色掌	金鍾文
	鄭文甲
	金容南
	丁根模
	申正來
	金炯殖
本孫掌議	金煥星
色掌	金淙述
有司	丁炳奎

鄭導植

別庫有司

宋基賢

原

23. 무성서원의반중수기(武城書院椅盤重修記)

魯論曰富而好禮鄒傳云好賢如色
愛禮尊賢不離於道則不亦君子乎
今夫武城書院湖南之首院而多士
尊慕之所故上下數百年隨毀隨補
士林之責也邇來士紀不振院貌凋
殘難乎修補矣何幸公議竣發重修
之役設已多年賴我

僉彥之誠力庶至告訖然而至於
賢宇之漫漶窓壁

神位之蠹蝕椅盤勢至弩末末由竣
功矣沃溝郡士人申君泰貞事業家
也應儒選帶任奉審後與齋任金麟
基多士全炳鈺謀所以葺之捐金夥
然窓壁重奐椅盤一新所謂爲山九
仞功不虧一簣也然則斯人之尊賢
誠心好禮事實可以不朽於後故士
議攸同先此板面總若干言揭付之
以視永傳紀念之志云爾

歲丁卯十二月下澣

金陵人進士 金 澤記

金海人幼學 金奉斗書

儒林有司 金炳庸

金煥豐

李允錫

韓鍾旭

金相洙

盧泰源

	安恒燮
本孫有司	鄭昌柱
	宋离浩
	金煥珍
	金永皓
	丁炳奎
	金煥益

24. 무성서원장원중수기(武城書院墻垣重修記)

院祠之設出於後學尊賢之議而嗣修維持之方與有責焉故院之興替盛衰有關於士林尊慕之如何耳本院東國書院之首勑者也何等清肅自賜額後院體益尊首於一省省內紳士莫不尊慕而依歸者三百年于茲矣邇來世道一變士習不古院貌之殘缺莫於今日而就中賢宇後垣傾側圯厄於經費爲修改者有年矣前議官安達榮晦軒先生肖裔從事儒業其家風也孝友慈善其性行也以士望所重搢紳擔任祇謁之餘審視咨嗟與齋任李熙元院儒金東浩全[金]炳鈺謀所以新之專擔損金合力董工閱月而卒完出入是院者一辭稱善將記蹟于楣以圖不朽要余爲文余亦忝在齋列從不獲辭遂略記如右

著雍執徐 四月上浣 道康金煥豐 記

本邑齋長 進士 金澤

講長 郡守 徐宅煥

訓長 金廷述

執綱 權寧謨

掌議 金炳庸

色掌 李熙元

道內都有司 金煥豐

掌議 金麟洙

鄭文鉉

色掌 邊鎮泰

直月 金永皓

直日	安恒燮
本孫掌議	金煥珍
色掌	宋基賢
別有司	丁炳奎
	金煥益
原	

25. 무성서원제기개수기(武城書院祭器改修記)

本院道院也文昌侯崔先生及六先生妥靈之所極爲尊奉薦祿興俯各中儀式比他院祠嚴肅有儀矣.自倭僞政後其儀不振引奪祭器其後六二波亂亦爲紛失其存十亡二三尙皆殘缺頗不遂儀院儒之慚愧道內士林之嗟嘆無年無之.賢靈默佑宋君榮玉慨然嗟嘆捐數萬圓巨額於是乎方圓祭器犧牲酒樽及諸屬燦然鮮潔薦祿興俯各中儀式更行先儒齊明盛服以承祭祀洋洋乎如在其上何其盛哉噫現今利慾塞盲異端鴟張之日如是博施夫豈有求而爲哉蓋衛道尊賢之心篤而自知明者也斯人斯功有院以後稀有之功也不可以口說相傳故本院院儒道內士林僉議均符以櫟上揭板記功之意囑余記不爲(以)不文辭敢將蕪說忘拙遂爲之記而主董其事者金炯基金東基君也檀紀四千三百年丁未二月清明節道康 金麟基記

執綱	權寧玉
掌議	金東柱
色掌	李教冕
道內掌議	崔墀洪

本孫掌議

本孫色掌

本孫有司

道內直月

金淙述

宋吉燮

金東基

金在欽

26. 무성서원현우중수기(武城書院賢宇重修記)

上之三十八年辛丑夏四月武城書院七賢躋享祠屋修葺事告成於是輪奐增輝冠佩交賀盖異波橫氣不能使斯文堙沒而絃誦濟蹕式克至于今日休申鎬諗于衆曰書不云乎惟稽古崇德象賢於是有寵誥錫封帝王之政也若夫士之學聖賢者其所以崇象之要乎在必有寓慕羹牆觀感而興起矜式有所然後可庶幾也於是乎院宇而俎豆之院宇焉則不能無年久朽頹朽頹則不可無葺理朽頹者理之常而必然者也葺理者事之變而不可必者也必然者天也不可必者人也天不可爲而人可爲今委之天之不可爲而人從以不之爲則向所謂寓慕羹牆矜式有所者將安施諸然則是役也非直吾輩當日事也將使後來者朽頹則葺理葺而頹頹而又葺永圖勿替則所謂觀感興起者豈直爲廉頑立懦寬薄敦鄙而止哉抑將村塾家庠正歸趣植彝倫不啻少補焉崇德象賢之功之勉其淺渺乎哉後之君子盖勉講焉至若諸先生至道懿行有非末學所放替揚而其泉石之勝諸賢之繕修前人之述備矣無欲更贅云重光赤奮若正夏上幹後學驪興閔申鎬謹書

院長	觀察使	趙漢國
院貳	郡守	金靖圭
搢紳講長	郡守	李根洪
搢紳掌議	郡守	金昌植
本邑掌議		閔申鎬
色掌		金炳庸

道內掌議	鄭公植
色掌	楊在壽
	李俊儀
	崔智鉉
講修齋掌議	房煥準
色掌	李敬欽
	金程坤
道內掌議	申泰熙
色掌	田源淳
儒林講長	金在勳
都有司	金直述
	梁櫨
直月	安尹錫
直日	吳玟奎
本孫有司	金永昌
	金貞洙

27. 현우중수급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及典祀所勸建記)

廟焉而崇德院焉而敦學皆所以扶世教植人紀之義而其始創也以儒議其修補也亦以是故院宇之興替實關於世道之汙隆而在於士林尊慕之如何耳本院勸自成廟祖癸卯距今四百有餘年年久頽圯修改之役殆無間年常厄於財絀難乎一新而賢宇之殘缺甚焉朽柱敗櫨頽壁傾礎不可時日支撐省內多士之出入齋中者莫不聚首憂懼謀所以葺之工役甚大莫敢下手矣朱參奉燦馨以士望被道內之任祇謁之餘周視咨嗟斷然爲己任損義自擔使其從子坤幹其事屬余董役仲夏始役至秋告竣於是朽者敗者漫漶者傾墊者無不煥然改觀裴濟民李熙元兩斯文實左右之賢宇既完還安將祭僉議以爲院無典祀之所其於齊潔交神之節欠敬者大矣禮不可闕事不可緩不日營建乃於直舍之北作二間廳事工事費半額五賢門中排當餘皆院錢殖利中充用而未及陶瓦是可憾也已政堂則諸賢妥靈之地典庫則多士供祭之所數百年未遑之事若有待於今日神人相感之理於斯可驗矣士林崇慕之義亦可想矣兩役既畢不可無記實要余爲文余惟學校書院儒之具也綱紀名分儒之實也其實既弛則其具不期頽而自頽亦理勢之固然以風雨攸除烏鼠攸去母曰吾事已了愛忠節尚名分則何患乎院宇之凋殘乎遂書此以爲記

庚午復月 南至日 道康金煥豐記

都有司	進士	金煥圭
副有司		宋榮昌
搢紳講長	主事	李重明
參奉		金永寬
儒林講長		金廷述
搢紳齋長	主事	權丙夏
儒林齋長		鄭雲憲
搢紳訓長	參奉	徐仁煥
		高濟淳
儒林訓長		金綜鉉
本邑齋長	進士	閔泳碩
執綱		金炳庸
掌議		金煥豐
色掌		李熙元
直日		安恒燮
直月		李弼緒
道內執綱		林文奎
道內掌議	參奉	裴斗鉉
		金炳亮
		金振權
		李振永
		金哲斗
		李春憲
		河明容
色掌		朴敬植
		金奎炫
		文禹烈
本孫掌議		金煥星
色掌		丁炳奎

監董

鄭昌柱

金煥珍

金永皓

宋相浩

別庫有司

金煥益

28. 강당중창기(講堂重勅記)

衛聖尊賢其義一也院宇之制仰體校宮粵自建院之初置堂于中門之外爲諸生講劇之所則是堂之爲院貌矜式豈不重且大乎本院則崔文昌申靈川兩先生妥靈之所而鄉先生五賢配焉仍舊郡號稱泰山祠宇

肅廟丙子賜額武城書院蓋取諸子游絃歌之治也我五代祖虛谷公重勅是堂其后六十餘年族叔致榮氏繼爲重修則虛谷公名帖尙留樑上故先君子製上樑文以寓追慕之感而本草■而不傳遺藁撰正時不得編次矣不幸乙酉四月有回祿之禍上樑文隨而成燼嗚呼惜哉先人手澤無復可考尊敬之地久廢將事之所徒爲好禮之士所共嗟惜如不佞當先於人綱紀而資劣才魯莫售其許矣訥庵宋先生後孫致德慨然奮勵鳩聚如干之財於五賢本孫極力拮据裁損院中冗費逐年追補纔三年而經始方亟微斯人敦能如是賢勞乎屬不憂軒丁先生後孫文德甫默齋鄭先生後孫載赫甫施爲方略而又幸徐侯灝淳崇賢禮士辦財董役訖五六月而功乃告成噫人與時值事與意成豈非興廢無常功業必待人而成者耶請記顛末揭于堂壁以示後余不敢以不文辭遂爲之記戊子六月

日重勅都有司鳴川金先生六代孫 致謹記

訥庵 宋先生十二代孫 致德

齋長 誠齋 金先生八代孫 峻哲

掌議 不憂軒丁先生十一代孫 文德

色掌 默齋鄭先生八代孫 載赫

誠齋金先生旁九代孫 匡述

29. 무성서원강수재중수기(武城書院講修齋重修記)

夫尊賢慕德衛道興學守宰之所當先務也本院迺崔孤雲先生以下六賢之妥靈而士林依歸之所創立而 賜額三百餘祀而伊間歷代守宰因時相繼隨毀隨補篤明世盛典降自百六斯文大喪主宰無人櫛沐之襲莫禁咨嗟之傷幸當陽春之始庶政維新自政府特賜幫助拯急重修猶有未善本倅申侯祥雨下車卽來審院慨然以興起士林篤志損廩而重修講修齋且築溷廊以煥面貌噫申侯賢宰也能繼往宰之前跡而開來守之後軌篤時人之範模其有功於斯者大矣可不善哉是役協贊董督者金德基金炯基金榮基君

乙巳至月下澣道康金麟基記
執綱 權寧玉 本孫 掌議 金淙述
掌議 金東柱 色掌 宋正燮
直月 金在欽 原
直月 金榮得

30. 현가루중수기(絃歌樓重修記)

武城書院湖南首冊之院也孤雲崔先生主享之所而六先生配焉先生之治泰山也與子游之治武城有絃歌之化故賜額以武城也南北道紳士莫不趨嚮月朔展拜春秋享祀講習于斯絃歌于斯務圖遺化之繼而不絕也樓之冊建高宗朝辛卯而星霜屢變風雨交侵適值世道日降斯文不講遂將至於傾頽且賢宇講堂不庇風雨故院之多士以是之憂齊心與力南北省內紳士各自捐義歷年而工告竣欹側者方正焉湫漏者輪奐焉其壯麗則視舊而倍新焉於是乎視瞻者載美庶其斯文之復興也將懸楣而記其實要余爲一言余(慨)然諾之曰余冒居院首未克供識是有其名而無其實也然而余之所以仰慕先生之教化期行于多士者則切要名實之上符也今多士之登斯樓也勿以觀瞻之美謂斯文之可興而必能顧其名而求其實使先生絃歌之化不絕於斯然後乃可曰名實相符而從可以扶植斯文比實多士之責也勉盡其責無似院首之有名而無實也

丙子仲春全羅北道知事

開城高元勳謹識

院長	全北知事	高元勳
院貳	井邑郡守	趙東敏
摺紳講長	博士	李光秀
儒林講長	進士	金澤
摺紳訓長	直員	姜昌永
儒林訓長		權寧謨
摺紳齋長	主事	權丙夏
儒林齋長	進士	金煥圭
執綱		宋榮祚
摺紳都有司	參奉	池應鉉
儒林都有司		許業
摺紳掌議	參奉	鄭泰煥
儒林掌議		林士圭
色掌		權寧祚
講修齋掌議		鄭就源
色掌		金明洙
本邑齋長		金廷述
執綱		宋榮昌
掌議		姜喆鎬
色掌 兼 總務		金煥相
本孫掌議		金煥星
色掌		金淙述
掌財		宋基賢
有司		金煥一
		安恒燮
		林在圭
		李熙元
監董		丁炳奎
		安在根
		鄭吉柱

直月
直日

教官

金成基
權寧玉

31. 무성서원현가루기(武城書院絃歌樓記)

謹嘗觀孔夫子妥靈之殿曰大成樓曰萬化者蓋取諸夫子道德教化之意也然則今按湖南省泰仁縣有文昌公崔先生侑享之院院曰武城樓曰絃歌者亦無以乎先生之文章北學于中夏道學倡始乎東邦爲一世宗師在羅朝出宰是縣卽其時泰山郡以昔子游之治爲治民俗丕變儒化蔚興其歿也郡人立嗣寓慕歷麗代入我中廟朝靈川申公繼治若蕭曹之遵束勑設五學教明十訓合享是祠逮夫肅廟朝祠爲院且鄉之賢有若不憂軒丁公訥庵宋公默齋鄭公誠齋金公鳴川金公皆道以相符禮以追配道內章甫籲請院額蒙賜武城武城云者卽賁主享先生倣古子游武城絃歌之治而然然則院之額號樓之扁揭良由是也瞻拜于斯院則先生清高之象肅然復臨於神座之後詠歌于斯樓則先生文治之聲宛然復聽於講習之餘者實是萬古英風百代遺韻而多士之振作興感者倘如何哉噫余自在闔都欽聞而向慕矣去己丑夏宣上恩德來旬是省名參是院之任竊欲拜謁奉審觀禮儀之秩秩文物之彬彬而未果者責擔鎮藩身絆堆堞但心常鬱鬱咨嘆而已一日院儒黃基煥金直述權鍾林數君來言院貌之蕭條門樓之顛廢尙未重建職由事巨力綿方營經始爰謀鳩聚則如非邑扶他無方略蓋是院卽一道多士之所依歸而崇奉則至修舉之地當有樂赴之義況今筆巖院褒忠祠已有例扶豈於此院而獨無其尙乎余聽之既揆以事體允合於衛賢道服衆心之固然乃排列邑俾付郢匠役未就緒余以瓜期遽當遞歸雖然邊塗之難廢既張之弩難弛凡事之成非成於成之日已成於成之前則斯樓之成原始要終方始未成其終有成也刺史知其成而歸之儒林落其成而宴之洋然復誦其絃歌之聲藹然復遊於遺化之中矣儒林庶肯爲刺史之功刺史不自以爲功惟以爲儒林之幸其幸也莫非先生之培養來陶鑄出之功故乃敢言之遂爲之頌

辛卯仲春嘉善大夫全羅道觀察使兼奎章閣直提

學清風金奎弘書

摺紳都有司

尹濟翼

潭陽府使

李憲翼

寶城郡守

李時宇

沃溝縣監

發文都有司

黃基煥

金直述

崔鍾林

儒林有司

金思駿

金永琳

金堯昇

成造有司

金寬欽

權直圭

禹在鎬

文簿有司

白泰洙

梁 憶

本孫有司

金光欽

金慶述

32. 무성서원현가루중수기(武城書院絃歌樓重修記)

昔柳宗元嘗刺柳州而廟祀立於羅池韓昌黎嘗治潮州而新廟成於州南蓋生能澤其民沒而食其土也千古之下可以感發興起者矣仰惟新羅文昌侯孤雲崔先生天挺大賢魁偉英特北學中國登庸唐朝適值昏亂旋還故國倡文物於當時爲理學之本始暮年一官出補泰山政尚仁化俗變文風藹然遺韻百世不泯鄉人思慕愈久仰止立祠於遺愛之地以寓報祀之義名其廟曰泰山祠蓋取乎鄉先生歿而祭祀之義也稱邑号曰武城縣亦倣乎子游文治而絃歌之教也其後靈川申公懿德俊行推爲當時之綱紀文章學術優於一世之師範暨蒙恩選作宰是邦躬行三事勑建五學大興文化誘掖後進及其歸而歿也配是廟而享焉有若鄉賢不憂軒丁公·訥庵宋公·默齋鄭公·誠齋金公·鳴川金公相繼而作追慕先生之道德文章擴張先生之遺風餘韻特爲士林之矜式共躋合享之禮逮我肅廟祖特蒙賜額院号武城者卽由先生之治以子游之治治也樓名絃歌者亦由先生之教以子游之教教也世之相後爲數千載之下地之相距爲數千里之外德以相符治以同道猗歟盛矣哉不佞以後生末學雖聞寡識薄嘗聞先生之紫泉逸遊之所月延觴詠之地而景慕者久矣出宰咸羅之歲臘雪降寒院儒金慶述柳鍾奎金炳庸三章甫懷刺請見先誦先生之文章道德盛稱六賢之學問行誼繼言院舊回祿蕭條已甚幸賴金相公聲根氏金相公奎弘氏閔相公正植氏尊賢衛道之誠且及諸君子輸誠之力重勑之修葺之院宇完整門樓一新寔爲斯文之幸也自茲以還星霜屢經風雨久浸賢宇滲漏垣墻頽圯將庸改葺財力凋殘爰謀方略發通請助乃可就役云揆以事体符合往例故獎許而經營之及其鳩聚也出義之士爭先踵後至於工繕也土木之匠實心竭力不日告成煩如舊制多士之幸亦愈多矣院儒請于不佞記之不能固辭乃伏

念先生之於泰山也生而爲吏隱之地歿而爲妥靈之所儼然遺像洋洋在於其上宛然絃歌藉藉至于今日比諸韓柳之廟義則同然觀夫士林之慕尤有別焉若其登流觴臺則想先生之靜趣上披香亭則想先生之遺澤仰詩山之精彩想先生之高大臨曲水之澄流想先生之清德詩云有斐君子如金如錫如圭如璧金錫圭璧之所在草木山川皆被光澤者歟於乎先生遺愛之澤申公繼治之蹟鄉賢作成之效士林向慕之誠如彼其燦然蔚然而誠可爲頑者廉儒者立也夫

歲癸卯榴夏上院通政大夫行咸悅郡守晉陽鄭寬永謹識

院長	觀察使	趙漢國
院貳	泰仁郡守	孫秉浩
講長	淳昌郡守	李根洪
掌議	咸悅郡守	鄭寬永
監役		高允相
有司	參書	金錫宗
進士		朴魯哲
進士		白樂中
儒林講長	進士	柳興洙
幼學		梁錫永
訓長進士		金然雨
幼學		柳煥東
道內掌議	幼學	金鳳杓
直日		柳寅駿
		高斗煥
		張世卿
道內色掌	幼學	李振衡
		鄭炫朝
		李景純

直月		金直述
直日		柳種奎
講修齋掌議		朴魯洽
		金明鍾
色掌		柳寅憲
		韓元教
本郡掌議	幼學	安堯錫
色掌		李容學
直月		金炳庸
直日		柳寅駿
本孫有司		金慶述

33. 무성서원현가루창건기(武城書院絃歌樓創建記)

樓以絃歌名卽因院以武城號也而其號曰武城者有自來矣昔崔文昌·申靈川兩先生相繼以子游●●泰山郡化行當時澤流後世建先生之院於先生古治之縣內蒙額武城者蓋由是耳鄉之賢有若丁公不憂軒宋公訥菴鄭公默齋金公誠齋金公鳴川凡七賢一體并享之所茲故是院也特著於南國章甫之所崇泰者也余幸際明時宣上恩德奧自嶺省移摩湖省今年春莅任之初院儒黃基煥金直述權鍾林甫納刺接見以本院院長之名來忝是固爲道伯例帶之任也義不可強辭而遂當之乃因與斯文語到列聖朝殊遇之禮道其先生遺躅清高氣像焚香瞻拜於繡幅影摹道德文字盥薇敬讀於桂苑筆耕登披香亭則棲池孤荷獨帶遺芳登流觴臺則蘸川老陽不盡光風余聽之未已不覺改容欽尙斯文乃陳其事狀曰是院也古戊子日回祿之餘院貌蕭條門樓尙未朮立儒林之嗟惜者久矣在往年冬營建是樓鳩財方略以道內列邑例扶之義白於舊巡相巡相量事體循公議快許甘飭爰始改木纔收畿邑適值遞等則已發之令或解既付之役將掇豈非憫鬱者乎余曰是誠在我仍舊甘如之更始題飭爲許斯文於是乎油然而退乃董工匠既豎之柱又拋之樑球之陜陝度之薨薨庶幾不日將成一日斯文又來告曰詩云靡不有初鮮克有終幸賴相公之德終成厥是樓功是完院貌乃備伊誰之賜敢不百拜獻賀余曰不然夫崇獎先賢建院禋薦朝家之常典上祇朝憲扶院斗護刺史之職事且前既發軔今但復轍豈爲余賀余竊喜其登斯樓者往往聽絃歌仰想夫子之完爾則禮樂文物之煥然可觀與教化儒風之蔚然感興者夫在斯乎是以爲士多賀而遂爲之記觀察使奎章閣直提學驪興閔正植序

院長	巡相	閔正植
院貳	縣監	閔恒植
摺紳講長	郡守	徐綺輔
掌議	府使	金炳億
道內掌議		高永柱

	金基柱
色掌	李基文
	安鎔均
直月	金相浩
直日	朴紀炫
本邑掌議	金永麟
色掌	權鍾豐
	金俊相
講修齋有司	吳重根
道內訓長 監察	崔命華
本邑訓長	金彰欽
道內掌議	李鍾仁
	崔鍾九
色掌	趙完昭
本邑掌議	金箕述
色掌	宋基玉
直月	張碩培
直日	安以燮
本孫有司	金永吉

34. 무성서원원지개간기(武城書院院誌開刊記)

事有不得不爲者而前輩之不遑後來之責除非
 疆幹通博之人則鮮有不安古而因循矣又若有
 主張幹旋於冥漠之中而必有待而有爲者亦由
 時使之然耳武城書院之久而無誌不過兼是三
 難焉已耳夫書院表裡學校非一人一家之私而
 士林之所公共事實規例必有一帙不易之書然
 後執事於院者前以承前後以授後庶免殘缺遺
 漏之歎而可以壽久可以布廣此固院事之不得
 不爲者而院儒宋程淳金永璐邊吉容黃基煥金
 亨植禹在鎬甫之斷然以爲己任既掇拾矣又繪
 繡矣嗚呼二百年矣果有待於今日耶至若芝山
 處士安公在護以家藏經史數百卷輸諸院中俾
 作後生講討之資較之李公擇之貯之僧舍不啻
 光明正大若使安公并生長公之世則可使李君
 密密太甚惜哉或慮後之君子對是書而不知書
 之所自故特表而出之以告來世毋使蟬蠹蝕盡古
 人之至意如何余旣文諸誌端又嘉諸儒眷眷之誠
 欲播諸當世之耳目爲構數行文使揭之院中生齋
 之楣而又勵繼今日而執事於茲院看云爾闕逢涖
 灘五月下澣通訓大夫行井邑縣監奇亮衍記

都有司	參禮察訪	崔成在
	幼學	金堯昇
		宋程淳
發文	幼學	李東莢
		金樂欽
		金永璐

請序	幼學	黃基煥
		金龍祖
		金光欽
校正	幼學	邊吉容
		金永朝
		宋元浩
掌財	幼學	朴桂根
		金亨植
		禹在鎬
書寫	幼學	李秉源
		宋曦玉
		丁相鉉
監印	幼學	權鍾林
		金琬淳
		金億斗
		金稷欽
		安堯錫
		崔鏡源

35. 무성서원최선생문집중간기 (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昔吾夫子藏壁書而斯文繼絕河間宝得逸詩而風雅復興今夫桂苑筆畊之幾絕而後鳴於世者亦豈偶然而已哉噫我東人肇以旭夷知學者鮮自文昌崔先生之出而篤道好古甚於中華然則吾東文獻實先生陶鑄之盖先生新羅人也距今千餘年其文集散失無幾或當於箕雅及碑銘者皆非全秩惟獨桂苑筆畊中山覆簣集數十卷而已而亦無得而見之者矣沈侯能淑氏知是郡也日涉古蹟破去崖岸以文酒爲政勝人醒時一月不期年而民服從其教化視事之暇抵謁先生于本院彷徨於石龜觴臺之間而因諸院儒以先生遺蹟諸生無以應之者侯曰本院乃先生主享之所爲文集之第一寶莊而無尺紙可考誠甚忱然今桂苑一秩在於左揆淵泉洪公之家羅季開板之後無人重刊顧其私於一家之寶者良以此也盖將爲諸生介於營門謀所以重刊之聞者忻然而退於是侯往議于營門□□乃徐公有渠氏也協心同議招匠就刻數月功告訖冊卽成匣下本院其尊奉之責在吾士林誠意之如何而本院自勑建以後殆二百年得是冊於絕無保傳之餘而莊之爲寶貝播以爲金石

則此先生中興之一大事業也真所謂
三侯併世千載一會而顯晦有數古今增
慨抑有待於今日也耶院任敬承侯意
之着意奉玩且懼賢侯之功朽不傳請余
記其事云爾

歲甲午臈月上澣平陽朴海彥謹記

齋長 李俊漢

掌議 金祖鉉

色掌 金 甦

金奎勳

36. 기문(記文)

先哲民之先覺而百世之師也人心賴而淑焉世道賴以明焉其垂功也可不謂之遠且深乎此所以隨其功之小大而或配于文廟或享于鄉祠者也夫先哲之覺斯民者無他明其五品而已五品明則天下平不明則天下亂今夫斯教不明而世級降侮聖賢賤經典滔滔胥奔於利海邪道望望然莫知返焉嗚呼此曷故焉本院掌議有海州吳邦煥楸灘諱允謙之后也性本樸實而慕先哲之誠深豐捐棗盛代全供丁巳春享之需使人人皆若是人心何患其不淑世道何患其不明乎標範于世可使作也本院諸任齊謂若是懿行不可湮沒要不佞以識之竊附夫慕顯揚善之義敢述如右索文者金煥吉金東述云

歲丁巳春仲月 後學礪山宋興燮小識
執綱 林洪圭 宋榮達
掌議 崔鳳植 丁福秀
色掌 金鍾燮 鄭熙俊
有司 金麗述 金鎬甲

37. 김영득찬양문(金榮得讚揚文)

鄉有善士하고閭有良民하니天賦品性
이爲其人也善士有行은崇尊慕賢이요
良民有行은美風良俗인바人之處世가
何不愼重哉아一時慈善도甚爲難行한
데終是實行은極亦尤難커늘言必可容
이나當此難容이니蓋出天性이요非勉
強也라士人金榮得은古縣胎生으로安
東華閭에海東望族이다性直溫和하고
守分安靜하며躬耕稼穡에安貧樂農하
며平素慕先에恒時一念으로先代墓儀
와齋舍修築에不拘私財하고獻身勞力
하며友愛敦睦에宗族無間하고輕財重
倫하며口不悖言하고非禮不踐하며生
平耶爲가去華取實하고學人相接에談
笑和顏하며崇尊敬長에無所不至하다
居於中年에本院齋任의儒林色掌으로
七八年間在任中에管掌財政한바院財
窘乏하여積滯負債을儉用節減하여年
中支辨이나不現內色하고春秋享祀에
謹奉式典하며朔望設香에도遵禮致誠
하니何可容易인가鄉中美風이요院中
善行의模範縉紳也라如此懿跡을不記
不明이면何況後鑑이요院意詢同하여
讚揚實事을如右畧記

檀紀 四三二七年 甲戌 3月 日

齋長 金榮基 道康

執綱	李教冕	全義
道內掌議	金煥在	康津
道內色掌	金成基	道康
儒林掌議	金海鍾	扶安
儒林色掌	金銅基	道康
本孫掌議	鄭熙宗	慶州
本孫色掌	宋榮東	礪山
有司	金湏基	道康
有司	丁炳吉	靈光

■ 강당 주련(38~43)

38. 읍양진퇴행단유교(揖讓進退杏壇遺敎) _ 주련

39. 월삭참배향예남정(月朔參拜享禮南丁) _ 주련

40. 춘추강마경의사자(春秋講磨經義四子) _ 주련

41. 문예시습시서에낙(文藝時習詩書禮樂) _ 주련

42. 덕업일신효제충화(德業日新孝悌忠和) _ 주련

43. 권규교휼남전고약(勸規交恤藍田故約) _ 주련

■ 태산사 삼문 주련(44~45)

44. 성조액은(聖朝額恩) _ 주련

45. 사림수선(士林首善) _ 주련

■ 강수재 주련(46~49)

46. 연원추소수사렴민(淵源追溯洙泗濂閩) _ 주련

47. 의인유예덕업일신(依仁游藝德業日新) _ 주련

48. 규모이굉심신가국(規模已宏心身家國) _ 주련

49. 신사독행윤리자명(愼思篤行倫理自明) _ 주련

■ 강수재 주련(50~53)

50. 만국망지정(萬國罔知定) _ 주련

51. 가가구태평(家家久泰平) _ 주련

52. 승제망형처(承帝忘形處) _ 주련

53. 분화영불명(緡華永弗明) _ 주련

V. 무성서원 금석문 원문

54. 무성서원묘정비(武城書院廟庭碑)

碑所以識日影也必樹之三分庭之一者古屋制然爾況院宇於以繫牲而圓揖而告充

廟且被功實於其上而使讀者知有所敬也緬惟我武城書院享右以文昌侯崔先生致

遠先生羅產也幼而北學於中國非直東方學者未能或之先也而華聞鳴天下藉甚沒

而躋聖廡者降自勝國祀典極隆無容贅舌其在錦還也見國家危亡兆矣是以恥道不

行不久於朝低徊吏隱而及眞聖例武后亦午橋盧姨所不欲仕子者矧伊挺然人豪乎

遂遐翔如鳳縹浮游若蟬蛻家伽耶而終身其清風逸韻可以廉立千古懦頑或謂之羽

化者誕妄無根古人已以葬在鴻山證之矣蓋其平日緒餘不一槩見乎邦國而施之下

邑者恢恢乎游刃有餘地湖之太山亦一子游所弦歌而與士元枳棘視耒陽者相

去不啻絕遠所以桐鄉祠不風雨磨泐而巋然若靈光我

中廟盛際靈川申先生潛游宦于茲設五學堂造士以十訓持身以三事于文昌有光鄉人

立生祠而敬之用石慶相齊故事也自鷄林黃葉而蒼葉中興上下七百年間行不由

徑不至偃室如滅明者鄉不乏人而若不憂軒丁先生克仁在國朝名賢庚降最先斥

佛於

莊憲王朝闢正路之榛蕪束民以藍田約使鄉俗丕變以正言致仕不求聞達聚鄉子弟教

誨不倦訥菴宋先生世琳不羞汙君不忘誠諫楯以禦燕山之解衣及中廟靖國上封章而斥異端陳民瘼申修學規訓迪蒙士黜齋鄭先生彥忠躬行孝弟潛心

義理而妙透象數之奧世稱後堯夫誠齋金先生若默學正趨向治本清白興學校而使

士知方題燭淚而視民如傷繫我及齋先子灌真實沖澹勤學善誘不染於凶賊募義於

虜亂鳴川先生學者稱也若是者固皆豪傑之士而無愧爲聖人之徒也審矣■肅廟改紀初 宣額致侑

高宗嗣服後存祀 別單是

列聖朝崇德象賢之深者也目今視舊德如運日棄名教若弁髦之日猶幸柄國者不寶金

玉而惟賢惟古昔是寶歲有以嗣葺而增新之儒流之從以銜感而圖此庭實綢繆儀於累

百祀靡遑之餘者長弟林林焉非諸先生之風可百世下聞者起欽而能然乎哉吾道之

日復迎細鳥綃於四尺螭首者誠六六年黑夜罷析後一大曙光而能使人肝腸煖矣得

門而讀是文乎禮樂遺化之地者於夫子莞爾之笑割雞之戲恍然如復有聞焉而尙識

其爲君子愛人小人易使者皆本於學道之化也云銘曰

惟文昌侯挺生鰈域志有雋異妙齡學北文章學術莫先中國逮夫畫錦銅墨還甘顧茲

太山割雞美譚黃裳筮筮青山埋簪靈川作宰異代同符鄉建五學造士孔模去思當日

生祠亟且允矣不憂首膺儒運布衣關佛韓表同韻鄉設飲約藍田風聞訥菴誠

諫要悟

昏庸異端民瘼 改玉陳忠白鹿有跋青衿發蒙默齋孝友儘是愷悌早廢公車
停身理

義玩心高明堯夫後世誠齋貞剛學審趨向莅官冰蘖錫衣自上金玉君子欽之
這樣

鳴川家學趾美月峯喜怒鮮形氣象春風遇事坦夷水哉淵淵念我武城七賢肸
鬻錫扁

永祀 聖恩沆瀣庭樹牲石百世炳烺

時丙子 恩額後二百六十二年戊戌十月上浣金陵後學金罄謹述

義城後學金東柱謹書

後學金陵金龍基敬篆

55. 무성서원묘정비창건의연방명록(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武城書院廟庭碑創建義捐芳名錄

前道議員	林鍾燁	金堤
院長知事	李夏榮	서울
道內掌議	許炫	金堤
前面長	俞祥先	井邑
	李圭烈	沃溝
院貳郡守	梁昌鉉	南原
前組合長	姜東曦	金堤
前邑長	姜泰熙	
	黃金萬	
都有司	金喜鎮	康津
前局長	崔讚澤	釜山
	吳然鎬	金堤
道內掌議	金濟根	
	崔炳植	
	牟貴南	
道議員	宋三燮	井邑
發電所長	尹錫弘	서울
	丁永赫	光州
道課長	洪錫模	扶安
道內色掌	李柱川	
前局長	張永福	서울
參議員	丁文甲	光州
	金相洙	全州
道議員一同	全北	

金融團一同	全北	
道內掌議	徐光玉	井邑
前邑長	張吉洙	
副邑長	黃二性	新泰仁
	孔一權	井邑
都有司	康斗煥	濟州
面長	金生基	井邑
	金鏞基	全州
面長	殷錫杓	井邑
前郡守	康祐俊	濟州
	丁永植	光州
	金演欽	井邑
社長	丁永贊	木浦
	朴良彦	井邑
面長	朴琮基	
	文鍾謨	金堤
面長	劉載英	井邑
教育監	金容純	高敞
	金在欽	井邑
	宋南浩	
	金基興	
面長	徐秉翊	
面長	金聖仲	
前面長	孫聖卓	
面長	李古龍	
面長	柳貴男	
◇		
典校	金昌培	金堤
道內掌議	鄭冕鉉	順天
社長	金用基	井邑
社長	金宗汶	全州

典校	姜凡熙	任實
	金玉基	井邑
	金桓鎭	
	安東燮	
院長	金聲煥	井邑
掌議	林鍾基	扶安
社長	金憲基	全州
	李鐵榮	
面議員	金生基	井邑
	姜士遠	
	李承友	
	金相基	
鄉校掌議	金學瑩	順天
	李淇雨	任實
掌議	沈元淳	
	徐丙贊	
	金玉基	全州
	安鍾淑	井邑
	金淙述	
	金源基	
	金煥吉	井邑
	宋泰燮	
	金麗述	
	李教冕	
郡守	金允喆	
道內掌議	李永春	扶安
<u>(教育監)</u>	金南奎	井邑
前色掌	權寧祚	
	朴明奎	
	權泰晶	
道內掌議	姜漢秀	

前色掌	柳錫浦	
參奉	權寧燮	
	姜汝一	
	黃成玉	
前道議員	溫榮大	金堤
前掌議	裴仁述	
	柳相根	
典校	金在洪	沃溝
社長	丁斗鉉	
	金準基	
	金元基	金堤
邑長	崔炳奎	
	黃昌龍	
	崔永植	
	<u>朴(再東)</u>	
道內色掌	徐在乙	金堤
<u>(鄉校)</u> 掌議	申錫文	
	崔東植	
前掌議	金炳哲	
	金萬燁	
面長	崔鳳植	井邑
教育委員	宋光燮	
	吳相鎬	
講齋掌議	康禮民	濟州
前掌議	李守珍	
社長	康丁玉	
道內掌議	曹東圭	淳昌
前面長	權承鶴	井邑
	金煥碩	
面長	崔明郁	
	金相述	

社長	金昌鎬	
前面長	吳濟鎬	
	金正述	
	李厚淵	
	金重三	
	宋榮根	
	宋京鍾	康津
	金亮基	井邑
前面長	金已化	
	丁虎鉉	光州
前掌議	河仁權	井邑
社長	金炳吉	
前面長	金琫奎	
	金堯政	
面議長	金坤	
面議員	柳貞烈	
	宋箕浩	
面議員	閔丙漢	井邑
	金海源	
	李東燮	
	徐廷珪	金堤
	吳海玉	
	李廷寬	
鄉校掌議	黃熙炅	
	金永桓	井邑
	鄭炳鎬	
	宋鳳燮	
	姜鳳石	
知事	宋虎林	光州
知事	金仁	全州
郡守	金成烈	長城

社長	申鉉斗	光州
前面議員	宋榮東	井邑
前面議員	金煥玉	
前面議員	朴五龍	
面議員	金東基	
	金權中	
前掌議	權鎮吉	
	朴秉一	
前面議員	殷熙澈	
執綱	權寧玉	
本院掌議	金龍基	
本孫掌議	宋基玄	
本孫色掌	丁玉聲	
	金麟基	井邑
本孫有司	金淙基	
	丁東秀	
	金洙煥	
	金煥澤	井邑
	成奉龍	
	禹濟國	
	金炯基	井邑
	宋榮碩	
	丁龍秀	
	金仕述	
	鄭聖(述)	
	金洪基	
	金煥峻	
	姜正熙	
	安在權	

辛丑五月上浣 總務延安后人前參奉色掌金鍾元謹建

56. 무성서원사적지정기념비기(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文化財委員長文學博士	金庠基	서울市東崇洞	金堤人
國立博物館美術課長	崔淳雨	서울市宮井洞	全州人
國會議員		朴斗先	서울市黑石洞 密陽人
國會豫算決算專門委員	丁永煥	井州邑下茅里	靈光人
全北知事		李桓儀	靈光西湖夢海 全州人
井邑郡守		趙榮浩	全州市老松洞 玉川人
都廳		金麟基	井邑七寶院村 道康人
都有司		金在欽	서울市北仙洞 道康人
副有司		宋榮玉	井邑七寶市基 礪山人
		姜漢秀	新泰仁南溪洞 晉州人
		安東燮	井邑七寶新興 順興人
		金公瑞	新泰仁瓢泉洞 清道人
		金用基	井州邑蓮池里 道康人
總務		崔鳳植	井邑七寶建興 全州人
		金炯基	井邑七寶院村 道康人
監董		金麗述	井邑七寶三里 道康人
		權榮順	井邑瓮東漆里 安東人
		金鎬俊	井邑七寶院村 道康人
掌簿		金煥吉	井邑七寶東邊 道康人
		宋榮達	井邑七寶建興 礪山人
		宋元鏞	井邑七寶三里 礪山人
京有司		金鉉辰	서울市孔德洞 道康人
義助員		金奉述	全州東棲鶴洞 道康人
		金龍基	井邑七寶建興 道康人
		金淡述	井邑甘谷通石 道康人
		金永桓	井邑七寶三里 道康人

金相基 井邑山內巢禽 道康人
 元俊常 井邑北面馬亭 原州人
 權文集 井邑泰仁梅溪 安東人
 朴正圭 井邑七寶沙堤 密陽人
 李東根 井邑七寶市基 全州人
 權寧祚 全州市太平洞 安東人
 金東柱 井邑七寶四里 義城人
 丁斗秀 羅州別良牛山 靈光人
 徐光玉 井邑淨雨三山 利川人
 金四述 新泰仁亭子里 扶安人
 朴良彦 新泰仁瓢泉洞 密陽人
 林炯奎 新泰仁新興洞 羅州人
 金才述 井邑七寶三里 道康人
 金煥忠 井邑泰仁總斗 道康人
 孫邦珍 井邑七寶餘岩 密陽人
 丁種鉉 井邑七寶白岩 靈光人
 裴秉瑞 井邑淨雨水金 星州人
 崔泰鎰 井邑淨雨山北 全州人
 宋榮日 井邑七寶市基 礪山人
 金淙述 井邑七寶三里 道康人
 金德基 井邑七寶院村 道康人
 金元基 金堤萬頃黃裳 道康人
 禹濟國 井邑七寶院村 丹陽人
 丁明秀 扶安白山元川 靈光人
 韓奎澤 井邑七寶杏壇 清州人
 安興眞 井邑泰仁甌山 順興人
 丁斗鉉 群山市中央路 靈光人
 禹濟棟 井州邑伏虎洞 丹陽人
 姜正熙 井邑七寶東邊 晉州人
 金在基 井邑七寶院村 光山人
 南廷珍 順天市長泉洞 宜寧人

丁漢秀 順天市長泉洞 靈光人
 金煥東 井邑七寶六里 道康人
 申東烈 新泰仁邑六里 平山人
 金聖基 井邑七寶院村 道康人
 金鍾元 井州邑元上洞 延安人
 李正錫 井邑七寶三里 星州人
 崔三述 井邑瓮東鷗村 朔寧人
 申鳳均 井邑七寶興二 平山人
 李圭憲 井邑七寶石灘 咸平人
 李喜澤 井邑七寶市基 星州人
 丁金秀 完州九耳桂谷 靈光人
 金煥政 井邑七寶三里 道康人
 洪在述 井邑山內四升 南陽人
 金福述 井邑七寶道山 羅州人
 崔墀洪 扶安山內鎮西 全州人
 宋英浩 井邑七寶伏虎 礪山人
 權泰景 井邑七寶外舟 安東人
 鄭永達 井邑泰仁蓮汀 慶州人
 裴二錫 井州邑明倫洞 益城人
 鄭炳彥 井邑七寶伏虎 慶州人
 朴五龍 井邑瓮東蘆灘 潘南人
 鄭炳學 井邑七寶鳴川 慶州人
 金宗汶 全州市西老松 道康人
 徐在敬 井邑七寶寶林 全州人
 李琯信 井邑瓮東五成 全州人
 朴炳一 井邑瓮東梅井 密陽人
 李周鉉 新泰仁斗池洞 益山人
 金錫基 井邑瓮東內洞 道康人
 金大煥 井邑德川優德 道康人
 宋興燮 井邑北面柯亭 礪山人
 金容鶴 光州市荷白洞 光山人

朴魯讚 井邑淨雨花川 密陽人
宋榮碩 井邑七寶松山 礪山人
權判吉 井邑甘谷勝芳 安東人
河官容 新泰仁南溪洞 晉州人
姜永一 井邑瓮東七石 晉州人
愼三範 井邑七寶建興 居昌人
李厚淵 井邑七寶東邊 全州人
田泰峰 新泰仁新市洞 潭陽人
丁福秀 井邑七寶院村 靈光人
田福基 井邑七寶長久 潭陽人
黃宗琪 新泰仁長橋里 昌原人
林赫圭 井邑七寶興二 羅州人
崔文吉 井邑瓮東貞洞 朔寧人
安鍾淑 井邑七寶長久 順興人
金漢碩 井邑七寶市基 道康人
金 坤 井邑七寶院村 道康人
李錫周 井邑七寶東邊 全義人
金玉基 井邑七寶伏虎 道康人
宋一浩 井邑七寶六里 礪山人
尹賢得 井邑七寶大興 坡平人
金仁燮 井邑山外平洞 義城人
金相基 井邑七寶道山 道康人
宋丙浩 井邑七寶六里 礪山人
宋潤燮 新泰仁新龍里 礪山人
朴鍾南 井邑七寶白岩 密陽人
韓邊洙 井邑瓮東蘆灘 錦溪人
黃圭南 新泰仁長橋里 昌原人
金煥祚 全州市劍岩洞 道康人
金兌周 井邑泰仁泰昌 慶州人
金東基 井邑七寶院村 道康人
許 珍 新泰仁瓢泉里 陽川人

丁永東 井邑泰仁粉洞 靈光人
 趙啓湜 井州邑中央洞 玉川人
 宋柄燮 新泰仁新興里 礪山人
 趙穰元 新泰仁新市洞 漢陽人
 鄭熙俊 井邑七寶伏虎 慶州人
 宋榮東 井邑七寶市基 礪山人
 吳相喆 井州邑蓮池洞 海州人
 李敦冕 井邑七寶石灘 全義人
 權五植 井邑七寶市基 安東人
 丁寶鉉 井州邑下茅里 靈光人
 金炯星 井邑北面台谷 金海人
 奇用南 井州邑中央洞 幸州人
 金一基 井邑七寶東邊 道康人
 宋三燮 井邑七寶市基 礪山人
 金台煥 井邑泰仁五峰 清道人
 金榮得 井邑七寶新興 安東人
 吳海完 井邑甘谷勝芳 海州人
 李洪洛 全南海南城內 清安人
 丁炳吉 井邑七寶院村 靈光人
 權赫相 井邑七寶大興 安東人
 金日生 서울市東橋洞 道康人
 金生基 井邑七寶院村 道康人
 鄭泰辰 井邑淨雨望潭 迎日人
 金倉基 井邑七寶白岩 道康人

武城書院史蹟指定紀念碑記

本院實爲我邦書院之濫觴而孤雲崔先生及六賢妥靈之所自丙子肅廟朝賜額後卿宰道伯及南北襟

紳莫不崇奉因爲道院春秋講磨白日試士頻年有之獎學勸善莫有過於此可謂湖南之冀北矣挽近革新後

其規遂廢院貌之隨殘享儀之薄略其於羹牆之道難禁忸怩之誠院儒及本孫

合謀周旋且政府篤之幫助春

秋享需院宇修繕粗得紓艱矣頃年金庠基博士以士林薦推戴院長之任與國立博物館崔淳雨課長相議尊

賢之義協力周旋去年七月國家以史蹟指定本院自此院宇一圓求受政府保護是乃建院以後初有之盛事

也道內人士相與慶賀各出誠金一爲春秋享需之補助一爲紀念事業之費用亦衰世之美舉也然則何以表

之可乎僉議莫若鐫諸貞珉垂于不朽故不佞亦忝案中一人也不揆文拙略述梗槩云爾

檀紀四千三百二年己酉七月上澣 道康金麟基謹記并書

礪山宋成鏞篆書

本院常務任員

儒林掌議 金相基

色掌 崔鳳植

本孫掌議 金淙基

色掌 宋元鏞

有司 金麗述

57. 무성서원중수기념비(武城書院重修紀念碑)

都廳	金 澤
	金炳庸
	金煥豐
	柳興慶
	宋榮祚
都有司	崔永大
	金炳祭
	車東珍
副有司	朴鍾燮
	溫聖河
總務	金麟基
	申鉉麒
	金相洙
	孫斗宣
	宋羽會
	白達寅
監理	金龍源
	金喜洙
	崔庠植
	盧泰源
	李弼緒
	朴宗珩
掌簿	金成基
	金煥一
	徐丙玩
	權德仲
	文鳳基

	韓鍾旭
	趙炳弼
	徐廷祥
	盧鎮祥
掌財	朴宗遠
	姜尙雲
	金千斗
	姜河遠
改慕	金洛峻
	金廷述
	李培源
	金炳順
	姜準熙
	李鳳敦
	李鍾聲
	李鉉璣
	朴炳善
	朴佑緒
奉禎	朴喜東
	崔顯旭
	朴永根
	文柱泰
	林東鐵
	姜基馨
	鄭琮主
	魏禧良
	金泰益
	金在榮
	洪鍾煥
	吳鎬泳
	申 松

梁冀錫
洪鍾柱
張榮奎
宋柱澈
金昌燮
金東鎬
朴永權
申 穉
朴時玄
劉貞烈
金炳洙
金采源
尹在旭
金權五
趙東奎
文昌承
蔡洙瑄
裴在燮
金聖喜
韓宗孝
文昌說
高濟淳
尹滋弼
李義琬
文光碩
金鍾實
金春斗
朴洙學
金厚奎
姜道錫
金正權

趙斗烈
宋正萬
李相皓
丁炳甲
尹台鏞
安華榮
洪化畝
丁炳奎
郭祥萬
崔完澤
吳秉南
朴鶴鍾
趙冕燮
裴東鎬
金錫用
丁大豐
賓德昌
蘇同奎
金容辰
丁秉燮
韓麟源
廉祥洙
王相奎
金東浩
鄭海默
崔炳梧
金容桓
高元坤
楊珣燮
蔡奎文
申鉉大

金錫琦
吳昶淵
高聲在
李臣炯
丁永旻
金炳默
金哲洙
丁基燮
金容奎
殷成大
表基煥
白樂九
高奉柱
黃鶴顯
廉鍾湖
牟日煥
廉同燮
金公瑞
宋榮玉
安興眞

去甲子夏本院以道內士論設講會及白日場試士勸學而因發重修之論其時士林多有義助因而立紀念碑斯碑卽是也余猥添總務之任董督是事而倭奴暴政下誤被勉菴崔先生舉義同意碑拘禁月餘累辨不解竟至廢而秘藏曷勝痛嘆幾至解放後出於院庭卽當復立而爲經費所窘因循未果間者故友光山金喜洙[■]胤容鶴君帶院任奉審後見而慨然興嘆曰尙今未立後輩之過也自擔其費巍然立于院庭何其壯哉噫風俗頹敗利慾蔽交之日微斯人篤志其誰能之耶衆議斯人斯功從以言語相傳恐久則浪沒囑余記實故辭不獲已畧述表之而

董督是事者院儒崔鳳植金在基金炯基君也
檀紀四千三百一年戊申菊秋十一日道康金麟基記

58. 병오창의기적비(丙午倡義紀蹟碑)

崔孤雲과申靈川이治縣하고李一齋가講學하며丁不憂軒宋訥庵鄭墨齋金誠齋金鳴川이이어風化하던옛太山이공을은君子鄉이다
 故로이곳에武城書院이서고여기에서선비들이倡義한것은偶然한일이아
 니다韓末의國運은기울어倭賊은乙巳條約을勒結하고國
 權을强奪하니이예言論은이를糾彈하고一部朝臣과全國各處의儒生들은
 勒約의無效와五賊의斬首를上疏하다侍從武官閔泳煥이
 告同胞文을남기고自刎함에殉國하는烈士가잇따르니抗倭義兵活動은激
 化하여翌年丙午에는全國의으로擴大되다 이때에일어난
 武城書院의丙午倡義는湖南의多數義士들이崔益鉉을盟主로旗幟를들다
 이를契機로그氣勢가湖南全域에떨치다당초崔益鉉은乙
 巳勒約의破棄를上疏하고倭賊의罪狀을痛駁하여倭政府와外國公館에보
 냈으나大勢를돌이킬수없음을알고痛憤하던중門人高石
 鎮崔濟學의正論을받아들여湖南으로내려와井邑郡山內面宗聖里에서舉
 事準備中인林炳瓚과倡義하기로하니이는高石鎮의識見
 과崔濟學의局量그리고林炳瓚의經綸을밧었기때문이다林炳瓚이崔益鉉
 을맞이執贄禮를올리자스승인崔益鉉은林炳瓚에게義軍
 의兵權을一任하니丙午三月初一日의일이다崔益鉉은同志를巡訪中鎮安
 崔濟學의藏修處인三友堂에서李浩鎔鄭栢鉉등과方策을
 論議하며各處에提携를請하고宗聖리로돌아와來訪義士들을接見하다이
 때를前後하여倡義所에出入한義士中奇宇萬高光洵金相
 璣李恒善李錫庸李圭弘楊允淑등은이舉事後各處에서義陣을領導하다한
 편林炳瓚은決定된舉事日인閏四月十三日에金永相金箕
 述金直述柳種奎權在一등의協助로武城書院에儒林을모으고砲手를招集
 하다崔益鉉은四月初二일에倡義疏를올리고初八日潭陽
 龍湫寺에서奇宇萬등儒林五十餘名과會同하여同盟錄을作成하고檄文을
 各邑에 띄우다四月十三日武城書院에당도한崔益鉉은먼
 저奉審하고金瞽에게時到記를적게하다講會를마친다음倡義할뜻을밝히

니願從者가八十餘名이라때에林炳瓚의義兵百餘名이合
 勢하니部署를定한다음隊伍를整頓하고바로泰仁邑에들어가畚民을모아
 倡義事實을알리고倭賊의十六大罪聲討文을倭公館에發
 送하고바로縣內武器를거두다때에金禹燮이數人과함께從軍을願하므로
 殘留하여謀報할것을命하다十四日井邑에서또武器를거
 두고內藏山에留陣中高龍鎭金在龜姜鍾會가領率한砲軍三十餘名이加勢
 하니義兵이三百餘名이라 十五日孫鍾■이이를左右翼으
 로分陣一場操鍊하니軍容이肅然하다進軍中龜巖寺에營宿하는데蔡永瓚
 이砲手數十名을引率入陣하다十六日淳昌邑民의出迎을
 받고守城將을불러銃砲를거두자砲手數十名을이끌고黃均昌金甲述楊允
 淑등이오니姜鍾會를火砲長金甲述을首砲手로삼아整軍
 하고바로倭兵一隊를擊退하다谷城淳昌을巡廻中義兵數는倍增하고또金
 松鉉嚴德祚가砲手數十名을이끌고와總軍數는六百이되
 고十九日에는八百名에이르다淳昌邑에서또倭兵數十을擊退하고文書와
 武器등을鹵獲하다二十日倭賊의앞잡이鎭衛隊가前後로
 挾攻해오니崔益鉉이同族相殘은不可라하여그들에게退去하라하고義兵
 도解散을命하다그러나義兵百餘名이차마떠나지못하는
 데때에鎭衛隊가射擊을해오니銃聲이震動하고銃彈이비오듯하다때에鄭
 時海가적탄에殉國하고林炳瓚高石鎭金箕述柳種奎崔濟
 學文達煥林顯周趙愚植趙泳善羅基德李容吉柳海瑢梁在海등十三義士가
 最後까지盟主와더불어남아곤被逮되어刑獄을치르다이
 밖幕下에서護衛하던義士蔡永贊金甲述이있어이들로하여금機密文書
 를秘藏脫出게하다林炳瓚과함께對馬島에監禁된 崔益鉉
 은그해十一月十七日끝내抗倭殉節하고林炳瓚은後日高宗皇帝의密旨로
 再舉하려다拘禁되어巨文島에서殉節하며諸義士들도
 各義陣에서猛躍하다아壯烈하다國破君亡之秋에皓首丹心の崔益鉉先
 生과義血滿腔한湖南義士諸公들이여이곳武城
 書院에서드높인學義의깃발이여이거룩한事蹟을길이欽慕紀念하고자各
 界人士들의뜻을모아石碑를 세우다
 檀君紀元四千參百貳拾五年(西紀一九九二)壬申陽復月十七日
 井邑郡守金成淵撰

慶州鄭泰書面

蔚山金鍾燮書

康津金煥在豎

59. 사인 김인기 불망비(士人金麟基不忘碑)

士人金麟基不忘碑

重修碑記

碑於庭所以麗牲而鐫其上表章之也竊惟武城已爲院久矣毀補靡常而自我社屋彫頽日甚春草無人之歎果何如哉去甲子春金君麟基掌院色慨然圖所以一新凡可於事者或不計尺尋而求之四閭祀而功告成良工獨苦之心可見矣不寧惟是最致慮於院資零星無以給糗牲遂敷心一二有志俾納田一方牲殺器服庶乎得以如儀噫今然明舉世微之人之誠孰能發人之好懿若是耶於是乎院議一曰道厥功可勒以余忝鳴翁裔與君有宗人分記所睹莫余詳屬以志之嗣是而得其門者見美富圓其揖者告充膺則謂斯言之不至諛而使毀畫者知所警已巳南至節康津金煥珏識

參奉金堤金然灝篆書

儒林有司李容學

崔東根

本孫有司金煥星

丁南明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

60. 영상 이공최응 불망비(領相李公最應不忘碑)

尊賢尙德

保復重勳

豐功盛烈

柔牲愈潔

61. 전 감역 정문술 중수 의조비(前監役丁文述重修義助碑)

院長校理 金鎭祐

執綱直員 姜禧淳

訓長幼學 柳秉養

摺紳掌議都事 崔翼煥

五衛將 盧載庸

嘉善 崔庸植

道內掌議參奉 朴淵維

參奉 李亨老

色掌都事 崔鳳煥

本齋齋長參奉 權沂洙

掌議進士 崔永大

色掌幼學 金斗泓

儒林掌議幼學 禹功鎭

幼學 韓吉洙

色掌參奉 金斗泓

直月參奉 金炳庸

直月 金廷述

重修都有司教官	金直述
副有司幼學	權載一
參奉	李在宇
本孫有司參奉	金永胄
參奉鄭漢郁	
監董幼學	宋丙燮
幼學	金煥珍
文簿有司幼學	金煥一
幼學	趙洵榮

本院道院也隨毀隨補士林之責而邇來士氣
 委爾院貌凋殘丁監役汶述慕賢尚義捐金重
 修委役於權在一氏閱月告完設白日場試士
 勸學使美蹟恐湮沒詢僉議鐫諸碑屬余記實
 余不文辭不獲遂記如右
 丁巳孟夏康津金煥豐■

62. 전 의관 이경희 불망비(前議官李慶熙不忘碑)

前議官李慶熙不忘碑【尊賢其義一片堪語 院貌重勦俾也可忘】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

不忘碑記

事業古人所謂三不朽之一也碑而記記其實亦不忘之義也本院道院也凡百需用比他浩繁殆難維持前議官李慶熙慶州望族以慈善見稱於鄉里而際茲本院重修之役捐金出人一層納土田春秋享需朔望供饋永久是圖有院後初有功也斯人斯功頌在口碑何以石爲然目之所睹思從之於不忘之義碑亦不爲無助故僉議詢符屬余爲文槩實而記之尸其事者金炳庸金麟基崔庠植金成基宋榮祚金龍源也

乙丑仲春上澣道康金煥豐撰

進士驪興閔泳碩書

63. 전 참봉 주찬형 기공비(前參奉朱燦馨紀功碑)

武城書院賢宇重修紀功碑序

賢希聖士希賢崇德獎進嫡傳師門之正脈也泰之院武城崔孤雲申靈川兩先生倡學遺愛之邦立祠妥靈而五賢追

躋倣滄洲精舍配食之義也枊在遙紀風雨瀕洞賢宇薨楣傾歪■及仍志於修而困財未遂者稔矣省內善士前參奉

朱燦馨卽紫陽肖裔以搢紳掌議奉審助祭課年甚殷今夏捐巨貲重修巽鳳輪奐俾獲鼎新非一木可支非一人堪抵

初未斷手而起信曠代絕舉在綾城本校之修功此倍蓰雖統國皆稱不爲夸也其從子坤已文行鴻碩亦趾慕賢侍趨

替行克勤終始何其韙哉噫昔嚴先生之祠仲淹修焉韓文公之廟君滌修焉皆居任而施事斯人斯行發諸仁而忘功

吁可尙已弦歌之鄉縫掖仝集而是役也居齋殫誠出入補漏者時任金煥豐李熙元也院議析簡要余紀功獎而許之

遂書于石求旨於字外以俟好賢君子櫟括焉

上章敦牂仲秋上浣

嘉善大夫原任 奎章閣副提學延安李炳觀撰

義城金東柱書

64. 진사 최영대 영세 불망비(進士崔永大永世不忘碑)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海平尹用求書

進士崔公永大紀功碑銘

語云一家仁一國興仁未有仁而不孝友者亦未有仁而不好施者也日井邑治金君麟基作而

告曰進士崔永大氏全州望族是麟之外舅天性純至事親志體俱養友兄弟財無異儲家稍饒

周窮恤匱知積而能散一言一事動中矩矧爲士友所推重庚申春捐金董工移建孔夫子影殿寄土田資俎豆武城書院又屬土田以豐春秋享需是以道郡章甫僉議將伐珉紀

功使麟謁執事乞惠以一言焉麟非敢阿私實惟士林之僉議也余曰噫內行醇備如公焉而聲

實不顯豈有是也人有功德碑而久其蹟由來久矣然旌閭貤職今無其典是可恨也銘曰

孝友肥家詩禮潤身警鍾昏衢慈航迷津慕聖慕賢割土捐金片石千秋過者式臨歲在丁卯之孟夏

崇祿大夫禮曹判書原任 奎章閣提學

安東金宗漢撰

道康金麟基書

有司	幼學	權在一
議官		田義錫
副有司	參奉	姜基馨
		徐仁煥
掌議	幼學	金煥豐
	參奉	崔麒宇
色掌	幼學	金相洙
		韓奎澤

65. 통정대부 전 비서감승 신용희 불망비(通政大夫前秘書監丞申瑢熙不忘碑)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尹用求書

不忘碑記

書院表裏學校人而莫不知尊慕焉講習焉然而其創設也修葺也皆自士林故其難常倍蓰於學校而士之能致力於院事者世不常有往往有壞漏殘缺之患焉歲甲子南北紳士相與議重修本院是年秋修賢宇明年春及講堂呂至於絃歌樓改瓦之役盡力乃完而藏修齋之漫漶也門樓之朽柱也墻垣之圯壞也庫舍之傾頽也又有甚焉而不暇及財絀力綿可以推知若過今日雖欲葺之難乎爲功矣前秘書監丞申鎔熙氏平山名家慈善其心德也尊賢其事業也呂士望所屬爲本院之貳長祇謁後視及於此自爲之經畫擇院儒之能幹者金炳庸金麟基李弼緒李機淳任之不數月而竣工焉又置田土以豐院享此皆多士意望之所未到者也噫顧今世界利欲滔滔而苟非篤好斯文實志尊慕者孰能及此自儒中將豎碑紀功以示不忘以其文請於余余亦樂道人之善者遂不辭而記之

歲旃蒙赤奮若陽月上澣道康金煥豐記

禮曹判書兼奎章閣學士安東金宗漢書

66. 현감 서후호순 불망비(縣監徐侯灝淳不忘碑)

縣監徐侯灝淳不忘碑 기타 휘손으로 판독 불가

67. 현감 이후정식 불망비(縣監李侯定植不忘碑)

保復遂舊

誠深慕仰

忝芬重馨

頌溢刻銘

- 연구책임자 홍성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김건우(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백진우(전주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 채현경(전주대 한국고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박선영(전주대 한국고전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연구보조원 조성민(전주대 대학원 사학과 석사수료)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발간 용역

발행일 : 2020년 12월 18일

발행처 :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한국고전학연구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618호